

국가기록원

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기록물 열람|

대전 본원 : 042)481-6300, 부산지원 : 051)550-8000, 서울센터 : 02)720-2721

|기록전시관 투어|

대전 본원 : 042)481-6785, 부산지원 : 051)550-8027

|국가기록원 견학|

대전 본원 : 042)481-6777, 부산지원 : 051)550-8027



제1회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을 알면 세상이 보여요

「기록사랑 백일장」 수상작품집

백일장



기록을 알면 세상이 보여요

「기록사랑 백일장」 수상작품집



04	목차
05	발간사
06	심사를 마치고
07	행사 이모저모
11	시부문
57	산문부문
127	포스터·표어부문
137	만화부문



발/간/사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우리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2일 개최한 제1회 『기록사랑 백일장』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신 분들의 작품을 모아 수상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어 기쁩니다.

『기록사랑 백일장』은 대전·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전주·마산 등 전국 각지에서 2,500여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체험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현재 국가기록원은 고객중심의 전자 기록관리로 『세계일류 기록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록은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 자원으로 활용될 때, 그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기록이 살아 숨쉴 때, 그것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며, 지식강국의 근간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을 활용하여 『내 고향 역사알기』, 『기록으로 보는 생활사』, 『기록을 활용한 학습부교재 발간』 등 일반 국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상들의 빛나는 기록문화를 다시 이어가고자, 다양한 기록사랑 문화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록 사랑 UCC Festival』을 비롯해, 각종 자료 전시 및 시사회, 기록물 제자리 찾기 사업, 『기록 EXPO』 등이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헝가리 등과 『기록보존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몽골·스리랑카 등에 기록유산 보존 기술을 지원하는 등 해외 교류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일장은 참여자들에게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백일장에 입상한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하며, 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백일장이 성공리에 개최되도록 후원한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투데이 등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일장에 대한 애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7월

국가기록원장 조 윤 명



심/사/를/마/치/고

국가기록원이 주최한 제1회 기록사랑 백일장 입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시대는 상상력이 고갈될 위험이 점점 더 증가하면서 글쓰기에 대한 부단한 교육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기쓰기는 개인의 역사 기록이라는 차원에서 권장할 만한 글쓰기 실천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한 기록사랑 백일장은 기록의 가치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출품작들에는 좋은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수상자를 선별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대상수상작들만 보더라도 시 부문 '어머니의 보물'을 필두로 산문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포스터 부문 '기록은 정보창고' 등 과거와 현재를 잘 대비시켜 기록의 중요성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가능성 있는 작품들이 많이 출품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 전체적으로 초등부 학생들이 두드러졌는데, 글을 대하는 심성에서 순수하고 진정성이 뛰어났으며, 만화나 포스터 부문 역시 순수성과 접근방법에 솔직한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경험들을 잘 대비시켜 재미있고 솔직한 기록이 중요성을 살리는데 과장 없이 사실적으로 내용을 꾸밈없이 잘 드러냈습니다. 반면 일반부문은 상대적으로 출품수가 저조하여 분발이 요망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백일장은 제1회 행사임에도 기록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뛰어난 예지로 구체화하여 우수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 의미를 홍보하는데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록문화의 우수성과 기록의 중요성을 알리는 백일장 행사로 꾸준히 진행되어 국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인협회 대전광역시지회장 · 충남산업디자인협회장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사랑 백일장」 수상작 시부문

수상자

- 〈초등부〉 • **금상** | 최정원 • **대전광역시장상** | 박시완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 이수연 • **은상** | 차유진 · 박소현
 • **동상** | 이경은 · 최진주 · 김승건 · 노영서 · 남정우 · 주미수 · 우도연 · 이윤철 · 이현주 · 박지수
- 〈중등부〉 • **대상** | 조명현 • **대전광역시장상** | 천수현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 최경은 • **은상** | 태미나 · 정지영
 • **동상** | 임광택 · 양수건 · 이신비 · 최정숙 · 김다솜 · 유혜진 · 조혜지 · 조현아 · 최유정 · 안혜영
- 〈일반부〉 • **금상** | 조재연 • **대전광역시장상** | 조경희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 김정기 • **은상** | 박선영 · 박성희
 • **동상** | 정은선 · 유지훈 · 황현주 · 주선미 · 김경용 · 박정원 · 박호언 · 유정미 · 김연대 · 양소망

기록사랑

백일장

엄마는 기록쟁이

초등부 | 금상(행정자치부 장관상)

최정원 대전 / 성남초등학교 1학년

시
부
문

용알용알 내 소리는
테이프에서

엄마뺏속 내 모습은
사진첩에서

어릴적 내 이야기는
육아일기에서



자라나는 내 모습

초등부 | 대전광역시장상

박시완 공주 / 정안초등학교 2학년

우리집 벽에는 내 키가 있어요.
커다란 나무의 나이테처럼
한살씩 먹을때마다
줄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집 앨범에는 내 얼굴이 있어요.
방긋방긋 웃는 아기 얼굴
씩씩한 유치원 어린이 얼굴
의젓한 1학년 얼굴
얼굴이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아홉살이에요.
내가 클때마다
우리집 벽이 자라나요.

나는 지금 아홉살이에요.
내가 클때마다
사진 속 내 얼굴이 자라나요.

날마다 어른이 되어 변해가도
우리집 벽의 내 키와
사진 속의 내 얼굴은
항상 나를 기억해요.

기록사랑

백일장

우리 엄마 가계부엔

초등부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이수연 대전 / 샘머리초등학교 4학년

시
부
문

우리 엄마 가계부엔
크고 작고 중요한
약속들이 들어 있다.

우리 엄마 가계부엔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들어 있다.

우리 엄마 가계부엔
생활의 필수품인
경제가 들어 있다.

우리 엄마 가계부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들어 있다.

아, 내가 그랬었구나.

초등부 | 은상(국가기록원장상)

차유진 대전 / 둔천초등학교 5학년

어떻게 생겼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지 않는
옛날 모습, 내 모습.

조그마한 손으로
지렁이 글씨가 쓰여 있는
내 어릴적 일기장을
찾아봅니다.

아, 여기 있구나!
손가락에 침 묻혀
한장한장 넘겨봅니다.

비뿔뿔 글씨..
알아보지 못해도
옛날 기억들이 소곤소곤
읽어줍니다.

아, 내가 그랬었구나.
가족들의 애교덩이
였구나.

아, 내가 그랬었구나.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였구나.

아, 내가 그랬었구나.
열심히 자라는 아기나무
새싹이었구나.

지렁이 글씨가 쓰여진
내 어릴적 일기장.
내 어릴적 모습, 내 기억
담아주는 마음상자,
행복상자.....

아, 내가 그랬었구나!

기록사랑

백일장

일기는 내 친구

초등부 | 은상(국가기록원장상)

박소현 대전 / 샘머리초등학교 4학년

시
부
문

일기장은 나의 저축통장
동전을 먹는 저금통처럼
나의 소중한 기억들을
한낱 한낱 담아 두지요.

일기장은 나의 좋은 친구
항상 옆에 있는 단짝처럼
괴로울 때나 기쁠 때나
큰 향아리 되어 받아 주지요.

일기장은 미래로 가는 타임캡슐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
누구에게 전해질까?
호기심에 가득 찬 나의 하루.

일기장은 나의 보물 친구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재처럼
나에게 소중한 기록으로 남아
지금 내 서랍 속에
두둥실 행복한 꿈 꾸지요.

기억하고 싶은 일

초등부 | 동상

이경은 대전 / 매봉초등학교 5학년

비뿔뿔 서툰 글씨.
처음 써본 일기 한 편.

좋은 일만
기억하고 싶은지
매일매일 행운의 날.

찰각찰각 내 사진
하하호호 예쁜 얼굴.

기쁜 일만
추억하고 싶은지
한장 두장 함박웃음.

알록달록 숲속그림
찌르르르 산새소리.

행복한 일만
생각하고 싶은지
푸른빛 밝은그림.
쫄로롱 고운소리.

언제나
기억하고 싶은 일.

기록사랑

백일장

내 사진첩

초등부 | 동상

최진주 대전 / 서원초등학교 2학년

시
부
문

내 옛날 모습이
다 드러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내 사진첩

꼬박 밤을 새워
옛날의 너랑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싶어.

너랑 악수하고 싶어
꼭 껴안고 싶어.

네가 있기에
내가 커가는 모습이
보이는 구나.

사진첩아, 고마워.

내가 만약에

초등부 | 동상

김승건 대전 / 성천초등학교 3학년

내가 나무라면
나이테가 있겠지

내가 거미라면
거미집이 있겠지

내가 꿀벌이라면
꿀이 모여 있겠지

내가 원시인이라면
동굴벽화가 남았겠지

내가 왕이었다면
나에 대한 글이 있겠지.

내가 만약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위인전에 이름이 남겠지.

기록사랑

백일장

약속할게요

초등부 | 동상

노영서 서울 / 등현초등학교 3학년

시
부
문

일주일에 세번 쓰는 일기
어떤때는 즐겁지만
어쩔때는 귀찮아요
그래도 그래도 지나고 나서
읽어보면 일학년때
일기는 귀여워요

내가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열심히 쓸 거예요
왜냐고요? 내가 커서
우리아이에게 전해주려구요

너무 빠르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열살인걸요

기억할래요 기억할래요
엄마가 날 위해 쓰셨던 것처럼
나도 내 아이를 위해
예쁘게 예쁘게 쓸 거예요

약속할게요 약속할게요
잊지 않고 쓰겠다고...

조선, 신화가 아니라 역사로 남다!

초등부 | 동상

남정우 대전 / 유평초등학교 5학년

아빠에게 들었던
재미있는 옛날의
조선시대 이야기
경복궁의 향기들.

태조부터 마지막
철종까지, 위대한
조선왕조실록은
우리들의 보물이다.

오백년의 조선시대
실록 속에 살아있다
진실되게 조선왕조를
외치는 자랑스런 실록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역사를 들으리.

조선이라는 시대를
신화가 아닌 역사로
믿을 수 있고 알릴 수 있는건
조선왕조실록이 존재하기 때문.

조선왕조실록은
달하지 않는 조선이자
꺼지지 않는 등불이자
지켜야 할 역사이자
사랑하는 유산이다.

영원히 이어질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록의 역사를 만들자
살아 숨쉬는 역사를 만들자.

세계 널리 알려줄
자랑스런 유산 중
조선시대 빛나는
아름다운 실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정치, 경제, 사회와
과학기술, 국방 등
어느 것 안 미치리오

조선시대 이모저모
실록속에 숨을 쉬다
솔직하게 조선왕조를
말하는 아름다운 실록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역사를 말하리.

조선이라는 시대를
거짓이 아닌 진실로
확신할 수 있고 자랑하는 건
조선왕조실록이 존재하기 때문.

조선왕조실록은
항상 열리는 조선이자
햇살이 비치는 하늘이자
보호해야 할 역사고
존경하는 유산이다.

영원히 이어질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록을 소중히 여기자
살아 숨쉬는 역사를 만들자.

기록사랑

백일장

나의 일기장

초등부 | 동상

주미수 대전 / 샘머리초등학교 6학년

시
부
문

간밤에
꿈틀꿈틀
지렁이가 다녀갔나?

조잘조잘
떠들어대는
참새떼들이 다녀갔나?

화사한 봄날
어여쁜 꽃들이 만발해
내 마음을 설레게도 하고

우르르 뿜!
우르르 뿜!
무서운 번개와 천둥이
다녀가기도 하고

나의 소중한 추억과
생활이 있는 곳!

지우고 싶은 일들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일들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나의 추억의 장!

"언제나 즐겁게 써요."

초등부 | 동상

우도연 대전 / 자운초등학교 1학년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이
날마다 일기를 써요.

학교에선
예쁜 글씨로
또박 또박
알림장을 써요.

언제나 따뜻한 눈길로
나를 보는
아빠의 미소는
마음 속에 꼭꼭
눌러써요.

공책이 늘어 갈수록
내 마음 속 쌓이는
초록빛 이야기를
친구들 얼굴에
웃음으로 써요.

언제나
즐겁게
모두 모두
우리 세상을 써요.

우리 앞에 기록

초등부 | 동상

이현주 대전 / 둔천초등학교 6학년

흘렀던 대한민국은
그 기록도 찬란하구나

일연의 삼국유사
김부식의 삼국사기

대한민국 기록역사
첫걸음의 시작이구나

세종대왕 훈민정음,
기록으로 우리에게

한글십사 남겨주셔
후손들은 감사하고

500년의 조선역사
한권으로서 기록남기니

조선왕조실록 탄생하여
역사의 길에 발자취를

남기어 큰 뚝이 되리
길이길이 빛나라

기록이라 때로에는
흙과 같아
굳게 되면

튼튼하게 땅이 되고
때로에는 물과 같아

흐르게 되어
큰 강이 되고

기록이란
삶의 기억처럼

모든 머리 안에
기억할 수있어

기록이란
흙, 물, 기억처럼

사람과 늘 같이
있음이다.

이런 기록 역사되니
우리 모두 기록사랑

실천하여 21C 대한민국
이끌어 나가자

기록사랑

백일장

펜으로 과학을 그리다 빈치

초등부 | 동상

박지수 청주 / 모충초등학교 4학년

시
부
문

엄마가
물풍선 살 돈 주신다고 해
"펜으로 과학을 그리다."란
과학 동화책을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펜으로 과학을 그렸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빈치는
잉크를 넣어야 하는
펜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해
잉크를 넣고 다니는
만년필을 만들었지

다빈치는 관찰한 것을
기록하고 설계해
헬리콥터, 자전거, 33문대포
많이 많이 만들었지

나도 관찰일기를 쓰고
그려 놓으면 이 다음에
다빈치처럼 되어 있을까?

열심히 기록해 놓아야 겠다.

어머니의 보물

중등부 | 대상(행정자치부 장관상)

조명현 익산 / 진경여자중학교 2학년

우리집
하늘과 가장 가까운
다락방에는 어머니의 보물이
소중히 잠들어 있습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을 밟듯
다락방을 이어주는
길고 긴 사다리를
올라가면

뿌연 먼지 속
흘러간 세월만큼
낡은 상자 하나가
나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손때가 묻고 빛바랜
육아일기 몇 권

첫 응얼이 첫걸음부터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
곳곳에 붙여진
나와 부모님의
다정한 모습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나를 키우신
어머니의 기록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내려간
나에 대한 기록
나를 사랑하고
또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잊혀질뻔한
묻혀질뻔한
나의 유년에 대한 이야기

우리집
하늘과 가장 가까운
다락방 낡은 상자 속에
어머니의 보물이 있습니다.

기록사랑

백일장

아무 것도 없던 종이

중등부 | 대전광역시장상

천수현 대전 / 도마중학교 3학년

시
부
문

아무 것도
담고 있지
않던 종이
어떤 가치도
없던 종이

그 종이에
누군가 붓 들어
조상들의 삶
그려 놓는다

한 획에는
조상들의 지혜를

한 획에는
조상들의
한숨소리를

찢어진 종이 조각
모아 보니
그 속에 담긴
조상들의 눈물
조상들의 죽음

우리 조상들의 눈물을
우리 조상들의
억울한 죽음을
어느 누가 알아줄까

눈물로
종이 붙여
내놓으니
화 내고
오리발 내밀던 일본
고개 숙인다

처음에는
가치 없던
종이

후손에게
조상들의 지혜
물려주고

처음에는
가치 없던
종이

조상들의
애처로운 죽음
억울한 죽음
밝혀 주었다

종이치마

중등부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최경은 대전 / 대화중학교 2학년

종이 치마 나풀거리네
바람결따라 물결따라
쉽없이 나풀거리네

피묻은 칼자국은
붉은 잉크 자국 되고
군중의 함성소리는
떨리는 잉크 자국 되었네

짠 소금에 절인 듯
누렇게 시든 종이 치마는
영광과 아픔을 담고
쉽없이 나풀거리네

이 세상 바람이 침묵하고
모든 강물이 말라버리면
잠시 동안 춤을 멈추리
죽은 듯이 잠적하리
검은 잉크 다시
그 몸을 파고들어야만
아픔을 딛고 나풀거리리

지금은 별들만이 비추어주어도
언젠가 달빛도 눈을 돌려줄
종이 치마는 알고 있기에
차가운 펜촉에
얇은 몸을 맡기네

그 치맛자락
사실은 귀중한 보석이어서
누군가 그를 찾으면

초록빛 가득한 들판에
살포시 내려놓으리

영광의 상처를 딛고
별처럼
아니 별이 되어서
쉽없이 나풀거리리
빛을 받으며
나풀거리리

기록사랑

백일장

추억을 사랑하는 방법

중등부 | 은상(국가기록원장상)

태미나 대전 / 가양중학교 3학년

시
부
문

기억입니다
내가 깊이 바라며
간직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소중한 기억입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뒤를 돌아보고는
그들에서 서성이는 나를 보며
담아두었던 것은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큰 소용돌이가 일던
바다를 보았습니다
소용돌이 속으로
동그라미가 번지면
이내 잠잠해지다가도
높이 솟아올라
속을 훤히 내보이는..
몇만년을 흘러왔는지 모르는..
그런 바다 끝을 바라보는
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만났습니다
미로 속 반짝이는 화살표같은
길잡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얻었습니다
매일 미소 짓게 하는
보람과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얼룩진 나를
극복하고 반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추억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내 마음 속 깊이
날아드는 비둘기 곁에
숨가빠 달려온
나를 잠시 누입니다

연필끝 세상

중등부 | 은상(국가기록원장상)

정지영 대전 / 둔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길을 걷다 발끝에 채인 연필조각
그 조그만 연필심 끝으로
내 머릿속 기억의 세포들은 숨을 쉰다

찢어진 종이 조각 속 추억들은
화려한 무대 위 주인공으로
발돋움 한다

두 입술 사이로 피어나고
그대의 귓바퀴 안으로 흠어지는
손 끝 마디마디의 가락들..

무심코 흘려버린 기억들을
잊고 살았던 사진 속 추억들을
다시 연필심 끝으로 불러낸다

내 머릿속 기억의 세포는
세 손가락의 세포는
세 손가락의 연필을 타고
보드란 종이 위 까만글자들로 태어난다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록사랑

백일장

일기

시
부
문

중등부 | 동상

임광택 대전 / 유성고등학교 2학년

일기를 쓴다
대밭에 대순이 돌아나듯
빈 노트에 내 삶의 초록빛
발자국이 찍혀간다

일기장에 담지 않으면
부서져 바람이 될 이야기들이
저마다의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들을 보며

과거로 조금씩 거슬러 오르다 보면
지금은 거의 잊혀져 버린
울면서 이사 간 이웃집 계집애의 눈물과
할머니 돌아가시던 그 봄날
처연하게 떨어지던 목련의 아픔이 그려져 있고,

모닥불처럼 타오르다
언젠가는 꺼져버릴 내 사랑의 열정이
피 묻은 흔적으로 찍혀져 있다

내 삶은 여백을 채워가는
한 줄기의 여정
걸어가는 길가에 자잘한 이야기들이
일기장에 기록되면 역사가 된다

때때로 마음의 모습 비춰보는
거울이 된다

나의 한 조각

중등부 | 동상

양수견 대전 / 청란여자고등학교 3학년

차를 타고 밖을 내다보면
창 밖의 풍경은
순간 순간 변한다
지나간 풍경은
오래지 않아 잊혀져버리고 만다

나는 그래서
나를 모른다

지나간 순간 속의 나를 잊어서
그 지나간 순간 속에
나의 한 조각도 사라져서
나는 나를 모른다
사라져버린 시간 속에
흩어지는 나의 조각들

그래서
오늘 나는,
나의 한 조각을
종이 위에 새긴다

내가 담긴 시간 속에서
나를 찾아낼 수 있도록

곧,
사라져버릴
이 순간의 나를 위해

오늘도 나는
나를 적는다

기록사랑

백일장

추억

시
부
문

중등부 | 동상

이신비 대전 / 삼천중학교 1학년

의자에 앉아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눌 때 즈음

방 한 구석에
면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상자 하나

그 상자를 주빚주빚
조심스레 열어보니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찍었던 사진
친구들과 가지고 놀던 고무줄,
공기돌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그것을 하나씩 꺼내어
추억을 꺼내 보았더니,
여러 가지 생각이 사라지고
웃음꽃이 피어 올랐다.

그 곳은 우리들의 추억이
쌓여있는 낡은 보따리였다

기록사랑

백일장

사랑의 쪽지

중등부 | 동상

김다솜 대전 / 충남여자고등학교 1학년

시
부
문

“오늘도 힘내!”
작은 메모지에 짝막히 박힌
다섯 글자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점심하고 저녁 거르지 말고
집에 돌아올 때 차조심하고...

내 눈 앞에 보이는 것은
짧은 다섯 글자지만
엄마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열 가지도 넘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나의 방문에
사랑의 쪽지를 붙여줍니다
때론,
말보다는 글이
더 애뜻한 날이 있습니다

힘내, 사랑해, 화이팅...
별 거 아닌 짧은 말이지만
쪽지에 써놓고 나면
한번 읽으면 그 말이 예쁘고
두 번 읽으면 그 사람이 예쁘고
세 번 읽으면 그 맘이 고맙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이지만
나도 엄마에게 쪽지를 씁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너무 짧나, 좀 더 길게 쓸까,
고민하지만
짧은 한 줄로 끝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분이 좋을지는
엄마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생각해 보고
별 거 아닌 일에도
“와, 기분 좋다”
즐거워질 수 있도록

붉은 꽃잎 한장

중등부 | 동상

유혜진 대전 / 대전여자중학교 1학년

백두산 꽃길에
무궁화 꽃잎
가나다라마바사
기록의 꽃잎

백두산 계절에
피어난 꽃잎
기록의 발전에
열린 꽃봉오리

꽃잎 한장속에
붉은 수줍음
기록 한자속에
당당한 대한민국

백두산 온 천지가
붉게 물들 때,
우리 기록역사가
세계에 날릴 때

그 꽃잎이
그 꽃잎이
더욱이
발그스레해 진다

기록사랑

백일장

할머니의 낡은 일기장

중등부 | 동상

조혜지 대전 / 한밭고등학교 3학년

시
부
문

어느 덧, 예수를 넘기신 할머니께서
힘겹게 한 손에 돋보기를 움켜쥐시고는
낡은 서랍장 속에서 빛바랜 일기장을 꺼내셨다

낡은 종이 위에 작고 서투른 올망졸망한 글씨로
하루, 이틀, 그렇게 육십년의 세월을
할머니와 함께 채워온 벗인 게다

순이와 함께 뛰놀던 잔디밭 풀내음내
아궁이 불 지피면 나던 구수한 된장내
“엄마엄마”하고 품 속으로 달려들면 나던 젖내음새

한 장, 한 장, 할머니의 세월을 넘길 때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고향에 대한 향수 속에서
오늘도 눈시울이 붉게 물드신 나의 할머니
“그래도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이 것 덕분이란다”
썩썩한 미소를 보이며 태연한 척 빛바랜
일기장을 덮는다

그리고
이슬 방울이 툭 떨어졌다

기록사랑

백일장

다른 모습들의 나

중등부 | 동상

최유정 대전 / 신일여자중학교 2학년

시
부
문

드르륵, 서랍속에
어두컴컴한 구석진 자리

비좁고, 먼지가 우글우글하지만
그 곳은 나의 자리입니다

속삭속삭, 고사리 손으로
빼뿔빼뿔 쓰여진 글씨

생일, 입학, 졸업, 선물... ..
웃음 베어난 한편의 조각

행복, 슬픔, 우정, 미움... ..
마음속 나의 모습

한쪽, 한장, 한권
나는 점점 깊어져갑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오랜 시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기다립니다
언젠가 나를 향해
반가움의 꽃을 피우는
또 다른 나를

부지런함 우리의 친구

중등부 | 동상

안혜영 대전 / 월평중학교 1학년

우리엄마 시장갈 때
하안종이 까만그림

날마다 메모하니
집안살림 낭비없네

전교 1등 우리오빠
수업할 때 연필이 텅실텅실

자세히 메모하니
시험볼 때 한눈에 콕

책벌레 우리아빠
독서노트 십여권

세월의 기록들이
우리집 보물1호

우리가족 기록사랑
나라를 살찌운다

기록사랑

백일장

어머니의 수첩

일반부 | 금상(행정자치부 장관상)

조재연 서울 / 명지대학교 1학년

시
부
문

어머니의 낡은 서랍장에서
 추억을 함구한 수첩 한권을 발견했다
 한 장 한 장 곱삭은 시간을
 넘길 때마다 바다 냄새가 환하다
 어머니는 서툰 글씨로
 새벽 바다를 그려내고
 아버지의 눈물 먹은 생애를
 풍문처럼 기억해내고 있었다
 어부였다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닳고 닳아버린
 기다림의 수첩 속에서
 지금도 항해를 하신다
 바다 위에서 낚던 부푼 꿈들을
 한 올 한 올 풀어낼 때 마다
 가슴 한 구석이 아려온다
 풍랑 같은 하루를 사셨을
 한 번도 본적 없는
 그리운 나의 아버지

나는 가만히 수첩 속에서
 아버지의 숨결을 듣는다

당신이 있음에 -조선왕조실록-

일반부 | 대전광역시장상

조경희 / 대전 서구 둔산동

시
부
문

오늘 우리는
녹빛 물결 따라
무전 여행길 오르는
과거열차 속 나그네

배고픔과 모든 역경 속에서
허덕이는 소 인양
백성들의 힘없는 절규
망망대해 찾아들고
비단 용상 위에 고뇌 찬 군주
하얀 밤 지새울 즈음
나는
매 순간 판단의 늪에서
서성이고 있다

구슬땀 흠쳐내던 사관의 손길
초개같이 목숨 던져
당신을 사수했던 선비님들
호령치듯 민족혼 부르매
서성이던 날 일깨우는 오후

사백 칠십 이년의 역사의 결정체
험난한 산맥 넘고 넘어
산골짜기에 은둔하였더니
보옥같은 그대 자취
오늘에야 뵈웁니다

당신 이름 여섯 글자(조선왕조실록)
세계인의 기억속에 등지를 틀어 살고
유네스코 가족되어
총총히 각인되는 오늘

동방의 새 빛 뒀은
내가 갈 희망의 이정표

이제
우리는
당신을 찾아 헤메지 않을
종착역을 맞습니다

오월의 푸른 빗장 풀고
꽃향내 울타리 보듬으며
용기로 담을 쌓고
지혜로 인테리어 하면서
당신이 머물 그 곳에
한아름 정겨운
너와 내가 되고져

기록사랑

백일장

역사는 꽃잎되어 남는다

일반부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김정기 대전 / 탄방동사무소

시
부
문

역사는 바람에 날리지 않는
꽃을 피운다

태고적 누군가
정성스레 뿌린 씨앗으로
한움큼 싹을 틔우고

해와 달의 손길로 보듬어져
암흑의 시대마다
곳곳이 지지 않고 자라나

살며스레 기지개 켜듯
세상으로 조금씩 조금씩
꽃을 피운다

꽃잎 한겹한겹 새겨진
역사의 한글자 한글자마다
지워지지 않는
꽃잎의 장식이 된다

매서운 세월의 바람이 불때마다
꽃잎은 소스라치듯 움츠러
장식을 숨기우고

따뜻한 햇살가닥 찾아올때면
장식 하나하나 분수처럼 뿌려내어
바람에 날리지 않는
역사의 꽃을 피운다

오르페우스 심전

일반부 | 은상(국가기록원장상)

박선영 서울 / 명지대학교 1학년

비 그친 자리에 아내의 비열이
 흐른다 느슨해진 하늘, 돌이키 배
 고 누우면 건조대엔 종달새 한
 마리 잼싼바람으로 달아난다 물레
 가 물을 끌어올리듯 독약처럼 풀
 마르고 검버섯 핀 책창엔 책갈
 피 달아오른다 당겨진다는 것
 생은 깊숙이 파고들수록 타오르는
 것이다 더 이상 울지못하는 오르페
 우스의 붉은 눈, 나 서있는 자리
 에 너 걸어들어와 거뿔처럼 여린
 몸냄새로 말라간다

시
부
문

기록사랑

백일장

종이와 빛의 힘

일반부 | 은상(국가기록원장상)

박성희 대전 / 유성구 송강동

시
부
문

종이 한 장은 너무 가볍습니다
붓 한자루는 너무 약합니다

종이 한 장, 두장이 모여 한권이 됩니다
붓 한자루로 한자, 두자 많은 글자를 씁니다

시간이 흘러 한권, 두권...
나의 생각, 사상이 모아집니다
나라의 역사가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줄이 됩니다

미래로 향하는 목표가 됩니다

종이는 무한한 꿈입니다
붓은 향해하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거짓의 붓은 사람을 죽입니다
진실의 붓은 사람을 살립니다

거짓의 붓은 죄인이 됩니다
진실의 붓은 의인이 됩니다

책임감을 느낍니다
진실의 붓을 사용할렵니다

거울의 비추어진
나의 모습
나라의 모습

티끌을 모으다 보면 거대한 산이 됩니다
덩치만 큰 산이 아니라 아름다운 산
기록의 힘입니다

심록(心綠)

일반부 | 동상

정은선 대전 / 한밭영재어린이집교사

시
부
문

미안합니다
주제넘겨진 마음을
달래고픈 고통을
어찌할 수 없어
당신의 마음속에
또 한 장
묶어봅니다

슬퍼집니다
형용할 수 없는 심사를
쓰러져 기대고파
당신의 마음속에
또 한 장
생채기를 냅니다

감동입니다
두방망이질 억누를 수 없는
눈물겨운 마음을
당신의 마음속에
또 한 장
담아봅니다

행복합니다
푸른하늘과 맞닿은
눈이 시릴 정도로 강렬한
짜릿한 순간을

당신의 마음속에
또 한 장
장식합니다

절절한 마음을 퍼붓고
때론 몸부림쳐 울부짖고
벽찬 마음을 두 손 가득
끌어안으며

나의 온 마음을
나의 뒤편길을

나의 흔적들을
당신의 마음속에
아낌없이 토해냅니다

그래요
아는군요

세월의 바람에 쓸려도
생채기로 찢기어져도
바스라져 한조각으로 남을지라도

모든 나의 마음을
모든 나의 다가올 운명들을

당신은
늘

받아 줄거라는걸

결코
나의 흔적을
빛바람속에
남겨두지 않는다는걸

기록사랑

백일장

우리 아기에게

일반부 | 동상

유지훈 서울 / 홍익대학교 건설도시공학부

시
부
문

아가야, 알고 있니?
세상엔 다양한
풍경이 그려지는걸

아가야, 이건 아니?
세상엔 풍경을 그리는
화가들이 있다는걸

아가야, 저건 아니?
세상엔 그들이 그려는
스케치북이 많다는걸

아가야 그건 아니?
세상엔 스케치북을
조심스럽게 가지고 다니는
화가들도 있다는걸

아가야, 꼭 알고 있으렴

문신(問身)

일반부 | 동상

황현주 과천 / 중앙동 주공아파트

시
부
문

심장에 Power on
자유로운 피,
피는 뼈와 교감했다

뼈에 새겨진 혼백의 전율
할아버지의 전쟁기록이
풍수를 타고
두려움으로 새겨졌다

간으로의 갑작스런 하이퍼링크
공장에 갇힌 아버지의 간은
떡볶이 옆 찜통 속에서
붉은 파닥거림을 떠올리며
스트레스로 굳어지고 새겨졌다

두 번의 클릭으로 열린 창
심장의 붉음을 그나마 간직한
나의 입술이
'욱' 하는 삶의 무게로 숨구멍을 파내려 할 때

심장에 새겨진
원형의 문신(文身)
'낮설은 고통도 다 지나간다'

다시 피가 돈다
전류가 흐른다

기록사랑

백일장

까만공책

시
부
문

일반부 | 동상

주선미 천안 / 선문대학교

장롱 속 노랗게 변한 흘린 글씨체
 안 아기자기 물려있다
 스물네살 시집 온 분홍빛이 서려 짜각인다
 숨을 죽이며 한 장 한 장 넘겨 집는다
 눈 속 미꾸라지가 마구 헤엄쳐 금새
 눈물이란 흙탕물이 고여버린다
 글씨체 속에는 굳은살과 디스크의 진단서가
 쏟아져 나온다
 내 등 뒤 누워있는 등은 새근새근 TV소리와
 함께 미동으로 다가와 피부치에 부벼댄다
 척추로 이어지는 다리 위 피멍과 까진
 상처들은 고개를 들고 퍼진다
 냉이무침을 먹고 싶었던 철부지 스무살
 딸을 둔 스물네살에 시집 온 여자는
 냉이를 캐다 아스팔트에 치인다
 허리가 안좋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다리에
 상처를 주렁주렁 달고 냉이를 캐냈다
 발끝을 벗어난 이불로 상처를 덮인다
 까만공책을 덮어 장롱 깊숙이 박아 둔다
 뇌리 속에 침투하여 노란 글씨체가
 내 주위를 맴돈다

기억의 기록들

일반부 | 동상

김경용 대전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사람의 기억이란
무서운 것
그 기억을 기록한
나의 홈페이지 속 일기장
그 일기장 속 기록은
가끔 성냥의 화약

모니터 앞에 앉아서
나의 지난 사진과
나의 글들의 기록을 보고
나 혼자 울고 웃으며

묵묵히 성냥갑 속에
존재하다가
어느 날 불현듯
꺼내어져
활활 타오르다
피식 꺼져버리는
그 황망함이란

지금 나에게 쥐어진 성냥갑
아무 생각 없이
성냥 한개 꺼내어
확 태우고
또 태우고
멍하니 불꽃을 응시한다

괜히 지난날이 그리운 날엔
난 또 그 무의식에
굳게 결부되어있는
무언가에 의해
나의 기록을 더듬어
보고 있겠지

기록사랑

백일장

국가기록원의 하루하루

일반부 | 동상

박정원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시
부
문

태조의 유구한 역사의 고통소리가
이천 칠년의 싱그런 오월에도 쉬지
않고 정부대전청사 국가기록원에
끊임없이 메아리 친다

세상살이 복잡하고 지쳐 힘들다 하여도
살아있는 발자취의 연속성은
어김없이 오늘도 중앙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생산과 보존
관리 대체매체에 수록되어 종이기록
물로, 시청각기록물로, 마이크로필름등
으로 하나 하나 국민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통쾌하고 속 시원한 열쇠가
되어 삶의 사건과 현장속에서도 역동적으로
함께하며 백성들의 아픈 눈물과 군더더기
문제를 부수고 벗겨 아낌없이 땅에 떨어준다

동아시아와 국제기록보존 협의회를
통해 지구가 하나이듯 세계 속에서도
인종을 넘어, 언어를 넘어, 환경을 넘어
살아 숨쉬는 우리의 발자취는 기록을
통해 그 족적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듯 국가기록원은
국가의 역사를 기록, 보존하고
백성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며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오늘도 각 부서 부서마다 직원들의
몸과 눈과 마음과 손길이 바쁘다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정부대전청사의
섬없는 늦은 밤의 야경이 대전의
도시를 밝힐 때 국가의 미래가
밝고, 백성이 활짝 미소진다
그러기에 우리 삶 자체가 바로, 기록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업무 하나 하나가
모여 국가와 국민의 웃음과
문제해결의 신호탄이 된다

기록이 진실이 되고 정확할때, 그리고
그 기록이 올바르게 역사속에, 삶속에 바로 설때
그 기록속에서 진한 역사와 삶의 향기를 발한다.

오늘밤도 정부대전청사의 불빛은
세상의 어둠을 향해 진실의 소리를 외치며 빛난다!

이 불빛이 밝게 세상을 불 밝힐때마다
국민을 평안히 안위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덮고
나라와 세계를 밝히는 소망의 불빛이 되어
대전의 밤 하늘에 부서져 내린다!

국가기록의 불빛이 되고,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덮어주는
따스한 평화의 불빛이 되어... !!!

영원한 생명을 얻는날

일반부 | 동상

박호연 한국철도공사

시
부
문

우리의 생각은 그것을 쓰는 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단순히 그 생각으로 그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손은 그 것을 옮겨 적는 것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단순히 그 파동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렇듯 무덤에 묻힐
이렇듯 바람에 날아갈
우리의 말과 생각은 하나의 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무덤에 묻히더라도
우리가 바람에 날아가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살아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생명을 얻게 해준다

기록사랑

백일장

나의 흔적들

일반부 | 동상

유정미 충북 / 영동군

시
부
문

열달 동안의 기나긴
고독의 숨결을 고르고
땀줄을 지팡이 삼아
세상 빛을 보았다

그때부터 였나보다
내 어머니께서 남겨 주신
희망의 손짓이 시작되었던 날들은

미안함에 가슴 저민 날
아쉬움에 고개 떨군 날
고이고이 남겨 두신 세월
어머니의 작은 메모가
켜켜히 쌓여 추억을 낳는다

흔적을 삼키고
세월을 마셔
홀쩍 커 버린
또 다른 나를 본다

한 장 한 장 추억 넘기는 소리
귓전에 맴돌면
마음으로 느껴지는 너의 진심
더운 여름 햇볕 가려줄
든든한 버팀목 된다

두 주먹 꼬옥 쥐고
울음우는 순간부터
꽃 부케 들고 내 품 떠나는
그 날까지
어머니 그랬던 것처럼
귀한 일기장 혼수로
챙겨 주리라

승화

일반부 | 동상

김연대 경남 / 마산

소유 할 수 없는 사랑도
 잉크로 남겨진 그 사연이
 절절한 연(戀)으로 녹아 나고
 단혔던 가슴앓이도
 백지에 그려진 그 자국이
 뭉클한 심(心)으로 피어나네

문혀있던 태곳적 유적도
 펼쳐진 세상에 그 흔적들이
 아련한 역사로 녹아나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국가기록원에 수집된 그 자취가
 자손만대 본보기로 피어난다

기록사랑

백일장

때로는 '나'라는 사다리를 타고 새로 내려다보자!

일반부 | 동상

양소망 YBM시사영어사

시
부
문

에머랄드 빛 고운 날개를 지닌
한 마리 새, 그리고 나

머언 여정 끝
회상의 길은 얼마나 달콤한가
또 얼마나 눈물겨운가

한때는 폭풍우에 치여
날개짓조차 하지 못한
외로운 비단결이여

나는 읽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너의 과거를
너의 슬픈 눈망울을

너를 통해 나를 본다
너를 통해 사다리 넘어 하늘을 본다

힘들어 감히 넘지 못한 사다리를
나는 올랐다

사다리를 오른다는 것
정체성에 관한 기록
나를 향한 무한한 꿈

그렇게 때로는 '나' 라는 사다리를
타고 새로 내려다보자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사랑 백일장」 수상작 산문부문

수상자

- 〈초등부〉
 - 대상 | 임수연 • 대전광역시장상 | 조유하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 김예림 • 은상 | 서술 · 강현아
 - 동상 | 이아현 · 이에린 · 이선경 · 이장원 · 김민선 · 김나연 · 김민정(용인) · 이기주 · 김민정(대전) · 황태현
- 〈중등부〉
 - 금상 | 안혜지 • 대전광역시장상 | 김고은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 양다현 • 은상 | 황정윤 · 최보영
 - 동상 | 진홍주 · 서소혜 · 서민지 · 이하연 · 양주영 · 전연교 · 정혜경 · 유혜진 · 박민영 · 최은정
- 〈일반부〉
 - 대상 | 김윤재 • 대전광역시장상 | 오영란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 이정민 • 은상 | 황현주 · 엄명숙
 - 동상 | 유은옥 · 안미숙 · 이선상 · 신달수 · 하연경 · 김혜영 · 박원규 · 오기영 · 김선유 · 이미자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초등부 | 대상(행정자치부 장관상)

임수연 대전 / 신계초등학교 6학년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록을 하면 나중에 기억이 잘 안날 때 다시 보면 기억이 나는데에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하지요.

제가 이 글의 제목을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고 정한 이유들 중 하나도 이와 같습니다.

기록이란 또 다른 말로 메모라고도 합니다. 즉, 기억할 것을 무언가로 남겨 두는 것이지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

“우리 중 약 95%의 사람은 자신의 인생목표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한 적이 있는 사람 중 95%가 자신의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록을 해야하는 이유와 중요성을 말할 것 같습니다. 기록을 하면 성공한다는 뜻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일기쓰기 조차 싫어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일기를 꼭 써야 하는가? 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기를 반대하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이유에는 귀찮다거나 힘들고 시간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일기를 썼다는 것 입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이순신 장군님께서 쓰신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쓰신 것이지요.

기록을 하면 좋은 점은 매우 많아서 다 쓸 수도 없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과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좋다는 것만 예로 들겠습니다.

기록의 종류에는 영수증, 일기, 관찰기록, 독서기록 등이 있습니다. 영수증이란 자신이 언제, 무엇을 어떤 금액으로 샀는지 물건을 사면 주는 것 입니다. 일기는 자신의 하루 일과를 적는 것으로 나중에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 볼 수 있습니다. 관찰기록은 자신이 관찰한 대상을 적는 것으로 그 대상의 특징이나 생김새를 필요할 때 다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기록이란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이나 느낀 점 등을 적는 것으로 나중에 읽은 책의 내용이 기억이 잘 안날 때나 그 당시 자신이 그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지 다시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기록은 우리 생활의 곳곳에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찮다고 안 씻으십니까?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나 귀찮더라도 기록에 습관을 들이고 실천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기록은 습관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학교 및 여러 곳에서 기록관련 대회가 열리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기록의 중요성과 소중함 등을 가르치고 일기대회,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영수증 모으기 대회 등 많은 기록관련 대회를 많이 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리는 기록관련 대회에 적극 참여하며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모두가 노력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 나라는 발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기록에 습관을 들여 실천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훌륭한 일을 하기 때문 이지요. 지금까지 기록을 귀찮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저녁 일기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앞에 썼던 존 맥스웰의 명언을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산
만
만
만
만

기록이 중요해요.

초등부 | 대전광역시장상

조윤하 대전 / 샘머리초등학교 5학년

따르릉 따르릉.
 저녁을 먹고있는데 전화가 왔다. 민주였다.
 “여보세요.”
 “윤하야! 나 민주인데 오늘 알림장에 써진 미술 준비물이 뭐였더라? 내가 알림장을 안써서.....”
 “오늘 미술준비물? 잠깐만...”
 얼른 뛰어가서 알림장을 가져왔다.
 “물통, 붓, 팔레트, 8절 스케치북이 필요해.”
 “그래? 고마워. 내일 만나자.”
 “응. 안녕.”
 민주는 청소를 하느라 알림장을 쓰지 못하고 머릿 속에 기억을 해놓았던 것이다. 준비물을 친구에게 알려주니 보람차고 기분이 좋았다. 나도 가끔 알림장을 쓰기 귀찮아서 머릿속으로 외운 기억이 있는데, 그날은 준비물을 알림장에 잘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다음날 학교에서 알림장을 쓸 때, 선생님이 써주시지 않고 말로 설명하셨던 섬세한 것들을 기억해 뒀다가 알림장에 옮겨 적었다. 그러니 밤에 준비물 챙기기가 보통때보다 쉬웠다.
 우리 집에는 달력마다 동그라미 밑에 빨간 글씨, 검정 글씨가 가득하다. 엄마가 적고, 동생까지 커다란 글씨로 특별한 날을 준비한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마트에 가실 때마다 메모지에 살 것들을 적어가신다. 며칠전 부터는 돈이 없다 걱정하시더니 가게부까지 쓰기 시작하셨다. 이 가게부가 모여지면 우리집에 중요한 경제 기록이 될 것이다.
 기록이란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려면 자꾸 잊어버리고 내용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종이 등에 적는 것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훈민정음 등의 기록이 없었다면 옛날 궁에서 일어났던 회의, 사건 등을 알지 못해 우리가

우리 한국 역사를 자세히 알지 못했을 지도 모른다.
 얼마전 청사 견학을 하면서 국가기록원을 관람했다. 그곳에서 배로 다리를 만들어 왕이 건너는 배다리 모습도 봤고, 유관순 열사의 사진과 옛날 기록들도 봤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목소리도 들었다. 요모조모 재미있게 잘 꾸며 놓은 것 같았다.
 국가기록원을 둘러보니 기록은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느껴졌다. 나도 이제부터 용돈 기입장을 써서 엄마처럼 필요없는 지출을 줄여야겠다. 그리고 일기도 매일매일 써서 하루의 중요한 일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나의 소중한 역사를 잘 만들어 가야겠다.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은 우리의 미래'

초등부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김예림 대전 / 신계초등학교 6학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윌리엄 부스는 대사업의 기록은 대고난의 기록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위인들은 기록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록이란 하나의 글이나 모습 등을 자기 자신의 기억 속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고 기록하며 어떠한 것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는 기록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실생활속에서는 일기, 독서기록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초등학생들도 바빠지는 시대. 기록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죠. 그래도 사회에서는 우리의 역사와 기록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왜 하필 우리나라의 기록이 왜곡되고 사라진 후에 기록을 다시 찾는 것 일까요? 그 이유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의 기록을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자기네 나라의 기록을 빼돌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정부에서는 이것의 대책은 세우지 않고 단순 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기록이 없어지는 일은 생기면 안됩니다.

고로 왜 우리가 기록 하는일이 중요한 것일까요? 첫째,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왜곡된 역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어 먼저 우리가 기록 역사하면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중 이순신 장군님이 쓰신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는 이순신 장군님께서 임진왜란때 전쟁을 하시며 쓰신 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난중일기는 우리의 역사를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난중일기로 인해 하나의 역사를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난중일기처럼 조선에 쓰여졌던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일어난 순서대로 쓴 사건의 책입니다. 전 조선왕조실록을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보기는 했는데 사건 하나 하나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놀랐고, 다양한 방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난중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을 말할 것처럼 왜 기록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추억, 역사등 미래에 그것을 알고 싶어 할 때 기록, 바로 기록을 보면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 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기록을 잘 알아 두어 생활 속에서 써야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주지 못한다면 기록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먼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록은 제일 먼저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의 장점은 내가 20살이 되어서 13살 때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학원과 스트레스로 밤에 쓰기가 귀찮고 피곤하여 일기를 잘 안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록의 종류. 문화재청, 정부, 학교,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기록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정부에서는 지금 제가 체험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대회를 개최하여 기록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아이들에게 기록의 종류를 알려주고 또한 생활에서 쓰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것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만 모든 방면에서 노력을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기록의 필요성을 깨달을 것 입니다.

기록이 대중화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모두 기록을 깨달으며 노력합시다.

산
만
만
만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은 빛나는 별이에요.

초등부 | 은상(국가기록원장상)

강현아 대전 / 둔산초등학교 6학년

기록은 중요한 내용이나, 나중에 잃어버릴 수 있는 내용을 적어놓는 것이다. 문자 외에 음성·영상 기타 방법에 의한 기록도 기록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중에 그 기록이 필요할때, 생각이 나지 않으면 간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귀찮다고 시간이 없다고 기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기록은 문화적 가치가 높다. 왜냐하면 기록을 남기면 오랫동안 보존되어서 옛날의 생활모습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옛날에 기록되었던 것이 지금은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예를 들어 훈민정음이나, 직지심체요절, 조선왕조실록 등이 말이다.

그리고 생활속의 편리함이 있다. 아이슈타인도 평소에 기록·메모 해두는 것으로 유명했었다. 어느 날은 한 기자가 자택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아이슈타인은 서랍속에 있는 수첩을 꺼내 자신이 기록해 두었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처럼 요즘에도 우리의 생활에서는 아이슈타인과 같은 편리함이 있다. 하지만 기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뿐이다. 기록을 한다면 거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적는다. 그것도 좋은 습관이다. 하지만 이순신장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루를 빼먹지 않고 일기를 썼다. 우리들은 학교에서 일기를 쓰라는 숙제로 일기를 쓴다. 일기도 하나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일기는 하루의 생활을 써보며 반성할 수 있는,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학교에서 일기를 써오라고 하지 않아도 계속 썼었다. 그 일기로 하루하루를 반성하고 나의 나쁜점 고쳐야 될 점, 잘한 점들을 다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5학년때는 선생님께서 시키신 심부름 때문에 알림장을 적지 못하였다. 집에가서 친구들에게 물어 보려고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귀찮아서 적지는 않고

외우기만 했었다. 그리고 이젠 집에 와서 전화를 하려고 하니 전화번호를 까먹었었다. 난 그때 전화번호를 알려 줄때 적을걸 이라는 후회심이 내 머릿속을 뛰어다녔다. 그리고 일기를 썼을 때는 나의 생활이 더욱 나아진것 같았고, 친구들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았다. 꼭 간단한 메모가 아닌 일기처럼 자신의 생활 모습을 쓰고 반성하는 것도 한편의 메모이다.

결코, 기록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다. 나도 작은 기록 하나가 귀찮다고 쓰지 않았는데 내가 겪어본 후에 깨우치게 되었다. 일기같은 기록은 옛날부터 써와서 많은것을 깨우쳤었다. 그리고 이 글을 씀으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기록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었다. 나에게 빛나는 별이 밤하늘에 없어서는 안되듯이 기록은 나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 모두 작은 기록이라도 나를 되돌아 보고 반성할 수 있는 일기에라도 큰 관심을 가지고 귀찮다고 시간이 없다고 기록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큰 것에도 기록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활 속 작은 기록, 메모

초등부 | 동상

이아현 대전 / 둔산초등학교 6학년

요즘 주변에서 여러가지 기록과 기록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록의 예로는 일기와 신문기사 등이 있는데, 특히 일기는 생각을 정리하고 한 권의 추억이 된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학생들과 심지어는 성인들도 많이 쓰고있다.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기록은 바로 메모이다. 기존에 있던 직사각형 모양의 단순한 접착식 메모지 외에도 캐릭터디자인이 되어있거나 특수문자·알파벳·숫자모양 등의 독특한 메모지도 많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메모지를 골라서 쓸 수도 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화려하지 않게 꾸며서 써도 보람이 느껴진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기록 중에는 메모를 가장 많이 할 것이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전화할 때. 전화한 사람이나 그 사람의 전화 번호, 그리고 전화한 목적 등을 적어두면 전화할 때나 전화가 왔을 때 모두 정말로 편하다. 따라서 전화기 근처에 메모지와 볼펜 등을 비치해 두면 편하다.

둘째, 가족간의 부재중메모. 집에 나밖에 없고 가족들이 전화도 받지않을 때, 식탁 위나 텔레비전 같이 잘 보이는 곳에 돌아올 시간과 가는 곳 등을 적어놓고 가면,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

셋째, 공부할 때.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중요한 것들을 접착식 메모지에 써서 붙여 놓으면, 깔끔하고 보기도 좋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인들도, 메모를 애용해 왔다. 한 유명한 과학자이자 발명가의 경우, 한 기자가

“당신의 연구실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 그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볼펜 한 자루와 메모지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는,

“나의 연구실은 이 볼펜과 메모지입니다. 생활 속에서 발명할 것이 생각나면 바로 적고, 그것을 토대로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역대 미국 최고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링컨도 있다. 그가 최고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것은 그의 멋진 연설문 때문인데, 그는 늘 쓰고 다니던 모자 속에 메모지와 펜을 넣고,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을 들으면 바로 적었기 때문에 멋진 연설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나도 메모로 덕을 본 적이 있다. 수학학원에서였는데, 문제풀이를 적어두면 잘 외워지고 깔끔하고 보기도 좋았다. 그래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 또 교과서가 책이나 그림으로 가득차서 메모할 공간이 없길래 접착식 메모지에 써서 붙였더니 효과적 이었다.

요즘 메모가 좋은 기록법이라며 뜨고 있고, 메모 하는 법을 주제로 한 책도 많이 나와있다. 또, 나도 그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한번쯤 읽어보기 바란다.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메모를 하면 중요한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다. 이제 메모에 대해서 잘 알고, 메모로 인해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 사랑

초등부 | 동상

이예린 대전 / 신계초등학교 6학년

기록! 기록이란 뒤에 남기려고 적음, 또는 그런 글을 뜻한다.

10여년전에 대구에서 공익 근무를 하시던 공익요원이 발굴한 서해반공 유격군 구월산 유격군에 기록이 휴전 45년만에 발굴 되었다.

약 200여 페이지에 구월산 유격대의 상세한 정보와 대원들의 이름, 나이, 본적 등 구월산 유격군에 상세한 기록이 담겨져 있다.

국가는 대전 국가기록보존소에 이를 보관함으로써 모든것을 마무리짓고 아무런 대책과 예우, 기록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약, 200여 페이지에 문서를 2005년에 입수하여 구월산 유격대가 전설의 유격군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기록이 없었다면 유격군이 실제로 존재 했던 것으로 밝혀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선사시대라고 들어는 봤는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문자의 발명과 그에 따른 기록이 남겨지기 이전의 시대. 이 시대를 선사시대라 한다.

기록이 없으면 선사시대처럼 그 때의 유물과 유적을 통해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일화도 내가 아는 언니를 통해 들어봤다.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에 비해 머리가 좋아서 기록 하지 않고, 일본 사람은 머리가 나빠 잘 기록한다.”

우리는 이걸 듣고, 웃으며 그냥 지나쳐가지만, 이 뜻을 잘 풀이하면 우리는 무한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도 된다.

머리가 좋아서 기록 하지 않는다면 기록을 했을 때에 발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위인들... 예를 들어, 광개토태왕, 계백, 김유신, 원효, 장보고 등... 위인전에 기록되어

있는 위인들은 무수히 많다.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속에 담아둘까? 예로부터 우리는 기록을 해왔다.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인들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배울 수 있었고, 우리는 그런 그들을 본받을 수 있었다.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어 왜구를 무찔렀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기록을 하였다. 사람은 모두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무수히 많은 우리나라의 문화들... 이걸 다 기록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록! 기록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나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수업시간에 기록을 해둔다. 그건, 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일까? 아니다! 나중을 대비해 미리 기록해 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 나는 배워왔다. 틈만 나면 기록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기록이란 두 글자를 별로 관심없게 보아왔다.

이제 그 두글자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 뒤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들은 총 4가지 인데, 먼저 훈민정음해례본! 1446년 음력 9월 출간된 필사본으로 세종대왕의 공포문과 집현전 학자들의 해설 및 해례를 포함하고 있다. 또, 조선왕조실록도 있다. 조선을 개국한 태조부터 철종까지의 470여년간의 왕조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물이다.

다음은 승정원일기라는 기록도 있다. 이걸 조선 시대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에서 매일 작성한 일기로 국왕의, 하루 일과와 지시, 명령, 각 부처의 보고, 국경회의 상소자료들을 총망라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번엔 모두들 알고 있는 직지심체요절이다.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인 주자로 찍어낸 것으로 상하 2권중 하권이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로써,

산
만
부
만

우리는 기록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눈을 뜨게 되었을
거라 난 믿는다. 나도 이번 기회를 통해 기록을 다시
한번 보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난 기록이란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는거라 생각한
다. 과연, 우리들은 역사속의 여러 인물들처럼 기록
을 하여 우리나라의 길이 남을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까?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기록사랑

백일장

앨범을 보고

초등부 | 동상

이선경 대전 / 서원초등학교 2학년

“엄마, 이게 정말이야? 이렇게 알몸으로 돌아 다녔어?”
저는 믿겨지지 않았습니니다.

와아! 아영이와 어진이도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니다.

“봐봐, 여기는 꿈돌이랜드 수영장이잖아!”

그 일은 제가 다섯살때 있던 일입니다. 엄마는
그 때 물미끄럼틀도 탔습니니다.

‘나도 얼른 커서 타고 싶다.’

다섯살이던 제가 이제 아홉 살이 되었다는 것이
시간이 후딱후딱 가는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클때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시간이 빨리 가는것 같습니다.

어렸을때 사진은 이제는 추억일 뿐입니다. 모르는
친구, 옛 친구들도 이제 헤어졌습니니다.

가끔 사진첩을 뒤지면 저의 작년 운동회 사진도
보입니다.

저의 추억을 고이고이 쌓아주는 앨범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2년전 유치원 졸업할 때 눈물을
줄줄 흘렸던 일도 이제는 먼 옛날 입니다.

옛날엔 이모할머니가 씻겨 주셨는데 이제는 그 이
모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니다.

그때는 엄마가 누군지 놀라 양 운 사진도 있습니다.
유치원때 부채춤 추고 장구쳤던 사진도 있습니다.
나예지와 인라인을 썩썩 타는 사진도 있습니다.

동생 태권도 심사에 가서 괜히 이상한 사진만 찍은
적도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헐레벌떡 뛰던 사진도
있습니다. 4살때 눈사람 만들때 눈 덩어리가 툭 떨어
진적도 있습니다. 내가 시장놀이에서 여러가지를
사는것도 추억으로 남았습니니다. 발레를 처음 했을때는

빙글빙글 도는 사진을 엄마가 찍었습니다. 엄마가
멋스러운 드레스를 만들어서 처음 입고 생일파티했
을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쁠 때는 항상 엄마가 사
진을 찍었습니다.

이번에 사진을 많이 기록하면 좋다는 것을 알았
습니니다.

산
문
부
문

기록이란

초등부 | 동상

이장원 대전 / 중리초등학교 6학년

기록은 우리나라, 한 도시에도, 한 가정에도, 개개인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또 기록이 필요한 만큼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도 있는 것이 기록이다. 그렇다면 기록은 왜 필요할까? 그리고 왜 기록이 중요할까?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기록이 없으면 우리 역사에 대해 알 수 없다. 만약 한글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한글을 쓰게 되었고 만든이가 누구인지를 모를 것이다. 또한 을사조약 당시나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의 올바른 기록이 없었다면, 한글을 꾸준히 지키고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나라를 영원히 일본에 빼앗겼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우리의 뿌리와 같은 기록을 굳건히 지켜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고 지내는 것 아닌가.

두 번째, 기록이 없으면 나라의 언어와 자주성, 존재감을 모두 잃는다. 인도를 봐 보자. 인도는 영국에게 200~300년간 식민지 취급을 받았다. 그 결과, 그들은 그들의 모국어를 잃었다. 영국의 식민지라는 명예가 풀리자, 언어의 혼란이 생겼다. 각 지방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각 지방사람들이 만날 경우 영어를 사용해야하는 고통을 받고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행복한 나라인 것이다.

이상으로 기록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았다.

기록은 한 국가의 역사, 언어, 문화, 자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다. 만일 그

기록에 실수와 아픔이 있더라도,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교훈을 주며, 미래의 디딤돌로 삼기에 기록은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록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서 문화민족의 긍지를 가지도록 하자.

우리 기록 지킴이, 국가기록원

초등부 | 동상

김민선 대전 / 한밭초등학교 5학년

“이보게, 사관! 절대 이 일을 실록에다 기록하지 말게.”

이 말은 태조 이성계가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넘어진 후 창피해서 옆에 있던 사관에게 한 말이다. 하지만 그 사관은 이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일을 기록하지 말라는 것까지 기록하였다.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기록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조선시대에는 실록을 객관적으로 쓰기 위해 왕마저 실록을 읽지 못하도록 하였고, 세종대왕 때에는 그 실록들을 잘 보관하기 위해 깊은 산다섯군데에 숨겨두었다. 고려시대에는 삼국사기를 편찬하기 위해 김부식 외 여러 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였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청와대 기록비서가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 회의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기록이란 무엇일까? 기록이란, 사실이나 내용을 글자, 그림, 사진 등으로 써 놓거나 그려놓은 것을 말한다. 기록은 역사적, 행정적, 문화적으로 중요하여 보관하고 관리할 가치가 있다. 만약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같은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역사를 알았을까? 이처럼 기록은 중요하여 소중히 여기고 간직해야 한다.

그럼 이런 기록들은 과연 어디에 보관되어 있을까? 도서관? 청와대? 정답은 바로 국가기록원이다. 이곳은 정부기록보존소로 시작해 현재는 우리나라의 기록들, 심지어는 국제적인 기록들까지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하는 일은 소중한 기록들을 보존 및 수집하고, 컴퓨터 영상, 비디오 같이 다양한 매체로 기록을 변환시키며, 훼손된 기록들을 복원하고, 국가기록관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나는 국가기록원에 대하여 더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았다. 기록에 관한 소식들, 국가기록원을 자세히 알려주는 동영상, 온라인 전시관 등 관람할 것이 참 많았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은 온라인 전시관이었는데 이 전시관은 크게 '나는 대통령'과 '훈장 전시관' 코너로 나뉜다.

'나는 대통령' 코너에는 수결과 서한에 대하여 자세히 나온다. 왕과 대통령의 수결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개성과 독특함이 배어있어 함부로 베껴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도 재미삼아 나만의 수결을 만들어 보았다. '오성 이항복의 수결이야기'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만의 색다른 표시를 해두어 위기를 넘긴 그만의 재치를 엿볼 수 있었다. 또 대통령들의 서한이 나온다. 서한은 별로 특별한 것 없는 단순한 편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가장 직접적인 의사 전달 방식이자,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과 통신하는 중요한 기록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서한이 국문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독일어도 있는 점이 흥미로웠다. '훈장 전시관' 코너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훈장과 우리나라 훈장의 사진이 담겨있었다. 나도 언젠가 내 꿈인 외교관이 되어 저런 훈장을 받게 되는 장면을 그려본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나니 기록을 보관하는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기록 행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같은 세계 최고의 기록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국가기록이 제대로 관리, 보존되지 못하였다

고 한다. 국가기록은 당대에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후대에는 훌륭한 역사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기록들이 축적되면 그 다음 시대에는 보다 많은 정보와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됨으로써 보다 발전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훌륭한 자산이 된다. 이제 과거의 찬란했던 기록문화를 계승하여 우리 사회의 귀중한 경험유산을 잘 보존하고 활용하여 세계 일류 국가를 실현해야겠다.

기록사랑

백일장

기억의 타임머신

초등부 | 동상

김나연 대전 / 한밭초등학교 4학년

따스한 햇살이 나른거리는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할일 없이 빈둥빈둥거리며 뒹굴다 우연히 발견한 낡고 먼지 쌓인 책장에서 내 어렸을 적 모습이 생생하게 적혀있는 엄마의 육아일기를 읽게 되었다. 험렁 험렁한 종이를 조심스레 넘기며 나의 옛날 모습을 쓴 글을 읽었다. 글을 읽다보니 웃음을 터뜨리게 한 일기가 내 눈에 확 띄었다. 그 일기 내용은, 흰눈이 뽕송 뽕송 내리던 추운 겨울에 엄마께서 나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 좀 보라고 하셨는데 나는 창틀에 끼서 바둥거리는 재미를 보고 '우와!' 하고 탄성을 지른 내용이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나는 지금 재미는 별로 신기하지 않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별거 아닌 재미를 신기해 했다니, 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또 내가 첫 한글을 뗐을 때 부모님께서 기뻐하셨다는 내용을 읽고 나 자신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꼼꼼하신 엄마께서는 내가 어렸을 때 자는 모습과 표정을 모두 육아일기에 그리셨기 때문에 어릴 때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내 코 옆에는 점이 하나 있는데 육아일기에 언제 그 점이 생겼는지도 기록되어있었다.

‘으휴~ 그 때 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 할걸...’

지금까지도 점 때문에 후회를 한다. 육아일기 맨 앞장을 보니,

‘1997년 8월 22일 오후 4시 30분, 3.7Kg나연 태어남.’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엄마께서 꾸신 내 태몽도 알게 되었다. 내 태몽은 아파트만한 큰 고래가 태평양을 여유롭게 헤엄쳐 다녔다는 태몽이다. 그래서 엄마께서는 참 포근해서 좋았다고 하셨다. 엄마께서 참으로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점심이

바로 지나고 나서 날 낳으셨는데 진통의 고통 때문에 점심밥 넘기시기 힘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중에 커서 시원한 가을에 나를 낳은 귀여운 아기를 낳고 싶다. 나의 어렸을 때 모습이 궁금해서 엄마께 물어 보는데, 그 때마다 엄마께서 우물쭈물하셔서 답답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육아일기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참 잘해준다. 그리고 엄마께서 육아일기를 볼 때마다 새록새록 나의 어릴 적 모습이 기억나서 육아일기 쓰길 참 잘했다고 하신다. 또 지금은 장난꾸러기인 동생이 갓난아기일 때는 무척 조용하고 착한 아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육아일기는 참 중요하고도 소중한 기억의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타임머신을 타면 과거와 미래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육아일기를 차근차근 읽다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 과거속의 내 어린시절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육아일기로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기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신 거구나...

엄마께서 매일 일기를 쓰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잊지말고 일기를 써야겠다. 그래야 늙어서 자식들에게 과거의 내 모습을 알려 줄 수 있고, 옛 추억을 기억할 수 있는 멋진 할머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글쓰는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산
만
만
만

조선왕조실록에 얽힌 나의 생각

초등부 | 동상

김민정 용인 / 흥천초등학교 6학년

만약 옛 선조들께서 글을 모르셨다면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도 태어나지 못한 채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옛날부터 상형문자, 갑골문자 등의 여러 글을 남기셨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글을 읽고 연구하며 옛 선조들의 자취와 흔적, 또는 기록을 찾아 그 당시의 생활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역사 500여년 간의 도읍지였던 한양과 함께 500년간 기록되어진 조선왕조실록 역시 옛 선조들의 기나긴 기록이자 유산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조선왕조실록은 하나의 장편 소설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태조 이성계의 서까래에서 비롯된 조선의 건국 후 일어나는 왕자들의 왕권을 향한 다툼, 음모와 역모, 배반, 당파로 나뉘어진 하나의 역사소설이자 각 왕들의 솔직한 마음과 행동 하나 하나가 가장 잘 표현되어진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과 여러 옛 기록을 보관하는 국가기록원 역시 멋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볼 수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이 한자 한자의 글이 소중합니다. 이것도 저를 표현하는 기록이 될 것이고 훗날에 읽힐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기록은 저 한사람에게도 3가지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기록이지만 훗날의 사람들이 임금들께서 행하셨던 행동과 판단, 업적과 지적할 수 있는 과오등을 알 수 있게 하도록 만들어진 책같고, 또 다른 하나는 훗날의 다른 왕들이 조선왕조실록을 읽고 선조와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세상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함을 알려주기 위하여 만들어 졌을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옛날의 풍습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왕조실록에는 옛 선조들의 열, 지혜와 슬기가 담긴 기록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박식하고 재정을

잘 돌보며 통솔력이 좋은 왕이라고 할 지라도 인자하고 어질지 못하면 백성들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어질고 슬기로운 임금을 향하게 됩니다. 광해군을 생각해 보신다면 아실것입니다. 광해군은 똑똑하고 외교수완도 좋았으나 민심과 멀어지게 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서적들이 생기게 된 배경부터가 자세히 서술되어있으니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 500년의 일기라고 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옛 왕들의 명령, 그 당시에 일어난 일과 언어구사 등이 나와있기 때문에 역사공부에 유용한 자료입니다.

나는 조선왕조실록을 읽고나서 여러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그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 그 임금의 그림이나 주요업적, 전쟁터의 그림을 넣어서 만들었으면 더욱 생동감있고 딱딱하지 않아 더 쉽게 접할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한가지, 백성들의 생각을 담아서 만들었다면 더욱 좋았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님이 요즈음의 훈장격인 녹권등을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장면도 실어놓고 임금님이 치하하는 편지등도 넣었다면 더욱 훌륭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여러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왕조실록처럼 훌륭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 타임머신을 타고 옛 조선의 임금님께서 치하하여 내려주시는 녹권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학자가 된다면 타임머신을 발명하여 지금의 대통령께서 옛 임금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런 일을 겪은 후에 쓸 일기들도 훗날 기록이 되어 미래의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읽을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 더욱 신이 나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산
문
부
문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거야?

초등부 | 동상

이기주 대전 / 둔산초등학교 6학년

예전에 학교에서 절약에 대한 포스터를 그려서 금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 내 포스터의 내용은 마트나 슈퍼마켓 등 쇼핑을 할 때에 조그마한 수첩에 꼭 사야할 물건을 적어 충동구매를 막자는 것이다. 사람들은 쇼핑을 가게되면 꼭 필요한 물건 말고도 사고 싶은 물건들을 많이 사들인다. 이렇게 해서 충동구매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러한 충동구매를 막기 위해서는 사고싶은 물건 말고 꼭 필요한 물건을 수첩에 적어서 꼭 그 물건만 사면 될 것 같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을 것 같다. 기록이란 종이에 글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뜻한다. 사람의 기억력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전체의 60%는 잊어버리기 일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예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도 몇년이 지나가면 누구인지 까먹게 된다. 이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전체를 다 외우지 못하는게 한계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록이 꼭 필요하다. 기록을 하면 나중에 그 글을 보았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른다. 그 글은 곤경에 처했을 때 해결책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한 시간(내가 보기에 좀 긴시간 일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안에 정보의 60%를 잊어버리는게 인간 두뇌의 한계인데 기록을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태조 이성계는 젊었을 적을 생각하면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사냥을 나갔는데 이런, 어찌...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버린 것이다. 태조 이성계는 창피하기도 했지만 제일 먼저 사관을 찾아가 이 일은 기록으로 남기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런데도 사관은 이 일을 기록으로 남겨놨나 보다.

그 기록에는 태조 이성계가 기록으로 남기지 말라고 부탁했던 말까지 모두 적혀 있었다. 사관은 무엄하게도 모두 적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사관 덕에 후세에 즉, 현재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사관이 사실을 구별해서 썼다면 지금 우리는 왕이 엄청 대단한 사람일 뿐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이다.

대통령들은 지금 이 나라의 왕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들은 기록을 별로 남기지 않고 그래서 요즘 대통령의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알고 있는 단어라고는 “맞습니다. 맞고요.”뿐이다. 지금부터라도 청와대에 사관을 만들어서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기쓰는 것도 기록의 한 종류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일기를 썼다. 옛날 일기를 읽다보면 웃기거나 슬프고 화내기도 한다. 그래도 어렸을 적 일기를 쓰지 않았다면 어렸을 때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예전에는 일기 쓰는데 힘들고 짜증나고 귀찮고 했지만 지금 보니 일기 쓰는 걸 잘했다고 생각한다. 일기쓰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일기는 꼭 써야 하는거야. 나중에 네 일기를 보면 너도 좋아하고 어린시절 추억이 떠오를 거야.”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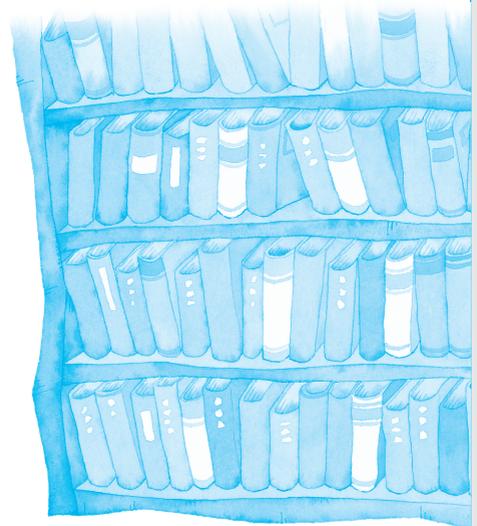
사람들은 인터넷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의미있는 기록으로 남겨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 고려청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독특한 우리만의 기법으로 만든 청자인데 아쉬운 점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록으로 남아 전해내려 왔다면 후손들의 노력이 쌓이면서 찬란한 도자기 문화를 이룰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각나는대로

산
만
만
만

메모한다. 둘째, 중요한 문장은 밑줄을 쳐가면서 메모한다. 셋째, 암호를 만들어서 쓴다. 일단 그러면 될 것 같다.

나는 지금도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글을 쓴다. 나중에 기록의 중요성이 떨어졌을 때 이 글을 읽으면 다시 높아질 것 같다. 이 글이 꼭 필요한 글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록사랑

백일장

반성

산
만
만
만

초등부 | 동상

김민정 대전 / 둔천초등학교 6학년

역사와 선사를 가르치는 것은 기록의 여부 문제이다. 상대적으로 기록이 빈약한 문명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기록된 역사가 많은 왜곡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기록을 남기는 측에 유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거창한 역사의 문제는 아니다.

내 자신도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기록 습관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게 해준 첫 계기는 아마도 읽을 책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한 나의 일기장이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읽어 보았는데 중간 중간에 기억에 없었던 일들이 적혀 있었다.

아마도 쓰기 싫어서 지어낸 것 같다.

이 내용을 쓴 그때 이 공책은 이미 하루의 일과를 기록한 일기장이 아니라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주는 이야기를 쓴 글짓기 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또, 우리의 기록 습관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알 수 있다.

나는 비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어서 비즈를 만드는 어느 카페에 가입을 했다.

비즈 완성 작품 사진을 예쁘게 올려 놓았기에 감탄이 절로 나왔지만 곧 답답함에 참을 수가 없었다.

예쁜 비즈 사진만 있을 뿐 그것을 만드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만드는 지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도서의 제목만 쓰고 저자도 밝히지 않은 글들, 언제 출판 되었는지는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은 그 책이 인구에 회자되고 누구나 서점에 가면 살 수 있는 책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록을 연결시킬 자료를 어디서 찾는 단 말인가?

아마 그림 한 장 안올리는 것도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처음에 우리 집을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쉽게 무시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러한 인식이 있어도 그렇게 하기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것이 계량화 되고 기록되어야 하며 증명, 논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난히 그런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하고 내 스스로를 보면서 반성을 한번 해 보게 되었고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각화사 스님들께

초등부 | 동상

황태현 서울 / 덕수초등학교 4학년

국보 151호인 조선왕조실록의 집을 찾게 해 주세요. 저는 서울 덕수초등학교 4학년 3반에 다니는 황태현입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견학하러 왔다가 조선왕조실록이 고아처럼 집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할만큼 중요한 보물인 조선왕조실록이 집을 잃고 밤새도록 우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임진왜란때부터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태백산사고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된 후 불에 타 없어졌대요. 나쁜 사람이 불을 질렀나 봐요.

수백년동안 태백산에서 보관되었던 조선왕조실록은 현재 국가기록원 부산지소에 머물고 있어요. 다행히 실록각과 선원각 등 당시 태백산 사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남아있어 복원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돈이 없어 아직까지 새로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정부가 큰돈을 들여 사고를 다시 복원하려고 했지만 각화사 스님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태백산 사고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귀찮게 하고 환경이 파괴되어 그런가요? 학생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러 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저는 집을 잃은 조선왕조실록이 다시 태백산사고로 돌아오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사고만 보고 갈게요. 쓰레기도 버리지 않구요. 각화사 스님들이 불공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불공 드리는데 방해가 되면 스님들이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다른 절도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도 큰절이 있는데 이곳으로 이사오시면 안되나요. 스님들은

착하고 좋은일을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각화사는 조선시대 때 태백산사고를 지키는 절이었대요.

새 사고를 짓고 예전처럼 사고를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조선왕조실록을 잘 물려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님들을 존경할거예요.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예찬

중등부 | 금상(행정자치부 장관상)

안혜지 대전 / 둔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은 그 어버이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정보나 본능을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자신의 종안에 내재되어 있는 유전적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진다. 물론 일부의 동물들이나 곤충들은 약간의 학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학습된 정보를 후세에 전달하는 방법은 오로지 직접적인 시연을 통한 전달 뿐이다. 이러한 동물들의 학습방법에는 치명적인 결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학습의 단절'이다. 예를 들어 어미표범의 죽음은 새끼표범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어미의 사냥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단절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써 획득한 능력 또는 관습의 총체이다. 인간은 다른 생물과 달리 이러한 문화를 후대에 전승하고, 또한 동시대의 지구촌 인간 공동체 간에 다양한 문화를 공유한다. 이러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부각시켜 인간을 '문화적 존재'라 부르기도 한다. 문화는 아주 광범위한 개념이다. 그 안에는 인류의 역사, 언어, 미술, 음악, 관습, 도덕, 지식 등 인간이 행하는 다른 생물과 차별되는 모든 형태들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록'에 의해 가능해진다. 기록이란 인간이 자발적으로 남긴 모든 형태의 형상이나 상징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창조한 문화를 학습하고 공유하며 이를 계승할 수 있는 이유는 언어, 문자와 같은 상징체계 덕분이다.

모든 기록이 언어나 문자와 같은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옛날 동굴 벽에 그려진 그림을

통하여 우리는 구석기 인류의 생활상이나 그들의 문화적 재능을 엿볼 수 있다.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나 '월광' 소나타를 감상할 수 있는 이유는 약 200년 전에 만들어진 베토벤의 '악보'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가 독일에 가지 않고도 '베를린 필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은 CD나 MP3와 같은 기록매체 때문이다. 우리가 안방에 앉아서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기록체계의 힘이다. 이처럼 기록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존재한다.

물론 인간도 '구전'과 같은 직접적 문화전달체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구전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형의 모습이 점점 훼손되는 약점을 지닌다. 만일 '홍길동전'이 구전되었다면 우리가 알고있는 내용은 허균이 전달하고자 한 내용과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또한 구전은 단절을 통해 그 생명을 다하고 '전설'이 되어버리고 만다. 기록은 인간을 단순한 개별적 독립체에서 더 나아가 '인류'라는 문화적 공동체로 합체시켜준다. 기록은 인류에게 그들 개별적 인간이 지닌 능력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바로 기록이 지닌 네트워크 형성의 힘이다. 기록이 형성하는 네트워크는 '수평적 네트워크'와 '수직적 네트워크'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낸다.

기록은 동시대 인류 간에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그 곳은 인류가 마음껏 각각 개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연장이자 동시에 그들의 경연을 즐기는 놀이터이다. 기록을 하여 인류는 개개인으로서의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지식창고를 구축했다. 오늘날 많은 동남아시아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방에서 '비나' '이효리'의

산
만
만
만

공연을 감상할 수 있으며, '겨울연가'를 시청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이처럼 현대인은 기록이 제공하는 수평적 네트워크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며 살아간다.

또한 기록은 선대 인류와 후대 인류 사이에 '수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능 역시 수행한다. 이것은 역사성과 연결된다. 즉, 인간에게 역사 향유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굳이 '조선왕조실록'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기록이 없었다면 과거 선대 인류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후대의 인류에게 전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았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기록은 이처럼 선대 인류와 후대 인류 사이에 견고하게 결속된 수직적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우리는 기록이 제공하는 수직적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의 뿌리를 알게 되고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감에 필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던 조선을 지켜 내야 할 역사적 사명 앞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했던 이순신 장군의 고독한 심정은 그의 '난중일기' 전반에 걸쳐 적절히 배어난다. 이처럼 기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나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

반대로 기록의 공백은 후대에게 심각한 역사적 진공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인류의 역사를 보다 보면 부끄러운 길을 통하여 권력을 획득한 권력자가 그 기록을 파괴하여 후대가 자신의 행위를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로 12.12군사반란과 5.18광주민주화항쟁의 탄압과정을 통하여 전두환 군사정부가 권력을 획득했던 당시 정황은 오늘날 별로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얼마전 최규하 전 대통령의 서거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형성했던 문제가 있다. 바로 최규하 비망록의 존재여부이다. 비망록의 존재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이유는 바로 최규하 전 대통령의 평소 습관 때문이다. 그는 항상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가졌었다고 한다. 일례로 부인의 약과 음식을 꼼꼼히 기록하셨다고 한다. 그렇기에 최 전 대통령이 한국 현대사를 바꿔놓은 당시의 정황을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기록으로 남겼을 것이라는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그 날의 기록들이 발견되어 우리가 역사적 백치상태를 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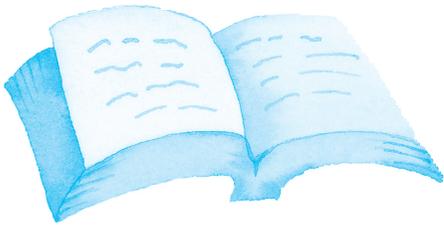
기록으로 형성된 수직적 네트워크는 또 다른 기능을 한다. 그것은 선대가 만들어낸 창조물을 후대가 그것을 개량하여 문화적 재창조를 일구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창고의 역할이다. 이는 학문이나 기술 등의 발전을 유도하여 인류가 보다 풍요로운 문화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늘날의 철학에 계속 살아남아 후대 철학자들에게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듯이 말이다.

이처럼 '기록'은 인간이 오늘날의 인류를 형성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렇기에 나는 기록을 예찬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의 서두에서 제시했던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겠다. '인간에게 기록이 없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모나리자나 춘향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뉴턴이 역학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가 누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환상이었을 것이다. 박동진의 판소리는 우리의 진리를 일깨워준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면

기록사랑

백일장

우리의 삶을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나는 오늘도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보고 정부청사에 찾아왔고 핸드폰 문자를 통해 친구와 약속을 잡아 만나서 왔다. 그리고 이렇게 내 인생의 기록을 지금 이 순간에도 남기고 있다. 나는 기록이 제공하는 문화의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오늘도 살아간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밝히자면 나는 기록을 예찬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은 기억의 바꾸니

중등부 | 대전광역시장상

김고은 대전 / 대덕중학교 1학년

세기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평소에 메모를 해두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그의 생전에 한 기자가 자택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수첩을 꺼내어서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한다.

기자가 집 전화번호도 모르냐고 의아해 하자 그는 '적어두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을 왜 외웁니까?' 하고 반문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인간은 무언가를 잡고, 쓰는 것을 좋아한다.

아기가 아무거나 쥐고 벽이든 바닥이든 아무데나 긁는 것과, 그러면 안되는 줄 알면서 도서관 열람실에 가면 책상에 낙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 때문에 '기록'은 시작되었고, 문명은 시작되었다.

동굴 벽에 그려진 벽화부터 해서, 소뼈와 거북이 등껍질에 쓰인 갑골문,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현재의 사진에 이르기까지 기록은 여러 형태로 발전해 왔다.

사람들은 모두 한번씩은 메모를 안하고 그냥 외우려고 했다가 막상 그 정보가 필요할 때 기억이 나지 않아 곤란했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나같은 학생들은 더 하다.

수시로 시간표 변동이 일어나고, 준비물이며 안내 사항이며 공부한 내용들을 모두 외우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한번은 과학시간표가 바뀐 것을 귀찮아서 적지 않고 외워 두었다가 그 내용을 잊어버려서 과학 시간에 혼이 난 적이 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가 사고하고 적은 내용을 외운다 해도 인간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단순하게 자신만 혼나거나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기업적, 역사적과 더불어 국가와 인류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 나라의 기록문화는 미흡하다. 최근 위안부 문제를 보아도 그렇다.

우리가 그 때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증인과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고 그 존재까지 부정하는 것이다. 잘못 기록된 역사를 배운 일본의 학생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위안부는 존재하지 않았고 있었다하더라도 천황 폐하를 위해서 기꺼이 한 것”이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고려청자나 조선백자의 기술이 후손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못한 것은 장인들의 손맛만 믿고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려청자의 제작기법이 기록으로 남아 전해 내려 왔다면 더욱 찬란한 도자기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록이 전해지지 않으면 과거의 일들은 잊혀진다.

생각이 떠오르면 언제든 메모할 수 있도록 가방이나 주머니에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가?

집이나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기록하는가?

나는 내 기록을 제대로 남기고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제대로 남겨질까.

나는 제대로 된 기록을 제대로 남겨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된다.

기록이 없으면 '보존'도 없고 '정보공유'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자신들의 기록과 우리모두의 기록을 소중히 여겼으면 한다.

산문부분

인류의 타임머신, 기록

중등부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양다현 대전 / 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미국에서 역사상 천재로 불렸던 인물 중 300여 명의 일상습관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 여러 어려움 끝에 찾아낸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록하는 습관'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항상 종이에 기록하곤 했던 것이다. 이처럼 사소한 버릇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번개와 전기의 상관관계를 발견하고 양극, 음극의 개념을 정립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벤자민 프랭클린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13 덕목을 수첩에 적어서 다녔다. 중세인 중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한 그의 자잘한 생각들을 노트에 꼼꼼히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가 기록한 노트에서 우리는 작품구상 스케치와 심지어는 비행기 등의 설계도까지 찾아 볼 수 있다.

인간은 태초부터 자신의 소망과 생각을 기록해 왔다. 그 예로 고대인들이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벽화가 있다. 동굴벽화가 문자가 아닌 그림이라 하더라도 고대인의 소망과 생각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이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동굴 벽에 동물을 그림으로써, 고대인들은 동물의 영혼이 그림 속으로 빠져 나와 꺾테기만 남은 동물들을 더 쉽게 사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비록 기호와 비슷한 간략한 형태의 그림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그 시대의 생활상과 사냥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후 이집트의 파피루스와 상형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 등 많은 문자와 기록판, 종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단순히 주술적인 의미를 떠나, 개인의 기록과 역사적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기록된 것은 이 때부터라 말할 수 있다. 문자와 이것을 기록할 매체의 발달로 동서양의 많은 문명들은 꽃을 피웠다. 정보화시대가 된 오늘날에는 단지 종이와 연필뿐만이

아닌 사진, 녹음기, 컴퓨터 등 다양한 매체로 여러 사실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손으로 직접 쓰는 것 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친근한 기록방법이 되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다양한 기록방법이 존재했지만, 쓰여진 방법에 상관없이 모든 기록물들은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기록물에는 한 민족, 나라, 크게는 세계의 사상과 생각이 들어있다. 얼마 전 초등학교 동생들 데리고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견학을 다녀왔다. 국가기록원의 전시관에서 많은 고문서들을 보게 되었는데, 오랜 세월을 견뎌온 누르스름한 한지에 정갈하게 쓰여진 글들을 보니 웬지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 먹을 갈았을 옛 사람들이 궁금해졌다. 나는 지금 수많은 시대를 거슬러 그가 살던 시대와 만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타임머신 여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곳에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선정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여러 자료가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첫 번째 왕인 태조부터 25대 철종 때까지 472년 간의 역사를 시대 순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다. 실록에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등에 관한 중요업무나 정책 결정은 물론, 학술, 종교, 천문, 지리, 자연재해에 대한 기록 등 국왕부터 일반백성에 이르는 각종 업무나 생활기록이 꼼꼼하게 담겨있다. 역시 세계 기록유산으로 선정된 승정원 일기와 더불어 조선왕조실록은 우리의 역사를 밝히는 종합적인 자료로써 큰 의미를 지닌다. 지금 우리가 기록하고 적어놓은 사소한 기록들 또한 먼 훗날 후손들에게 아주 귀한 유물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처럼 기록물들은 인간의 생각과 역사적 사실을 보다 오랫동안 전해질 수 있게 해준다. 인간의 수명과

기억력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 시대에 일어난 사건은 세대를 거쳐가며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문자를 발명한 인간은 기록을 통해 이 모든 정보와 지식을 후손들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인류는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다.

베니스에서는 15세기부터 특허제도를 정립하여 유리공예 제조기술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였다. 이를 통해 그 제조기술은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발전하여 오늘날에 와서도 베니스의 유리제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관광 상품이 되었다. 반면, 최고의 빛깔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고려청자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고려청자의 제조기술은 도공들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구전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고려청자의 제조기술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도자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찬란한 문화를 일으켰을 것이다. 하지만 기록이 없었기에 고려청자 제조는 대가 끊기고 말았다.

오늘날 인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병을 쉽게 고치고 비행기와 냉장고 같은 기계를 통해 한층 더 문명화 된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그러나 인류의 이런 생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 지혜를 터득하고 이를 기록으로 옮김으로써 인간은 문명의 토대를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몇 세대 지나지 않아 비행기 제조술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의 기록들은 지금의 인류가 존재하도록 한 원동력인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들이 개

발되고 기록되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인류의 기록 없이는 지금의 인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기록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재산이 된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꼬박꼬박 일기를 써왔고 그 일기장을 모아놓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약 25권정도 되었던 일기장을 책꽂이 맨 위칸에 보관해 놓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책꽂이 정리를 하다가 먼지가 살짝 쌓여있는 옛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을 한쪽한쪽 읽으며 첫 일기를 쓰던 날의 설레임, 친구와 싸운 후의 울적함, 생일에 초대 받았던 일 등 잊고 있었던 옛 추억을 발견하게 되었다. 종이를 넘길 때마다 과거의 나를 만났고 과거와 달라진 새로운 나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당돌할 만큼이나 진솔하게 써 놓은 나의 기록을 보며 일기가 나의 자산이고 추억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다시 느끼게 되었다.

‘기록’을 통한 만남, 이것은 곧 타임머신 여행이다. 인류에게 기록이란 개인과 세계의 역사를 여행하게 해 주는 타임머신인 것이다.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이 되고 로마시대 사람이 되어 울고 웃는다. 역사의 인물이 되고 과학자가 되어 더 나은 발전을 꿈꾸기도 한다. 과거의 나를 만나고 미래의 나를 설계한다. 우리가 지금 기록으로 남기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후손들은 또 다른 미래를 설계할 것이다. 이처럼 기록은 인류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자 소중한 유산이다. 일찍이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기록문화를 발전시켜 온 우리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 우리도 기록문화를 소중히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록사랑

백일장

독도를 빼앗지 못하는 이유

중등부 | 은상(국가기록원장상)

황정윤 시흥 / 은행중학교 3학년

요즘 일본과 우리나라가 동해 표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신문을 보니 동해가 '조선역사지도'에 수록된 고지도 가운데 고려 중기 이후 참해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아냈다고 한다. 참해는 넓은 바다를 뜻한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참해를 '조선해' 또는 '동해'로 불렀다고 한다. 일본이 '일본해'로 정정하기를 바라다면 우리는 동해보다는 '조선해'로 정정하자고 주장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바다 이름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선조들이 남긴 지도가 좋은 자료가 되어 일본의 뜻을 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은 걸핏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속셈은 독도를 둘러싸고 있는 동해 바다를 차지하고 싶은 것일 게 뻔하다. 드넓은 동해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를 빼앗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가끔씩 망언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빼앗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내 땅이니 돌려달라고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기록들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독도의 역사에 대해 잘 몰랐다.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마다 "또 저러네."

하며 독도는 막연히 우리 땅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독도에 무관심 하던 내가 독도 글짓기에 입상을 하고 독도를 지키려는 분들을 만나면서 독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실린 역사책들을 보게 되었다. 독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에 소개되고 있다. 우선 삼국사기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였다는 사실과 고려사에는 대몽항쟁시 울릉도에 주민을 이주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때 우리 선조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가깝기 때문이다. 일본의 섬들 보다 말이다. 조선 왕조를 거쳐 오면서 울릉도와 독도가 종종 거론된다. '태조실록', '성종실록', '세종실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다가 '숙종실록'에 오면 독도하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분인 안용복 장군에 대해서 상세히 나온다. 여기에는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일본인에게 "조선의 땅에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꾸짖고 대마도 도주에게 울릉도는 조선의 땅이라는 증명서를 받아오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때 우리나라 조정에서 확실 하게 울릉도, 독도가 우리 조선의 땅이라고 일본에 문서로 통보하고 일본이 시인하는 문서를 받아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조정은 어리석게도 큰일을 한 안용복을 귀양 보내고 말았다. 일본과의 우호를 생각해서였다고 한다. 정말 한심한 조정이었다. 일본이 독도가 조선 땅임을 시인한 기록 하나만 남았어도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기록 말고 옛 지도에서도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울릉도에 있는 독도 박물관에 가 보면 일본의 지도까지도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표기해 놓고 있다. 많은 지도와 옛 문서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해 주고 있다. 이런 명백한 기록들 때문에 일본이 쉽게 독도를 빼앗지 못하고, 큰소리 칠 입장이 못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것으로 만들려고 세계 사람들에게 활발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 제 작년에는 시마네 현에 독도의 날까지 제정하여 축제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선조들이 남겨주신 귀하고 소중한 기록들을 읽고 연구하여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옛 기록들이

산
만
만
만

우리를 당당하게 해 줄 것이며, 일본을 꼼짝 못하게 해 줄 거라고 믿는다.

나는 독도의 옛 기록들을 통해서 기록의 중요성을 알았다. 기록은 잘못과 실수를 반성하여 앞으로 가게 해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란 것을 알았다. 기록하는 작은 정성들이 모여 한 나라의 역사를 올바르게 잡아주고, 다른 나라의 억지를 꺾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나도 참되고 진실된 기록으로 나의 역사부터 만들어가야겠다. 아마도 문서가 아닌 비디오나 컴퓨터 작업이 되겠지만....

기록사랑

백일장

가슴 속 또박또박 남은 기억

중등부 | 은상(국가기록원장상)

최보영 대전 / 용산고등학교 1학년

나에겐 예쁜 상자가 하나있다.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에게 아끼는 것을 꼽으려면 열손가락 안에 들 만한 정도의 소중한 가치는 있을 것도 같다. 그 상자를 열어보면 나의 초등학교 시절 하루하루의 느낌과 반성이 적혀있는 일기장 여러 권이 담겨져 있다. 문득 떠오를 때마다 한번씩 읽어 보곤 한다. 한 권 한 권 읽고 나면 초등학교 때의 순진한 나의 모습이 또박또박 쓴 글씨체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나에겐 유독 5학년 때의 일기장이 많다. 한 두권씩 뿐인 다른 일기장에 비해 무려 다섯권씩이나 된다. 그 만큼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일기장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뜻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학교생활이 즐거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선생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일기 마지막 부분에 다섯 여섯 줄의 짤막한 의견을 적어 주시곤 하셨다. 말도 안 되는 나의 맞춤법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나의 일기 중 참신한 부분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다. 간혹 나의 질문에는 대답도 해주셨다.

나의 일기장에는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던 이야기, 친구들과 싸운 이야기, 친구들에 대한 불만 등 몰래몰래 선생님께만 털어놓았다. 그 중, 희재라는 친구의 이야기가 유독 많다. 그다지 친했던 친구로는 기억되지 않지만 나의 일기장에 많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웬만큼은 가까운 사이였나 보다.

<7월 2일 화요일 날씨. 맑음>

희재가 전학간 지 4일째 되는 날이다. 별이 옆에 있어야 할 희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조금 씩씩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제서야 희재가 전학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희시간에 애국가를 불러도 평소

처럼 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수업시간에도 저번처럼 시끄럽지 않았다. 화나면 무섭고 버릇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보고 싶다. 메일이라도 보내서 안부 물어봐야겠다. 나중에 나도 전학을 가면 이런 생각을 해줄지 궁금하다.

‘내 생각과 같구나. 어쩐지 생기가 없어 보이는 우리 교실. 하지만 또 다시 희재의 자리를 매워 갈 다른 친구가 등장하겠지?’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적어 주셨다. 아마 나는 이 일기를 통해 희재에 대한 그리움을 나름대로 멋있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면 영락없는 초등학교 문장 실력이다. 지금도 나는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쓴 글을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문장구조에 속으로 피식 웃곤한다.

그로부터 얼마 후,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반에 ‘미리’라는 친구가 전학을 왔고, 나의 즐거운 학교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9월 2일 월요일 날씨. 맑음>

헤미와 권진혁에 이어 새로운 친구가 또 전학을 왔다. 이름은 박미리이고 전주에서 전학을 왔다. 나처럼 멀리서 전학 오길 바랬는데... 아쉬웠다. 나는 부회장과 서기를 소개시켜 주었다. 솔직히 미리가 똥똥하긴 하지만 다시 전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이 좋게 지내고, 우리반 반가, 규칙 등을 자세히 알려줘서 좋은 친구사이가 되어야겠다.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마지막 문장을 강하며 의견을 적어주셨다.

‘친구를 생각하는 보영이의 마음이 예쁘구나. 새 친구가 빨리 우리반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렴.’

정말 내가 미리에게 우리반의 규칙과 반가를 알려주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좋은 친구가 되었던 건

분명히 알고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보고 싶은 친구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희재와 미리 얘기처럼 친구들 하나하나에 관한 이야기도 많았지만 모둠활동에 관한 이야기도 나의 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중 하나였다. 한 친구가 떠들어서 모둠원 전체가 '수업시간에 떠들지 않겠습니다' 를 100번 쓴 일, 같이 모여 숙제를 한 일, 우리 모둠 성적이 제일 좋아 선생님께서 아이스링크장에 데려가 주신 일 등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모둠활동을 꽤나 즐겼던 듯 하다. 벌을 받아도, 상을 받아도 항상 마지막에는 '다음엔 더 잘해야지' 라는 말이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 상자를 열어 일기를 읽고나면, 항상 그 때가 그리워진다. 벌써 4년이나 흘렀다는 사실도 매우 놀랍다. 지금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전학을 와, 그 때의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없지만, 기회가 되면 꼭 한번쯤 다시 만나고 싶다.

나는 고등학생이 된 지금도 일기를 쓰고 있다. 초등학생 때처럼 공책 반장을 채울 만큼의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그때보다 훨씬 간결하고 깔끔하게 순간순간의 느낌과 반성을 적어 놓는다. 새로 사귄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 시험에 관한 이야기, 오늘 처음 만난 남학생의 이야기 등 고등학교에 올라오고 나서 많이 바뀐 하루생활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적어 놓았다.

시간이 흘러 이 일기를 다시 읽을 때, 지금과 같은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일기를 통해 대화하며 4년 전 그 시절처럼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 힘이자 원동력이다

중등부 | 동상

진홍주 대전 / 만년고등학교 2학년

고려청자, 연개소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애초에 공통점 같은 것은 전혀 없어 보이는 것들이지만 이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있다. 바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다. 고려청자는 조상들의 기술이 담긴 유물로서 오늘날 귀중한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작기법이 기록으로 전해 내려 오지 않기에 문화유산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더욱 찬란한 도자기 문화의 발달은 중단되어 왔다. 또한 연개소문은 이세민과 같이 왕의 권력을 찬탈한 난신 적자이지만 이세민과는 달리 그를 옹호하는 기록이 없는 까닭에 연개소문은 많은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 이렇듯 기록이 없어서 더 발달할 수 있고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는 문화유산과 인물이 그렇지 않게 되었다.

다른 것의 가치를 더 드높일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다지 많은 기록을 남기지 못한다. 사실 기록을 남기려하지 않는 다라는 말이 더 옳을 것이다. 한 번 오늘 하루를 되돌아 보아라. 하루 동안 어느 정도의 기록을 하고 남겼는가?

여기에서 기록은 단지 단순하게 펜과 종이가 있어야 가능한 필기 정도의 좁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과 영상도 포함한 기록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자. 당신은 얼마정도의 기록을 남기는가? 아마도 대답은 조금 전과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기록의 방법이 다양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올라 그냥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록을 남기는 것은 헛고생 즉, 괜한 짓을 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지혜롭고

현명하던 우리조상들은 기록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조선시대에는 서관이라는 관리를 두어 임금주변에 있는 중대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였다. 그 기록은 임금조차도 볼 수 없었으며 그 내용을 모두 비밀로 삼았다. 아마 기록의 중요성과 더불어 강자에 의해 억지로 왜곡 되어짐을 막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서관들은 정확하고도 진실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임금 곁을 떠나지 않을 정도여서 모든 임금들이 힘들어하였다고들 한다. 오죽하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도 사소한 잘못이라도 하나 기록될까봐 노심초사하셨을까? 우리 조상들의 기록을 위한 노력을 과히 높게 살만 하다. 이 노력의 결과로 오늘날 현재 조선왕조실록 등 많은 문서들이 전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를 통해 그 당시의 삶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록은 요즘 같수록 심해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중국은 2002년을 기점으로 동북공정을 실시함으로써 고구려, 발해뿐만 아니라 고조선까지 모두 다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여지승람 등에 단군의 건국 사실과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홍익인간 이념이 제시 되어 고조선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것과 우리나라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확인해 준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고려는 고구려의 뜻을 이어 받았다고 하여 국명(國名)은 고구려를 계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발해는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고구려의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함으로써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중국 역시 기록의 힘을 알고 현재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수많은

산
만년고

비석들에 새겨진 기록을 수정하여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하지만 그 누가 뭐라하든 여러 서적 곳곳에 고조선, 발해, 고구려가 우리의 역사라고 버젓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바로 그 역사의 주인인 것이다.

일본 또한 다케시마의 날까지 제정하고서 자원을 노리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지만 이 역시 세종 실록지리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아무리 중국과 일본이 압박하여 오더라도 버젓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변함없는 사실이며 앞으로도 변할 리 없는 사실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조상들의 기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조상이 그저 말로만 우리 것이라고 방방곡곡 수백 번 얘기 했더라도 기록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역사처럼 거대하고 보편적으로 가치 높은 것을 기록하는 것만 중요할까? 그렇지 않다. 한편의 일기(日記)라도 기록이 되어 있다면 과거의 나의 행동과 심리상태까지 모두 알려주며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성찰 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중요한 것이 된다. 이 뿐만 아니라 작은 메모지에 쓰는 기록조차도 다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다. 이런 기록들이 있기에 시, 소설 같은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 탄생 할 수 있는 것이며 역사에 살을 덧붙여 나가는 것이며 자신의 생각을 진실 되게 담아 낼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시해도 괜찮은 존재,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다. 백 마디의 말보다 단 한 장의 기록이 더욱 유용하며 그런 기록이 있기에 현재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있으며, 우리 조상과 역사까지도 있는 것이다. 이러하기에 기록은 없어서는 안 될, 인간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다. 우리 모두 오늘 한번 작은 메모지라도 꺼내어 사소한 얘기라도 차근차근 써내려가자. 이것이 바로 역사이고 우리의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

중등부 | 동상

서소혜 대전 / 송강중학교 2학년

우리 주위에는 메모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은 모 이동통신의 사장인 조영주 사장이다. 조영주 사장은 '인생성공'을 위해 신희 초, 메모를 몸에 달고 살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메모는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한, 조영주 사장이 어떤사람인지를 가늠케 하는 경구라고 말한다. 또한 사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가수 '비'이다. 비는 회의를 할 때 유일하게 메모를 하는 가수라고 한다. 비는 지금 세계적인 가수이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비를 만든 원인물은 메모라고 생각한다. 아주 잠깐 메모한 내용이 지금 내가 소개한 사람들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해 준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메모를 한다고 꼭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대한의 자기 발전에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기록의 폭을 시각적으로 넓힌다면 메모가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같은 학생들은 광범위한 기록보다는 실생활에서 메모를 많이 쓰니 메모를 예로 들어 기록했을 때 우리에게 좋은 점을 말해보겠다.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인간들은 그림이나 동작들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런 원시적인 방법은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인간의 머리가 발달하면서 '문자'를 발명하게 된다. 문자가 발명된 후, 인간들은 '기록'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만약 옛 사람들이 문자를 발명하지 못하여 기록을 못했더라면 현재의 우리는 과거의 일과 과거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는 답답함에 살아 갔을 것이다. 대표적 기록물로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등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상황과 특징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이런 책들이 현존함으로써 우리는 기록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사카토 켄지'는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을 냈다.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에는 내가 말하고 싶은 메모의 중요성이 다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카토 켄지는 단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글로 썼지만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만한, 그야말로 메모의 기술을 서술해 놓아서 효과적인 메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에게는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본문 중에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 메모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한 후 잊기 위해 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나는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라는 말에 공감한다. 예를 들자면 시험공부를 할 때, 눈으로 쪽 훑어서 보는 단순 암기보다는 한번 써보는 기록법이 암기하는 데에는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메모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적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메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내용에 그림이나 사진을 덧붙여 메모장을 예쁘고 효율적으로 꾸민다면 한 개의 기록문이 부럽지 않을 것 같다.

메모는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그림, 기록, 기록의 실생활에서의 예로는 일기가 있다. 누군가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을 기록해 주지 않는다면 일기, 그것은 자신의 산 기록이 되는 것이다. 기록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있는 사실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다. 기록은 체육에서도 많이 쓰인다. 기록을 함으로써 선수들은 각각 자신의 기량을 알 수도 있고 육상경기나 수영에서는 등수를 결정하는데 쓰인다. 이렇게 기록의 범위가 넓어진다면 기록의 중요성도 점차 확대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도 나의 산 기록이 될 것

산
만
만
만

이다. 내가 이 글을 쓰면서 기록을 하는 것에 부담을 갖지 말라 했지만 정작 내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나의 산 기록을 쓰는 것이 왜 이리 어렵고 힘든 건지... 메모, 기록. 이 두 가지는 뭉개야 떼어놓을 수 없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본문에서 말했듯이 메모의 효과성은 다양하다. 나중에 우리가 보다 나은 생각, 창조적인 생각을 할 때, 이런 메모의 효과성을 절실히 느낄 것이다. 나도 예쁘게 메모를 한다고 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메모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라곤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새로운 메모장을 써 보려고 한다. 또 이런 메모를 바탕으로 기록이 쓰여지면서 '조선왕조실록' 등과 같은 후세에 자랑스레 전해질 기록물이 탄생했으면 좋겠다.

기록사랑

백일장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기록

중등부 | 동상

서민지 대전 / 문정중학교 2학년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잠시 잊고 있거나 혹은 메모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기록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물론이고 21C를 살아가는 나 자신에 있어서도 기록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경우 후일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대비하여 증거로써 사물에 대해 밝혀 확실하게 하는 것이 기록인 만큼 최근엔 기록은 과거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옛날 일들을 알 수 있는 문서에 보존 자료로 우리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기록 문화이다. 사실 나도 그렇게 쓰기 싫었던 초등학교 때에 추억의 일기가 지금에서야 조금 의젓한 학생이 되었을 때의 그 지난 시절을 보면 글씨체도 변하고 내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작은 사소한 하나의 추억과 선물들이 나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일기장을 버리지 않고 있었을까? 또 이런 나만의 사소한 추억도 있지만 내가 공부했던 흔적조차도 나중에 공부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메모 하나 하나도 결국에는 이로운 것이 되어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하는 기록이 너무나도 소중한고 감사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최초 기록인 조선왕조실록도 기록문화에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잘 알려진 만큼 아주 생생하게 전해져 당시 생활을 느끼고 실감나게 전해주면서 유네스코에 정해져 유형 문화재로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 널리 보면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계승·발전이 되어서 기록을 통해서 분류도 할 수 있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내가 지금하고 있는 행동도 기록이 아닐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기록 없이는 못할 것이다. 하찮은 기록이 나중에는 하나의 문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기록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펼쳤던 것 중에 하나이다. 또 기록이 하나에 문화재가 되어 나라에 중요한 역사상으로 가치가 큰 것으로 되어 버리기도 했다. 또 기록은 지금도 역사를 쓰는데 아주 중요한 구실에 역할이 되고 역사에 일들과 대통령님들에 대한 업적과 결재 하던 그 중요한 사인 하나가 국민들의 대표, 국가의 원수로써 이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시대가 지나면서 언어도 역사성이 있는 것이라 언어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고유에 토박이말이 없어지고 새로 들어온 은어나 비속어와 외래어 등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기록 할 때 마다 현재 언어와 조상님들이 써오시던 글체나 언어에 담긴 뜻이 달라 기록에 약간의 지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학이 변하면서 오늘날은 과학 언어가 들어오면서 자신들만의 개성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요즘 사람들 너무 바쁘게 생활 하면서 기록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 다 자필로 보다는 컴퓨터에 편리함을 이용해서 하고 있지만은 기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의 생활 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일까지 중요하게 쓰여 하나에 홈페이지가 개방되어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지난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 우리 한 민족에게는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역사를 새롭게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자세히 풀어 놓은 문서를 읽어보면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돌아가시면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죄라든지 또 독립활동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기록이 없었으면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이 그 역사를 고이 간직하고 돌아가시면 항상 감사한 마음이 없이 역사가 없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고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었으면 우리

산
만
만
만

나라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또한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 우리들이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이달에 애국지사 분들이 많은 고통을 지니면서 아직까지도 조국이 갈라진 것에 대해 죄송스러웠다. 아마도 통일이 되면 통일에 대한 기록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 또 우리가 지금은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민족 모두가 역사 기록에 관심을 가져야 겠지요!

기록이 포괄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에 대대로 포괄된다. 그러는 만큼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말하기·듣기·쓰기 중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귀찮더라도 쓰는 것이 우리생활의 한 일부분인데 자칫하다가는 우리의 일부분이 사라질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줄 수도 있다. 활자 하나하나를 통해 그것을 통하여 그 사건들을 더욱 잘 이해시킨다면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차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우리가 기록이라는 것을 통해 어떠한 인간의 한계와 지식들이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실생활 적용하는데 쓰이는 기록 어찌면 각 세계의 문자들이 쓰이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근본인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해주신 세종대왕님께 감사드리며 그의 모형인 기록을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신비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기록에 대한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

산
만
만
만

중등부 | 동상

이하연 대전 / 중남여자중학교 2학년

“사람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나는 씩씩한 미소를 머금었다. 믿기지 않았다. 기록한다니! 그러나 그 노교수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그 노교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기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되어 왔는데, 그 기록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고, 가장 온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물의 몸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생물은 그 기록에 따라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몸에 어느 부분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일 암에 걸린 사람이라면 그 암에 걸렸던 기록을 지우면 암세포가 생겨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니면 그 기록 보관소에서 약한 세포의 기록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우고 강한 세포의 기록을 주입시켜 사람을 더 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같았다. 물론 DNA가 발견되었으니 가능하긴 하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수준은 그것까지는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노교수는 당장이라도 자신의 가설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만일 어르신의 말씀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아직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다시 조용히 내뱉었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내가 하던 연구의 실험용 쥐를 잡아 준비한 약을 투약했다. 그리고는 다시 쥐를 실험실에 넣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별걱”

그때였다. 조용한 실험실에 들뜬 노교수의 말이 울려 퍼졌다.

“이봐 자네! 나와 같이 전에 말한 것에 대해서 실험해 보지 않으려나? 동물실험은 이미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이제 인체 실험만이 남았다네!”

나는 깜짝 놀랐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믿지 않고

있었는데... 사실상 동물실험에 성공했으니 이미 노교수의 가설은 반은 증명된 셈이었다.

“실험 대상자도 벌써 구했다네! 어때 나와 손을 잡는 것이 어떠한가?”

나는 반신반의 했지만 웬지 모를 불안감은 떨쳐내기 힘들었다.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직은 아니었다. 당연히 성공한다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어떤가? 나와 같이 인체가 기록한 기록을 파헤쳐 보는게 어떠한가?”

노교수가 재촉했다. 그러나 나는 선택할 수가 없었다. 만일 인체에도 기록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열기설기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을 것이 분명했다. 결국 나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확고한 의지를 본 노교수는 아쉽다는 듯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그로부터 1년 후, 노교수의 실험은 크게 성공했고 많은 불치병환자가 살아났다. 나는 그때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후회도 했지만 밀려오는 불안감을 제어 할 수가 없었다. 본체 기록이란 어느 한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다른 부분까지 덩달아 나오는 것이 아니던가? 나는 불안했다. 나는 속으로 내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랐다. 노교수의 실험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되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다시 일주일이 지났고 나는 여느 때처럼 실험을 하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아직도 노교수의 실험성공에 대한 것이 나오고 있었다.

“똑똑똑”

누군가가 내 실험실에 급히 들어왔다. 노교수였다.

나는 인사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노교수를 보니 그는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았다. 그의 머리와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눈동자는 이미 산사람의 눈동자가 아니었다.

“내...가 잘못 생각한... 저였어....”

그가 힘겹게 말했다.

“대체 이게 무슨 일 입니까?”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모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 다시 모두.. 죽어가고 있어.”

그는 숨을 헐떡거리며 쉬었다. 발작인 듯했다. 나는 얼른 식은땀을 닦아드리고 119를 불렀다. “우리 몸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어. 그런데...”

그는 계속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밖에 119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계속 말하려고 했다. 그는 너무 지친 것 같았다.

“그럴 필요 없어. 이젠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

그는 내귀를 잡아 끌었다.

“우리 몸은 내가 지운 부분을, 그 지운 것 까지도 기억하고 있었어.”

그는 말했다. 그리고는 축 늘어졌다. 그와 동시에 119대원들이 들어왔다. 나는 그를 119대원에게 맡겼다. 그는 매우 편안한 모습을 하고, 떠나갔다.

기록사랑

백일장

사랑의 편지

중등부 | 동상

양주영 대전 / 문지중학교 1학년

나는 편지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보내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 나를 돌아보면 난 편지를 받기만 했지 보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편지를 쓰지 않게 된 이유는 아마도, 무언가 바라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자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편지 쓰기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종이에 담아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어릴 적 나에게는 참으로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받지 못한 답장에 실망한 나는 이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편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내가 중학교에 발을 디딘지 약 한달 후, 나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해!”

“애들아, 수업 시작했으니까 자리에 좀 앉아.”

학급임원들의 떠나갈 듯한 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떠들고 돌아 다녔습니다. 조용히 시킨다면, 일부러 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수업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린 지 몇 분이 지났건만, 사회선생님은 오시지 않으십니다. 선생님이 계실 때야 조용해지는 우리반은 선생님이 안 계신다고 안심한 채,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무도 누군가 뒤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한 채 말입니다.

‘앗!’ 하는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우리들은 담임선생님께서 우리를 보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북새통을 보셨다는 사실에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까만 석류 알 같은 선생님의 날카로운 두 눈에서 큰 실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획 돌아 나가시는

선생님의 뒷모습은 마치 딱딱하고 차가운 석상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도 그 석상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반은 마지막 기회도 없어진 것이고, 선생님을 실망시켜드렸기 때문입니다.

말썽 많았던 우리 반에게 선생님으로부터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 동안의 잘못은 용서해주실 만큼 해주신 것이죠. 문제 일으키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다짐을 했던 그 날은 엉덩이가 얼얼하긴 했지만 우리들에 향한 선생님의 사랑이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의 지나 이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 졌을 선생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이제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광물입니다. 어찌겠어요? 우리도 선생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우리들만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일단은 모든 수업에 열심히 참가해서 좋은 소문을 들리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어수업에 들어오신 선생님께서는 좀처럼 누그러진 마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갑기만 한 말투에 금방이라도 얼음이 얼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자 못 한 하늘이 밍고, 선생님에 대한 생각도 자꾸만 부정적이어졌습니다.

한숨만 푹푹 내쉬며 마지막 시간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축구하러 가버린 남자 아이들이 알미웠습니다. 회의를 위해 남은 우리들은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며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

이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의 해답으로 누군가가

산
만
만
만

편지를 쓰자고 합니다. 편지만큼 우리의 사죄드리는 마음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조그맣고 노란 메모지 주위에 쪼르르 둘러앉아, 어떻게 쓸 것인지 궁리하고 또 궁리한 끝에 겨우겨우 떨리는 마음으로 한 글자씩 써 내려갈 때의 심정은 아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좋아하는 아이에게 조마조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쓸 때의 그 느낌이 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선생님께 열린 편지를 드리고 모두들 도망치듯 학교를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반응을 저마다 추측하면서 말입니다.

기쁘게도, 어쩌면 우리의 편지를 읽으시고 그런 것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날 아침, 선생님 특유의 미소로 우리반을 반겨 주셨습니다.

몇 줄 안되긴 하지만 우리가 고뇌하여 쓴 편지가 선생님께 우리의, 우리 반의 마음이 전해지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괜스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는 이 편지를 쓰고 답장을 받진 않았습디다. 하지만 댓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쓴 편지는, 받는 이를 행복하게 하고, 감동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는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시간에 쫓기는 요즘 사회에서는 이런 사랑이 담긴 편지를 찾기 힘듭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들여다보는 우편함에는 고지서들뿐입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끈인 편지를 점점 볼 수 없어지는 요즘에 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지금도 그 날 일이 문득 떠오르면, 내 마음을 전해 줄 편지가 쓰고 싶어집니다.

기록사랑

백일장

생활속의 기록

중등부 | 동상

전연교 대전 / 용운중학교 1학년

아마 내가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은 처음으로 내 이름 석자를 쓰고 난 후부터였을 것이다. 어머니께서 늘 메모를 하셨던터라 내가 어릴 적에도 우리집에는 빨강고 노란 포스트-잇이 가득했었다. 그리고 보면 나의 기록하는 습관은 어머니로부터 전해진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어머니의 메모를 따라 종이에 낙서를 하면서 유년기를 보냈다.

본격적으로 기록을 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다. 어머니께서 내게 선물로 그 당시 내가 좋아했던 캐릭터인 '미피'가 그려진 포스트-잇 세트를 사주셨고, 그 포스트-잇에 새로 사귄 친구들의 이름과 선생님의 새로 사귄 친구들의 이름과 선생님의 성함과 한참 유행하던 만화주제가를 써내려가며 앞으로 평생하게 될 '기록'의 한 분야인 '메모'하는 방법을 익혔다. 그 후로도 포스트-잇은 늘 나와 함께 다녔고, 내 메모하는 습관 덕분에 선생님께 칭찬을 받는 기분 좋은 일도 종종 있었다.

3학년 때부터 부모님께서 카메라를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당시 우리집은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었던 터라, 사진관에 가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의 사진은 다 현상이 되지 못했었다. 어린마음에 너무 억울한 나머지 사진관 아주머니께 내사진이 현상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얘야, 미안하지만 네게 해줄 말이 있구나. 네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진이라는 것은 그냥 셔터를 눌러서 찍히는 것들을 무조건 사진이라고 할 수는 없단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구도나 각도, 명암 등을 잘 고려해서 찍어내야 한단다. 사진은 그 풍경을 담은 동시에 작가의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담겨야 한단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나에게 친절하게 사진을 찍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5학년이 되어 그 동네를 떠나

오기 전까지 늘 사진관에 가면 아주머니께 새로운 기록법인 사진 찍는 기술을 배울 수가 있었다.

처음으로 남자 담임선생님을 만나게 된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시던 서동국선생님께서 여행이 좋아 하셔서 세계에서 안가보신나라가 쉽게 단위일 정도로 많은 곳을 여행하신 분이셨다. 덕분에 늘 세계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때마다 포스트-잇에 꼼꼼히 기록하고 익혔던 나는 결국 교과목에도 그렇게 공부를 하여 평균 99.8이라는 지금까지 내보지 못한 점수를 받고 당당히 졸업은 아니지만 4학년을 끝마쳤다.

5학년 때 난 어린이날 선물로 '디지털 카메라'를 받게 되었다. 다른 디지털카메라와는 달리 렌즈를 180도로 회전이 가능해서 나의 모습을 직접 찍을 수 있는 카메라였다. 신기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 현상을 하러 사진관에 가지 않아도 사진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다. 난 그 후로부터 늘 여행을 갈 때마다 이곳저곳을 찍어댔고, 도서관에서 사진 찍는 기술이 담긴 책을 틈틈이 읽어 원근감이나 안개까지도 멋지게 나타낼 수 있게끔 되었다. 그렇게 박물관의 유물도 여러 절들의 탑도, 멋진 바닷가도 나의 디지털 카메라 속에서는 추억의 한 장면으로 남게 되었다.

지금도 자동차의 이름이나 핸드폰의 기기명처럼 사소한 것들을 줄줄 꿰는 나를 볼 때마다 친구들은 "넌 왜 이렇게 아는 것이 많니?" 하고 묻는다. 그냥 평소에 적어두는 것을 한번 더 바라보며 생긴 지식일 뿐인데 날 빛나게 해준다. 그렇게 보면 기록이라는 것은 흘러다니는 정보를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있는 것들을 적어 익히는 것부터 연습한다면 누구나 나처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산
만
만
만

나의 오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언젠가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많은 사람의 염원이 붙여져 있는 벽을 본 적이 있다. 나중에 나의 집을 갖게 되면 나도 그런 멋진 나만의 '기록벽'을 갖고 싶다.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이란 이름의 무서움

중등부 | 동상

정혜경 대전 / 둔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기록, 기록의 정의는 무엇일까? 물론 지금 기록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글' 이 라고 많이 생각 하지만 사실 기록의 정의는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또는 그런 글.' 이다.

지금 현재시대에는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많은 기록들이 존재한다. 세계 최초의 기록물이라고 알려진 수메르인의 점토판부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글까지. 세상에는 참 많은 기록물들이 존재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기록은 굉장히 유용하다. 사람의 기억력이란 영구적이지 못하여 곧 잊어버리게 마련이라 중요한 정보를 깜박 잊고 살아가거나 필요한 때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기록해 두면 위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록들로 우리는 한사람의 잘잘못을 가리기도 하고 어떤 지식을 얻기도 하며 기록을 바탕으로 생각하기도, 발전하기도 한다. 생각해 보니 기록은 우리 생활 속 아주 깊게 파고 들어있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살짝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곧 기록은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나 싶겠지만 이러한 생각에 대한 근거는 역사서가 쓰여지는 원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국사, 세계사 선생님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역사는 승리한 자의 손으로 쓰여 진다' 라는 것이다. 그 당연한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승자는 언제나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사건을 포장하기 마련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역사서가 과연 맞다고 볼 수 있을까? 기록된 것을 진실로 볼 수 있을까.

이런 기록에 대한 의문은 단지 역사서 뿐 아니라

과학적 사실들에게도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동설' 은 아주 오랜 기간동안 기록되어 전해져 오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로 믿어져 왔고, 항우석 박사 사태처럼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기록은, 혹은 누군가에 의해 위조된 기록은 나라 전체를 혼란 속에서 들썩이게 할 수도 있다.

기록의 한 줄은 사람들의 사고를 좌지우지 한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바꾸기 어려운 사고를 남긴다. 따라서 기록은 현명한 인도자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정 인물의 무서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기록의 중요성이란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라도 기록이란 위조되어서 힘 있는 자에 의해 바뀌어서 전해지면 그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물론 후세에 재해석이 활발히 일어난다고 해도 기록이란 이름으로 박혀져 있을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무게란 엄청나기 때문이다.

지금 내 자신을 보자. 내가 얻은 지식이란 무엇인가? 기록에서부터 오는 정의이고 정보이다. 내가 믿고 있는 진실이란 무엇일까? 기록에서부터 오는 믿음이다. 지금 그런 역사의 조작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믿어왔던 나인데 새삼 나부터가 그런 기록들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이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기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기록의 영향이 범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느끼게 된다. 생활 속에 묻혀서 평생 한번도 생각하고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이번 백일장에 감사할 따름이다.

산
만
만
만

내가 기록의 출발점

중등부 | 동상

유혜진 대전 / 대전여자중학교 1학년

학교나 집에서 모두가 일기를 쓰라고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일기를 쓰는 게 여려모로 좋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진짜 하기 싫은 일기를 하라니요! 벌써부터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래서 결국 새로 산 일기장을 책꽂이에 도로 꽂아두었다.

“일기가 쓸데없는 시간낭비가 아니거든. 그거 나중에 네 딸한테 보여줘 봐라. 얼마나 신기해하겠나.” 라고 엄마가 말했다. 나는 방에 들어와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그렇다. 기록은 나를 위한 것이다. 후, 지금껏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렇다. 기록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남겨놓은 일기장 하나가 나중에 후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기록이라는 것이 단순히 팔만 아프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냐며 불평만 늘어놓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옛 조상들도 나 같은 생각을 하신 것은 마찬가지인 모양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고종태황제실록 등의 수많은 기록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조상들이 찌는 무더위에서 에어컨, 아이스크림 대신 삼베옷, 보신탕을 이용한 것과 뼈까지 시린 겨울에 전기장판 없이도 온돌과 화로로 겨울을 견딜 수 있었다는 사실도 배웠다. 그런 내용들 모두 기록되어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해 주는 것은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TV를 켰을 때 TV에서 ‘위대한 유산 74434’가 나오고 있었다. 우리나라 문화를 가져가 놓고는 훼손해 놓는 장면이 비춰질 때에는 내가 TV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었다. 고구려의 영토를 중국 땅이라고 하는 중국인들을 볼 때에는 어안이 병병해졌다. 하지만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이봐요! 여기 삼국유사에 고구려가 우리 대한민국의 것이라고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라고 말이다. 이럴 때 고구려의 영토독도의 주인이 대한민국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정말 대행이다.

종이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펜이 남긴 발자국대로 모양을 남겨 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동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김구선생님의 독립심이 자아낸 백범일지, 이순신장군의 꿋꿋한 애국심이 낳은 난중일기, 조선왕들의 찬란한 역사가 담겨있는 조선왕조실록. 그런 기록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번쩍든다.

후다닥 자리에 앉아버렸다. 첫 장을 펴들고 펜을 잡은 나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술술 줄 위에 글자들을 올려놓았다. 짠, 드디어 오늘의 일기 완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트까지 그려 넣었다. 이렇게 변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

글을 쓰면서 얻은 교훈

중등부 | 동상

박민영 대전 / 청란여자고등학교 3학년

어렸을 때부터 책을 꽤 읽었다고 자부하지만 소심한 성격을 가진 내가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된 계기를 준 수아라는 아이디를 지닌 동생이다. 그 아이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 한 곳에서 만난 동생이었고, 그 아이 자신의 소신껏 자신있게 쓴 글을 보며 '나도 한 번 글을 써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소심했던 나는 모르는 사람이 내 글을 본다는 그 사실이 두려워 결국 글 한 줄도 써보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갔다.

어느날, 수아의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본 나의 성격을 토대로 내가 주인공인 나를 위한 글을 써서 올려준 것이었다. 정말 고마웠다. 한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나를 위해서 글을 써주다니...

나도 수아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글에는 글이다.' 였다. 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무서운 잡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수아만을 위한 글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느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어떻게 쓰면 수아가 좋아할지를 고민하면서 수정에 수정 하면서 결국 단편이지만 수아를 위한 글이 완성되어 수아가 읽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그 글을 올렸다. 올리고 난 후 내가 글을 쓰지 않았던 원인이 생각이 나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수아가 저 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 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읽고 비방만 한다면 어떻게 하지? 지울까?' 이런 저런 많은 생각에 한동안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며칠 후에야 겨우 진정이 된 나는 내 글을 검색해 보았다. 처음 보이는 것은 수아의 코멘트. 자신을 위해 써준 글이 마음에 들고 고맙다는 인사와 격려의 글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코멘트도 많은 격려의 글들과 고치면 좋았을

부분을 상처받지 않도록 써주었다. 솔직히 이러한 코멘트를 얼굴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긴장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정말 나는 말보다 글로써 많은 위안을 얻은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부족하지만 많은 글을 쓸 수 있는 Joara라는 사이트에 가입하여 더 많은 글을 쓰고 싶은 창작욕을 불태웠다. 먼저 쓰기 쉬운 패러디 소설부터 써가기 시작했다. 내가 읽었던 무수한 소설과 만화를 각색하고 모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좋아하고 즐겁게 보아주면서 조언해주니 나는 글쓰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내 몸은 너무 약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이었다. 난 모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당분간 집필을 중단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집필을 중단해서 그러한 것일까 빠른 쾌유를 빌던 사람들이 입원함을 의심하고 아파도 뒤의 내용이 궁금하니까 계속 써나 가라는 코멘트가 올라오고 난 중압감에 글 쓰는 것이 다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그러자 더 많은 코멘트가 올라왔고, 나는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이트에서 탈퇴를 하게 되었다. 나는 글로써 희망을 얻었고, 글로써 좌절과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다시 글을 좋아하게 된 두 번째 계기인 학교 동아리 중 문학동아리에 가입한 후 자신감을 다시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내 기억 속에 묻어둔 사이트 Joara에 다시 가입을 했고 시를 써 보기로 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봐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더 많은 조언과 시란 어떠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내 생각은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 나가는 것이 너무 재밌었다. 나는 그 때 중압감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나는 이때 깨달았다. 중압감은 다른 곳도 아닌 나의 마음

기록사랑

백일장

엄마의 일기

중등부 | 동상

최은정 대전 / 호수둔여자중학교 2학년

이제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여름이 다가 올수록 내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생일도 함께 다가온다. 나는 많은 이의 축복 속에 태어났고, 또 지금도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자랑스런 모습으로 자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엄마의 보살핌이었다.

엄마는 나를 포함해서 3명의 자식들을 낳고 길렀다. 2명은 아들, 그리고 막내인 나는 딸이다. 엄마는 3명의 자식들을 이 날 이 때까지 키우시면서 항상 일기를 써 오셨다고 한다.

일명 육아일기라고 하는 것 말이다.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을 때의 몸무게와 신장의 치수, 그 날의 느낌은 어땠는지, 하루하루 아이의 컨디션은 어땠는지, 밥(우유)은 하루에 얼마나 먹었는지 등 사소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다. 큰 오빠가 태어난지 24년이 지난 올 해도 엄마는 일기를 꾸준히 쓰고 계신다. 이런 엄마의 일기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다.

첫째, 엄마의 일기에는 사랑이 담겨있다. 잘못된 행동을 했어도 매를 이용한 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으로 잘못을 이야기해주고, 사랑으로 이해한 엄마의 진실된 마음이 일기에 담겨져 있다.

둘째, 엄마의 일기 속에는 우리 가족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 우리 가족이 교회를 처음 나간날은 언제인지, 큰 오빠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우다가 이마가 찢어진 날은 언제인지, 가족 생활에서 가장 위태로웠던 일들까지도 상세히 적혀져 있다. 한 명의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도 나타나다. 엄마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의 시간흐름이 자세히 나타나다.

셋째, 엄마의 일기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있다. 유난히 편식이 심했던 작은 오빠는 밥을 먹지 않아 식구들이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외갓집의 식구들은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이라고 엄마에게 이야기 했지만, 엄마의 생각은 달랐다. 싫어하는 음식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엄마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엄마는 작은 오빠가 먹지 않는 것을 햇볕에 말린 다음 곱게 가루로 만들은 뒤 관심을 갖게 한 뒤, 음식을 만들 때 섞어서 조리했다고 한다.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에 한껏 차리면 언제 편식을 했었냐는 듯이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 아이에게 모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관심을 갖게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서히 다가가는 것이 엄마의 교육 방침이자 아이 셋을 키우면서 터득한 지혜라고 항상 말씀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 엄마의 일기에는 우리들의 무궁한 발전가능성이 있다.

'우리 아들들은 외우는 암기를 잘하고 수학을 너무 좋아하고, 예쁜 막내딸은 일찍부터 언어 구사를 잘했고 세 명 모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컸어'

엄마는 우리의 장점을 정확히 파악했다. 엄마의 예리한 파악이 오빠들의 대학 선택과 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암기를 잘해 머리회전이 빨랐던 오빠들은 둘 다 기술을 배우는 과에 입학했고, 전자 공학에 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유식해 졌다. 언어구사력이 뛰어났던 나는 중학교에 입학해서 학교 방송부에 합격했고, 여러 백일장에도 출전해서 자주 상을 받고 있다. 엄마의 예리한 관찰이 우리들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한 가능성과 계속 늘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기록 습관이 우리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 우리 세 남매는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사소한 기록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우리를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기록에게 너무나 고맙고, 더 큰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기 위해 오늘도 나의 기록은 계속된다.

산
만
만
만

칠년전의 약속

일반부 | 대상(행정자치부 장관상)

김윤재 대전 / 서구 만년동

덜컹덜컹, 윙윙, 달그락.
또 요란한 소리가 잠을 깨운다. 이불을 덮어 쓰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더욱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포기
하고 만다.

의기양양한 소리에 얼굴 한번 빼꼼 내밀고, 덩달아
손을 바빠 움직인다.

아이들 깨워 준비시키고, 간단한 음료와 간식도
준비하고, 빠진 것이 있나 꼼꼼히 살핀다. 오늘은
시계를 내동댕이 치고 잠을 더하느라 김밥은 싸지 못했다.

칠년전 어느 날, 꼭 필요하다며 사달라고 조르고
조른 남편의 부탁이 이 고생의 시작이었다. 아니, 큰
기쁨의 시작이었다.

삼백인치가 넘는 큰 스크린과 그때는 들어 보지도
못하던 디브이디, 오디오 세트와 스피커, 빔 프로
젝트와 디지털 카메라, 그것도 모자라 pd150이라는
요상한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너무나 큰 돈을 요구하는 남편의 말에 입이 다물어
지지도 않았고, 그 보다 당장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사려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했다. 지금은 취미생활에
필요하지만 훗날 우리 아이들에게 더 없이 좋을 거라는
남편의 말을 믿고, 아니 속아주고 그 많은 물건들이
우리집 거실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아빠의 전속모델이 되어 주어야
했고, 일요일이면 들로 산으로 동행해 주어야 했고,
아이들을 찍든, 자연을 찍든 따라 다녀야 했다. 한나절
야외에 나가 즐겁게 놀고 카메라에, 비디오 카메라에
그 증거물들을 담아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자마자 남편은 허겁지겁
컴퓨터에 비디오 카메라를 연결시키고, 하루 동안의
일들을 곱씹는다. 되돌려 보고 다시 또 보며 편집을
하고, 배경음악과 나레이션과 자막도 넣고, 밤을

세워 CD 세장을 만들어서 우리 세 사람 앞에 당당하게
들이 민다.

마치 우리집 강아지 산타가 두 달 동안 불렀던 배에서
올망 줄망한 새끼들을 진통 겪으며 몸 밖으로 내
놓듯이 힘든 허리 한번 펴지 않고 밤 세워 어스름
해가 뜰 때쯤이면 한 장씩, 한 장씩 컴퓨터는 CD를
토해낸다.

어느 때엔 DVD가 되어 나오기도 한다. 우리 셋은
그 당당함에 동조를 하며 큰 스크린에 뜨는 어제의
추억들을 보며 감탄사로 화답하며 웃음 짓는다.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들 곁에서 칠 년 전에 속아 넘어가
주지 않았으면 어쩌나 가슴을 쓸어 내릴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그렇게 모인 테이프와 각종 CD, DVD가 남편의
책상 속과 위에 한가득이다. 동영상 뿐이 아니라 모
든 사진도 사진이 아닌 CD, DVD에 고스란히 기록되
어 있다. 언제든 컴퓨터 속에서 칠년전을, 육년전을
꺼내 보며 흐뭇해 한다.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을
담는 조용하고 시끄러운 기계들과 늘 그 기계들을
다독이고 준비하여 하나 하나, 한해 한해 담아 두는
남편의 고마움을 김밥 싸고 동행해 주는 것으로 대신
한다. 오늘은 김밥을 싸지 못했으니 웃으며 김밥집으로
슬쩍 향해야겠다.

십년 후, 이십년 후 두 아이들이 CD를 보며 옛날을
그려볼 수 있음에 가슴 따뜻해 진다. 비록 오늘도
아빠의 모델 노릇을 하며 힘들어 하겠지만 말이다.
못 이기는 척, 힘든 척 집을 나서지만 신발 벗고 들어
설때면 우리 셋이 더 좋아 하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산문부분

기록사랑

백일장

세 권의 노트

일반부 | 대전광역시장상

오영란 대전 / 서구 관저동

지연이가 방 바닥에 놓은 책을 어린 두 동생들이 보다가 싸인펜으로 온통 낙서를 해 놓은 적이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연이는 자기 책이 왜 이 모양이 됐냐며 제 동생들을 겨냥해 호통을 치고 있었다.

"누나 책에 누가 낙서했어? 누가 남의 책에 함부로 낙서를 하래?"

이제 겨우 두 돌이 지난 막내야 제 누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리 없지만 다섯 살짜리 둘째는 화가 난 누나 앞에서 겁을 먹은 모양이었다. 나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또 어린 철부지들이 저지른 일이니 10살이나 먹은 지연이가 이해하고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생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 이제 그만해라." 하였다. 그러자 지연이는 내게 성을 냈다.

"엄마는 잘못된 동생들은 안 혼내고 왜 저한테만 그만하라는 거예요?"

화살이 내게 날아오자 조금은 귀찮다는 생각도 들었다.

"네가 책 간수를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 아무데나 책을 놓은 건 너야. 너도 잘못했어. 그러니 그만 하라고!"

내 목소리도 이미 커져 있었다. 지연이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내 눈물을 흘리더니

"엄마는 매일 동생 편만 들고……."

하면서 제 방으로 들어가 영영 울었다.

그날이 그렇게 지나고 다음 날, 나는 학교에 간 딸의 책상 정리를 하다가 구겨진 종이에 아무렇게나 흘려 써 있는 글자들을 발견했다.

'엄마 미워, 우리 엄마 아니야.'

평소에도 동생들 편만 든다고 불만이 많던 아이였다. 그렇지만 엄마인 나를 부정할 정도로 나를 미워하는

줄은 몰랐다. 그제서야 전날의 일이 후회가 되었다. 살살 달래고 지나갈 걸 괜히 아이 맘에 상처만 주었다는 생각에 어떻게 화해를 할까 골몰하였다.

학교에서 지연이가 돌아오자 나는 아이에게 노트 한 권을 건넸다.

"이게 뭐예요?"

"조용히 한 번 읽어보렴."

나는 지연이에게 노트를 건네고 아이 방을 나왔다. 어리둥절해 하며 노트를 받아 들고 책상 앞에 앉은 아이는 조용히 읽는 듯 하더니 간혹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몇 장을 넘기는 것 같더니

"엄마, 제가 여섯 살 때 정말 이랬어요? 하하하……."

"생각 나요 엄마, 맞다 맞다……."

딸아이는 신기하다는 듯 웃으며 읽기를 멈추지 않았다.

내가 지연이에게 건넨 노트는 다름 아닌 편지 노트다. 결혼하고 전업 주부로만 살아온 나는 단조로운 내 생활에 가끔 자괴감에 빠지곤 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바쁘긴 한데 일상에 대한 허무함은 더 커졌다. 그 때 내가 찾은 생활의 활력소는 편지 쓰기다. 아이들의 말이나 행동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해 놓으면서 나는 참 즐거웠다. 어린 아이들은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그때 그때 적어 놓지 않으면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일이 알 수가 없는데, 나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소소한 일이지만 기억해야만 할 일들이 생기면 아이들 자는 틈에 적어두곤 하였다. 그 노트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노트는 큰 아이, 둘째 아이, 막내 것 이렇게 세 권이 각각 있다. 세 권의 노트는 이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 됐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기록하며

산
만
부
부
만

나의 아이 사랑도 더 극진해갔다. 또한 일상의 허무감도 떨쳐 버리게 되었다. 노트를 한 면씩 채워나갈 때마다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고 아이들에게 더 성실하고 담대한 엄마가 되겠다는 각오도 새롭게 다지게 된다.

노트에 적어 놓지 않았으면 까마득히 잊었을 소중한 기억들이 세 권의 노트에 빼곡히 적혀 있어 나는 우울할 때나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에도 남몰래 노트를 읽어 본다. 그러면 어느새 마음의 상념들은 사라지고 기운이 솟는다.

몇 년간 제게 써 놓았던 편지들을 읽고 난 후 딸 아이의 얼굴 표정은 밝았다. 눈빛만으로도 이제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하는 딸애의 마음이 읽혀졌다.

나는 몇 년이 더 흐른 후에 부치려던 편지가 너무 이르게 부쳐진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지만, 딸애의 행복한 표정이 그 아쉬움을 잠재워 주었다.

한 번 개봉된 편지 노트와 아직 개봉되지 않은 두 권의 편지 노트를 나는 앞으로도 소박하게 채워나갈 것이다.

먼 훗날 이 노트들을 보면서 내 아이들은 제 어린 모습들을 추억하며 행복할 것이다. 글로 남기기에 도박차기만한 자식을 향한 이 엄마의 사랑을 헤아리며 내 아이들이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더 바랄게 없다.

기록사랑

백일장

할아버지의 기억

일반부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이정민 대전 / 외동초등학교 행정실

산문부문

나는 현재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민원처리와 기록물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업무를 담당할 시기는 고작 9개월 남짓 된 것 같다. 책상 옆 문서함 안에는 누렇다 못해 조금씩 시커멓게 변해가는 생활기록부가 연도별로 빼곡하게 쌓여 있고, 각종 공문서와 서류들이 연도별로 늘어져 있다. 하루 일과를 이 서류들과 책상에서 정신없이 씨름을 한다. 이 과정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것은 매우 따분하고도 반복적인 업무의 연속이다.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과 보존방법에 대해서는 수차례 교육을 통해 들었지만, 사실 교육을 받는 일조차 내게는 평범한 일상업무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갑자기 맡은 업무가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그 의미를 찾아갈 때가 되어서야 조금씩 문서함도 열어보고 구석구석 눈길을 돌려 기록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그것은 입에서 술술 나왔을 때와 달리 그렇게 쉽게 끝나는 작업이 결코 아니었다. 또 계속적으로 생기는 다른 업무와 민원들로 진척이 계속 느려지자 초심과는 달리 내 스스로 고민을 지우듯 가슴속에 약속했던 업무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그런 나에게 작은 변화가 예고없이 찾아든 건 불과 얼마전 일이었다.

그 날은 사무실 나를 포함해 단 두 명이 업무를 하고 있었다. 학기초에는 이런저런 업무로 출장이 많다. 점심을 먹고 나른한 오후를 보내며 책상에 앉아있을 때 백발에 지팡이를 들고 아주 느린 걸음으로 한 할아버지가 행정실 안을 들어왔다. 첫인상만 보아도 연세가 보통 많으신게 아닌 듯 보였다.

"어떻게 오셨어요?"

민원인으로 생각한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할아버지는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씀하셨는데,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꼬깃꼬깃 접은 종이를 펴 보았다. 내용은 이리했다. 군인이 명예롭게 전사해 국방부에서 그 전사한 군인을 배출한 해당 학교에 명예패를 수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즉, 할아버지의 죽은 아들을 가르키는 거였다. 내용은 대충 이해가 되었다.

"할아버지 이 종이는 다 봤어요. 무슨 서류가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혹시나 잘 듣지 못할까봐 조금 목소리를 높여 물어봤다.

"응. 우리 아들이 이 학교를 나왔는데, 그 증명서류지를 내라고 해서 왔어."

"그럼 할아버지 생활기록부 한통이랑 졸업증명서 한통 떠 드릴게요."

우선 대리인 주민등록증을 받고 서류를 작성하면서 난 조금 놀랐다. 내 예상보다 더 연세가 많으셨다. 출생연도가 1918년이였다. 순간 걱정이 앞섰다.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면 대충 짐작해도 40년이나 50년대 출생자일 듯한데 오래전 기록을 찾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짐작대로 서류를 보니 출생연도가 1954년이였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옆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께 도움을 청해 생활기록부에 쌓인 뽀얀 먼지를 털어가며 한자로 작성된 서류를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나이에 맞게 학교를 들어오는 경우가 적어서 맞는 서류를 찾으려면 적어도 5년정도를 다 찾아봐야 한다. 좀 창피하지만 40분정도 지난것 같다. 그때서야 우리는

기록사랑

백일장

세월은 고쳐 놓습니다

일반부 | 은상(국가기록원장상)

황현주 과천 / 중앙동

산
만
부
머
니

남편은 가장 큰 사이즈의 예비군 모자도 뒤를 찢어야 쓸 수 있는 큰 머리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오늘도 시어머니는 아이의 늘어진 내복의 목부분을 보시면서 나를 닮아 그렇다는 거침없는 말씀을 진담으로 하신다. 친정 엄마가 그러면 웃고 넘길 말이 왜 시어머니가 하면 마음에 선명하게 각인되고, 누적이 되는 것일까?

첫 아이를 낳고, 나름대로 산후우울증 때문에 우울한 나에게 어머니는 '남들 다 잘 낳고 사는데, 유난을 떤다'는 멘트를 하셨고, 그것은 그대로 나의 마음 실룩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남편의 부모도 부모인데도, 미움의 마음을 거둬들일 수가 없었다. 한 시인은 시가 있어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 생각에 결혼 후에 한번도 써보지 않았던 일기를 썼다. 쏟아내야 시원할 것 같아 미움의 마음을 거침없이 쓰다보니 '미친X'까지 쓰게 되었다.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시원했고, 그런 말을 썼다는 죄책감에 미움이 조금 사그러 들었다.

그런후 아이가 돌이 지난 어느날 어머니는 우연히 들은 이야기라며 다른 집 며느리이야기를 하셨다.

애기인즉, 며느리의 가계부에 한달에 한번씩 '미친년 30만원'이라고 써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한 달 용돈이 30만원이었다. 속으로 프락할 수밖에 없었다. 혹시?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가 1년 전 나의 일기를 읽으실 리도 없고, 딱 한번 밖에 쓰지 않은 표현이었는데..... 결국 가계부 이야기들 들은 아들은 장모님에게 들리는 용돈 봉투에 역시 '미친X'라고 썼다고 한다. 이후에 친정 어머니와 며느리의 사과로 사건은 해결되었다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다. 일년 전 나의 마음 실룩이 공개된 것 같이 화끈거렸다. 그러나 이야기 속 시어머니도 나의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섭하게 했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시간은 의지와 달리 잘 흐르고 흘러 돌쩌를 낳고, 시어머니 곁에서 양육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아침부터 보채는 아이를 뒤로 하고 스프링 처럼 직장으로 튕겨져 갔다. 직장에서도 나는 스프링 이고 탁구공이어서 짬을 내기가 어려웠다. 전화기의 외침조차 못 듣는 나에게 전화기의 마지막 단발마가 들렸고, 울먹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이리저리 뛰어 다녔던 나는 순간 포착이 되어 버렸다. 시어머니의 울음 소리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두서도 없이 아이 처럼 울먹이며 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요지인즉 아이가 아파하는 것을 더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도 어머니도 울음으로 얼굴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저녁 7시 7개월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다. 어이없게도 팔이 부러졌다고 한다. 생각해 보니 전날 저녁에 큰 애가 침대에서 뛰놀고 작은 아이가 그 밑에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거의 24시간 동안 아이는 아팠던 것이다. 말도 못하는 것이 할머니의 손 위에서 고통을 참고 칭얼거린 것이었다. 어머니는 '네 손이 약손이 아닌가 보다'만 연신 반복하시며, 차라리 내가 아플걸 내가 아플걸...'라고 하셨다. 지금 그 일을 생각하면 어머니의 그 말씀만 떠올른다. 이 일을 계기로 예미가 고생한다는 말은 안 하셔서 섭섭했던 마음, 첫 아이 낳고 들었던 거침없는 말들이 손자를 아끼는 말을 통해 다 녹아 버렸다. 나의 마음에 새겨진 뼈아픈 말들도 어머니의 손자를 위한 어록 앞에서 다 지난 일이 되었고, 민망한 과거가 되어 버렸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미움의 딱지가 떨어져 나가고, 나의 실룩이 아닌 어머니의 어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장은 묵혀가며 먹어야 한다', '경사보다 애사를 먼저 챙겨야 한다', '음식은 국물에 잠긴 것이 맛있다,' '남을 주려면 좋은 것을 줘라' 등 어느 순간부터 잔소리가 삶의 지혜로 너그럽게 이해가 되었다. 자식이라는 매개체로 어머니와 내가 이어지면서, 그리고 그 위에 세월의 융통성이 가미되면서 마음이 바뀌어 졌다.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진 기록은 쉽게 변할 것 같지 않았지만, 마음이 열리는 한 순간 변한다. 그런데, 찰나의 한 순간은, 진심이 통하는 한 순간의 울림은 오랜 세월 함께 흘러온 후 오는 것이다.

이제는 시어머니를 '미친X'라고 표현한 사람에게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다. 당신의 기록을 고칠 수 있는 날들이 올 것이라고, 그 때까지 함께 삶의 풍량을 겪으라고... 그래야 훗날 일기장을 보면서 자신의 성장과 변화에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역사의 기록은 변할 수 없지만, 심장에 새겨진 것은 그것이 지울 수 없는 문신같이 느껴져도 다 변한다고 말해 주고 싶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런 믿음 속에서 내 마음 속 잘못된 문신을 고쳐 나가고 싶다.



기록사랑

백일장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 - 기록의 중요성

일반부 | 은상(국가기록원장상)

엄명숙 대전 / 대덕구 법동

산
만
만
만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숨을 쉰다. 그 작은 숨결에서 삶의 출발이 이뤄진다. 어미의 젖무덤에서 행복한 순간을 보내는 것은 어미의 눈과 마음에 남아진다. 어미의 젖내는 어린 아이의 가슴팍에 남겨져 살아가는 원천이 된다. 힘들어 때 샘물이 되어 솟아난다. 그 샘물은 가슴에 숨겨져 있던 무형의 기록 유산이었다. 하지만 이 무형의 유산은 어느 순간에 유형의 기록으로 탈바꿈을 한다. 그것이 바로 육아일기라는 기록인 것이다. 육아일기의 기록은 또 다시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기록하는 일기로 '기록의 바톤'을 넘겨준다.

개인의 사사로운 기록이 '일기'라는 것으로 이름 지어진다. 사회의 기록은 '역사'라는 이름을 달게 된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인 동시에 현재를 비추는 교훈이 되며,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된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원시의 벽화 그림에서 우리는 그들의 소망과 생활을 만난다. 글이 없던 그 먼 과거에서도 우리 인간은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해온 것이다.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글자의 발명은 우리 인류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혁명이 되었다. 기록할 수 있는 글자는 지식을 전달 했으며 문화의 확산을 가능케 하였다. 기록, 기록이 이뤄짐으로 인해 놓쳐버리고 잊혀질 수도 있던 문명의 이기들은 우리들의 생활을 변화시켰고, 기록을 통해 과거와 현재는 소통을 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운다. 그 역사의 기록은 과거를 현재 속으로 불러오게 했고, 과거는 역사기록을 펼치는 순간 살아서 우리를 만난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광개토대왕릉비의 비문」, 「단양적성비」 수 많은 기록들은 우리를 역사 속으로 불러

오는 소중한 자료인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는 그 기록을 재해석하며 그 시대를 만난다.

우리는 현재를 기록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의 작은 일기는 나의 기록이다. 그 일기는 나의 마음을 담아 내고, 나의 하루 중 중요한 일을 담는 도구다.

인간은 기록하는 본능을 소유한 존재는 아닐까? 현재의 기록을 남기는 것은 미래 후손에 대한 먼저 온 자가 반드시 해야할 의무이다. 우리의 현재가 자랑스러운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우리의 후손이 평가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내가 쓴 딸 아이와 아들의 육아일기가 감정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는 관계를 어느 정도 녹여주고 있다. 이처럼 기록은 오해와 후회의 횡수를 줄여주는 긍정적 역할도 하고 있다.

기록을 남기는 일은 정성과 시간을 투자하기를 요구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록해야만 한다. 왜 기록은 우리의 과거이며 미래이며 또한 현재이기 때문이다.

기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생명의 줄이다. 생명의 줄이 건강할 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 지상 100년의 삶을 행복되고 건강하게 살아 갈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터가 되는 사회가 건강함으로 끝없는 달리기를 할 수 있게 기록을 남기자. 작게는 개인의 기록에서 더 나아가 세계의 기록을.

역사는 기록한 자의 것이다.

아빠의 일기장

일반부 | 동상

유은옥 대전 /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아빠, 저 왔어요."

푸르른 산 중턱에 자리잡은 아빠의 무덤 앞에서 나는 숨을 죽이고 아빠에게 짝막한 인사를 건넸다. 벌써 이 곳에 아빠 홀로 계신지도 10년이 되어간다. 내 옆에서 항상 지켜주실 것 같던 아빠는 이미 다른 곳에 계시지만, 마음 가득 나는 아빠를 그려본다. 아빠의 사진, 테이프에 장난스레 녹음하였던 다정한 음성. 나를 위해 손수 적으셨던 긴 편지……. 작은 상자에 담긴 아빠의 기억을 되새기며 나는 추억에 잠긴다. 작은 무덤을 아빠의 품인양 살포시 안으며…….

아빠는 내가 어릴 적부터 일기를 쓰도록 이끄셨다. 조그만 손으로 무엇을 일기장 안에 그려넣을지 그날 마다 생각하여 그림 일기장에 완성하게 하셨다. 그냥 장난스레 그린 그림들은 무엇을 일기로 쓴 것이며,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알려주는 보물이었다. 그것이 내가 처음으로 썼던 글이 아니었나 싶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학교에서 일기를 써오는 일을 숙제로 내서 매일마다 일기를 썼다. 친구들과 싸운 일이며, 속상했던 일들이 좋았지만, 어린 나에게는 일기를 쓰는 일보다는 친구들과 소꿉놀이하며, 술래 잡기며 함께 저녁 늦게까지 어울려 노는 일이 더 즐거웠다. 그렇게 친구들과 늦게까지 놀고난 저녁에는 피곤에 지쳐 잠이 들곤 했다. 일기를 쓰는 일은 당연히 뒷전이 되고 말았다. 그런 날이면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나는 것도 물론이었지만, 아빠의 회초리가 함께했다. 아빠의 회초리로 혼쫓이 난 다음에는 아빠가 얼마나 야속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아빠를 원망하였고, 일기장 가득 아빠에 대한 이야기로 그런 날의 일기를 대신했다.

초등학교 3학년때 학급의 임원이 되었다. 어린 마음에 책임감이라는걸 생각했는지 모범이 되어 한다는 생각으로 일기와 숙제를 빠짐없이 해갔다. 그런

나를 보면서 아빠는 자랑스러워 하셨다. 내가 백일장에서 상을 타서 안겨 드렸을 때도, 우등상을 탔을 때도 아빠는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안아주셨다. 하지만 나는 아빠가 부끄러웠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아빠의 성격으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길 때가 많았다. 아빠가 하시던 오락실에 오던 손님들은 나와 학교를 다니던 포레 아이들이었고, 그 아이들은 아빠의 딸인 나를 오락실 아줌마라고 불렀다. 아빠에게 혼났을때도, 심심해서 장난치고 싶어할 때도 아이들은 나를 오락실 아줌마라고 부르며 나중에 오락실이나 하라며 놀려댔다. 전교의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면서 나는 이름이 아닌 '오락실 아줌마'로 불리게 되었다. 그런 아이들의 장난은 커다란 상처로 돌아왔고, 일기장 가득 사람들의 원망과 아빠가 오락실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채웠다. 일기를 쓰기도 서럽게 울면서 지쳐 잠들었던 나는 내 일기를 부모님이 보실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음날에 아빠가 학교에 와서 전학이야기를 선생님께 말씀드릴때도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엄마를 통해 나는, 아빠가 자고 있던 내 머리맡에 놓인 일기장을 보였고, 자신때문에 상처받는 딸을 보며 마음이 아파서 당장 찾아오셨던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아빠에게 죄송한 마음을 느낀 일이 없었던 것 같다. 아빠의 품으로 달려가서 잘못했다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그날이후, 나는 아빠를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웃으며 지냈다. 행여나 아빠가 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오해하실까봐 일부러 웃는 모습만 보여드렸다.

가족과 여행을 가서 즐겁게 놀았던 기억도 있다. 여행에서 깔깔거리며 놀던 동생과 내모습과 부모님의 모습은 행복한 모습으로 한결같이 테이프 안에 자리

기록사랑

백일장

산
만
만
만

잡고 있다. 동생과 장난스레 계약서인양 목소리와 모습을 담은 부분을 볼 때면 언제나 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느낀다. 그런 즐거운 추억은 나에게 행복의 물결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아빠가 병원에 가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다. 갈수록 아빠의 모습은 수척해지고, 먹는 약의 양도 늘어갔다. 술과 담배는 입에 대지 않으시던 아빠였지만, 원래 위와 간이 좋지 않으셨던 터라 병이 나고 마셨다. 아프신 아빠를 대신하여 가게를 보는 일도 자연스레 늘어났다. 아빠는 병으로, 엄마는 아빠의 간호로, 동생과 나는 학업과 가게 일로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가게에 불량배들이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발생했고, 집에서 누워서 쉬고 계시던 아빠는 내려와서 불량배들을 내쫓았다. 불량배들은 나를 포함하여 온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을 했지만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좋은 일은 함께 따르다고 하던가? 다음날 아빠는 119에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실려가셨다. 모든게 내 탓인것만 같아서 괴로웠다. 아빠가 불량배들 때문에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에 속상했고, 불량배들이 원망스러웠다. 엄마는 우리에게 관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혼수 상태인 아빠의 모습만 보았다. 생전 처음 가는 성당에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크리스마스에 아빠는 우리의 곁을 떠났고, 그것이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였다.

아빠를 떠나보낸 후, 나는 오랫동안 힘들어했다. 의지하고 버팀목처럼 나를 지탱하며 내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던 이정표와 같은 존재를 잃고 난 후, 나는 내 방향성을 잃고 방황했다. 힘들어하던 내 모습을 안타깝게 보시던 엄마는 나를 방으로 불러 조그만 상자와 함께 두꺼운 책뭉음을 건네 주셨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빠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걸 너희 아빠가 썼던 일기들이고……. 너에게 이것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엄마에게 물건을 받아든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어 보았다. 그 곳에는 아빠와의 추억과 함께 내 이름이 적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하시고 정신이 계시던 며칠 사이에 아빠가 나에게 쓴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딸 은옥아. 이 편지를 받을 때는 아빠가 너의 곁에 없겠구나. 편지를 쓰면서도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을지 곰곰히 생각하다가 너희 엄마에게 부탁했다. 네가 많이 힘들어 할 때 이 편지를 전해 달라고 말야. 아빠가 병원으로 와서 너와 네 동생이 얼마나 놀랐을지 자꾸만 마음에 쓰이는구나. 하지만 아빠는 너희들 때문에 더 아픈것도 아니고, 미워서 떠나는 것도 아니란다. 너희 엄마는 그런 말 하지 말라며 다그치지만, 아빠는 이제 얼마 후면 너희 곁을 떠날 것 같단다. 우리 들킨다고 예쁜 만말. 엄마도 동생도 아빠 대신 챙겨줄 수 있지? 어른스럽게 동생도 잘 보살펴주고, 엄마 말도 잘 들을거라고 믿어. 우리 딸, 할 수 있지? 언제나 우리 가족 옆에 있을거야. 사랑한다."

짧지만 마음 가득 긴 글로 내 머리와 가슴 속에 새겨졌다. 아빠의 마음과 사랑이 느껴져서 슬펐다. 슬픔으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빠의 일기장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학교에 다니며 있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내가 넘어져서 다쳤던 일이며, 아기때 우왕이를 해서 기뻐던 일,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들이 아빠의 일기장 안에 가득했다. 신문에 났던 수상기록이나 우편물들도 오려서

아빠의 일기장에 스크랩되어 있었다. 하나 하나가 새롭고 신기했다. 또한 아빠의 사랑이 느껴져 흐뭇했고, 옛 이야기가 즐거웠다. 아빠는 3학년 때 나의 일기에 대한 이야기도 적어 놓으셨다.

'은옥이의 일기장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사랑하는 내 딸이 나의 일로 인해 놀림을 받고 상처에 눈물로 얼룩진 잠을 자게 만드는 나 자신이 원망스럽구나. 마음이 아파서 잠이 오질 않는다.'

그 때의 일이 생각나며 아빠가 더욱 생각났다. 일기장을 덮으며 내 일기장들을 꺼내서 아빠의 일기장 위에 포갠다. 아빠와 하나가 되듯이 하나로 묶어 품에 안았다. 지금도 나는 일기를 쓴다. 아빠의 일기장 위에 놓이는 일기의 개수도 늘고 있다.

오래된 기억을 간직하면서 나는 내 옆에 아빠를 그려본다. 그리고 마음으로 다시 되새겨본다. 또한 이렇게 아빠의 산소에 가서 아빠에게 인사를 건넨다.

"아빠, 저 왔어요."

그러면 아빠는 나를 위해 따뜻한 품을 내주신다.

'아빠, 아빠와의 추억과 기억이 저를 행복하게 해요. 아빠 맘에 드는 그런 딸인가요? 아빠 맘에 드세요? 항상 지켜봐주세요. 아빠와의 추억을 오늘도 일기장 가득 채워야겠어요. 사랑합니다.'

접동새가 내 마음을 아빠께 전하려는 양 소리와 함께 날아간다.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이 남겨준 것들

일반부 | 동상

안미숙 통계청

인류가 진화되면서 사람들은 불을 사용하게 됐고, 돌, 청, 철을 사용하게 되면서 농사도 짓게 됐다. 그후로 인류는 얼마나 큰 변화를 겪게 되었냐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기록문화를 통해서 알게 했다. 나는 요즘 종종 이런 기록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과거를 알지 못하고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흔적을 남긴다는 것은 힘든 일임에는 틀림없다. 말이란 입으로 하면 그만이지만 이런말을 정리하여 기록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법이다. 기록이라 하기엔 좀 우습지만 난 요즘 근 10년 넘게 가계부를 기록해 왔다. 결혼 할때는 다부지게 살림을 해보리라 생각하고 시작한 가계부. 지금도 10여년 전의 내용을 보면 참 알뜰했고 꼼꼼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자식을 낳고 요즘은 그옛날처럼 꼼꼼한 기록은 하지못하고 있다. 그래도 생활습관이 되어선지 기록을 안 남기면 불안하기까지 하다. 그래도 이 기록을 보면 우리의 가족사를 알 수 있어 좋다. 아이가 태어난 때이며, 무엇을 어떻게 썼고, 어떤일이 있었는지 좋은 일기장 이다.

그밖에도 기록이 주는 잇점은 업무를 하며 털털한 성격을 조금이나마 꼼꼼한 성격으로 바뀌었다. 업무에서 겪게되는 일들을 난 작은 노트에 요즘도 정리를 하고 있다. 요즘 컴퓨터 세대들은 우습다고 할 수 있다. 뭐하러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지 노트에 남기냐고 투정한다. 그런데 난 가끔 업무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을 그노트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그때마다 기분이 좋다. 내가 설령 기억을 못한다 해도 어디엔가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청에서는 요즘 일제 점령기 시대의 조선총독부 통계자료를 DB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다.

일본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번역해서 수작업으로 입력해서 DB화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작업이 우리 후손에게는 좋은 역사적 자료가 되리라 확신한다. 과거를 보면 모두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를 읽고 미래로 나아간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1, 2위의 강국이 되리라 확신한다. 요즘 기관마다 과거를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 흐뭇하다. 이왕 시작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왜곡되지 않고 정직하게 기록되길 기원해 본다.

산
만
부
만
부
만

세계가 인정함 <조선왕조실록>

일반부 | 동상

이선상 대전 / 용운중학교

우리는 매일 매일 기록과 함께 생활한다. 예전보다 더 많이 기록을 가까이하고 있지만 그 기록에 대한 깊은 의미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어릴 적 선생님께 숙제로 내야했던 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러한 이유로 간직하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나의 아주 작지만 소중한 역사서가 될 뻔 했는데도 말이다. 학창시절 비밀스럽게 써 놓았던 이니셜로 가득한 메모 초차도 오늘에서야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월이 흘러 이제 누구에게도 검사받지 않아도되는 나의 흔적과 이니셜이 아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기록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사실 개인적인 기록 아니, 찝막한 메모에 지나지않는 것들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내가 살다간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건 바로 기록이 아닐까. 물론 여러가지의 매체들도 내 인생을 담을 수 있겠지만 기록엔 다른 매체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 이념, 사상 등을 가득 담아낼 수 있다. 기록은 한 사람의 역사를 말해주고 나아가 한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내기도한다.

사실 <조선왕조실록>을 단지 많이 알려져있는 재미난 흥미위주의 야사로 흘러 버렸다. 무지몽매한 내가 우리 선조들의 깊고깊은 뜻을 어찌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중학생 딸 아이의 백일장 대회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흘러버렸던 내 생각을 주섬주섬 챙기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조선왕조실록>하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기록문화유산이라 녹음기처럼 말은 하면서도 왜 선정되었는지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 주는지에 대해선 언급조차, 아니 생각조차 하려하지 않았다.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에도 왕들의 기록이 있긴하지만 우리의 것처럼 방대한 내용 역사기록시대 등은 비교도 되지않는다고 한다. 실로 우리 선조들의 기록에 대한 사랑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나라의 군주도 역사를 두려워 했다는 사실, 역사의 왜곡을 막기 위한 사투 그리고 그 역사를 안전하게 보존코자 목숨 바친 우리 조상들의 혼은 가히 높히 살만하다 하겠다. 진실만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정치를 펼쳤던 조선시대의 임금들에 반해 당대 정치가들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낸 세금이 절로 생각나게 한다. 회의장이 격투기장으로 바뀌고 서로 핏고 뜯는 언행으로 국민들을 실망 시키고 있다. 싸움 잘하고 목소리 크면 국회로 보내야하는 당대의 현실은 역사 앞에서도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 기운센 천하장사 정치가들은 <조선왕조실록>을 모르는가 싶다. 숭고한 우리 조상들의 희생으로 지켜진 위대한 유산, 세계가 인정한 이 유산을 어리석고 힘없는 후손들은 왜 그리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했을까하는 생각에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다. 기록의 세계강국은 우리 선조가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들은 보존의 세계강국이 되자는 말이다. 우리의 것을 우리는 지키지도 못한단 말인가.

기록의 중요성, 기록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25대에 걸친 472년간의 기록, 이 역사서는 분명 우리에게 안겨준 선조들의 위대한 선물이다. 앞으로 우린 후손들에게 무엇을 선물하겠는가? 첫번째 선물은 잘 보존해서 물려주는 것이고 둘째는 또 한번의 국역사업을 통해 세계기록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 높여 선물하는 것이다. '역사는 말한다. 진실만을'

산문부분

기록사랑

백일장

서른아홉의 시작

일반부 | 동상

신달수 법무부 / 청주보호관찰소 총주지소

어느 날부터 물건을 잃어버려 찾는 일이 빈번해졌다. 사소하게는 차 열쇠를 비롯해서 결혼 예물 시계까지. 점점 다양하고 심각하게 발전했다. 기억을 더듬어 찾으려고 노력을 해 보았지만 매번 허사로 끝났다. 아내와 주위 동료들은 내년이면 마흔이니 그런것이라며 위로했다. 하지만 요즘 평균 수명이 칠십대 후반임을 감안 한다면 내 기억력 둔화를 나이 탓으로 돌리기에는 웬지 부담스럽다. 더욱이 난 서른 아홉을 청춘이라고 우기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대로 주위의 강요 아닌 강요를 받아 들이고 싶은 마음 또한 추호도 없었다.

그래서 몰래 딸아이가 다니는 문방구를 찾았다. 며칠 동안 고민끝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작은 수첩에 기록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사소한 계모임 약속시간부터 중요한 행사기획 내용까지 일일이 메모했다. 처음에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몹시 부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중늙은이라는 놀림보다는 나은 것 같아 계속하기로 했다.

매일 매일 퇴근하여 수첩에 적힌 사람들의 이름과 약속, 전자메일 주소, 주요한 업무 등을 새로이 정리하여 수첩에 다시 적은 후 잠에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서랍과 호주머니에는 차츰 수첩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 순간순간 떠오른 좋은 생각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화장실과 차에도 별도의 아이디어 수첩을 두게 되었다. 신문을 보면서 알게된 중요 정보를 기록했고 때로는 책을 읽으면서 감명을 주는 글귀도 수첩에 써 넣었다.

변화는 몇달이 지나지 않아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 처럼 물건을 잃어버려 찾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며 직장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동료로 인정 받게 되었다. 또한 가끔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내 작은 수첩에 반성의 말들이 쓰이기 시작했다.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을 돌아보고 또 한달의 수첩 기록들을 보면서 욕심과 질시로 가득 찬 내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욕심을 버리는 시간이 마련되었고 가끔은 사소한 문제로 다툰 직장 동료들과 화해를 먼저 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도 내 주머니에는 두개의 수첩이 있다. 한개는 일상에서 일어 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수첩이고 또 하나는 좋은 생각과 내 자신의 반성의 글을 쓰는 수첩이다. 서른 아홉에 부끄럽게 시작된 작은 변화로 이 봄 나와 주위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다.

다음 주말에는 딸아子和 함께 수첩을 하나씩 사러 가기로 했다. 그날은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출 것이다.

산
만
부
만
부
만

일상의 기록은 나의 역사!

일반부 | 동상

하연경 대전 / 서구 율평동

몇 해 전의 일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공책을 읽어낸 것으로 보아 아마도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한글을 깨친 후인 것 같다. 무언가를 찾으려고 서랍장을 한참 뒤지다가 낡고 빛바랜 공책 한 권을 발견했다. 무심코 들춰보니 깨알같은 글씨로 뭔가 뽁뽁하게 적혀 있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하시고 처음 이사오신 지금의 우리집에 대한 메모부터 우리 육남매의 출생기록, 매년 걷어들이는 농산물의 수확량까지..

이런 때 항상 농사일로 바쁘신 부모님의 모습만 보다가 어린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기도 했다. 우리 가족사를 대변해 주는 그 공책을 접한 후 나에게도 어설피나마 메모하고 일기쓰는 습관이 생겼다. 고등학교를 도시로 유학(?)을 가게 된 사춘기 시절에 썼던 일기는 외롭고 고달픈 수험생이었던 나에게 좋은 벗이 되어주기도 했다.

긴 직장생활과 결혼까지 나름대로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게을러졌지만 신앙과 연애할 때부터 약속한 우리 둘만의 의식(?)은 계속되고있다. 그 '의식'이란 매년 마지막 날에 한 해를 돌아보고 후년의 계획을 글로 남겨 서로 공유하는 일이다. 물론 그 계획대로 모두 지켜내고 다짐만큼 치열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작은 이벤트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힘을 내보기도 한다.

올 초에 아기를 낳아 새 식구가 늘었고 우리 가족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 요즘 나의 일상은 아기를 돌보고 키우는 시간들로 대부분 채워지고 있다. 아기가 처음 배냇저고리를 입던 날, 병원에 가서 처음 주사 맞던 날, 처음 웅알이 하던 모습.. 단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사진으로, 일기로 남겨둔다. 이러한 기록물들이 후에 우리 아기가 컸을 때 되돌아볼 수 있는 자신만의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아버지가 꼼꼼히 써 오며 간직해 오신 낡은 공책이 아버지 인생의 소소한 일상이자 역사이듯이, 우리 부부가 함께 채우고 만들어가는 '의식' 속의 글들이 우리의 꿈이듯이, 우리 아가에 대한 기록들이 앞으로 우리 아기가 만들어갈 또 하나의 역사의 첫 걸음이 되길 소망한다.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과 기쁨

일반부 | 동상

김혜영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교사

국가기록원에서 주최하는 기록사랑 백일장이라는 말을 듣고, 새삼 기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기록사랑!'. 처음엔 백일장 제목으로는 낯설게만 들리더니, 몇 번 되뇌이자 입에 닿고 그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든다.

기록에 관한 추억이 있을까 되돌아 보니, 우선 기록하기를 정말 좋아했었다는 생각이 든다.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수첩에 적어두고 공책에 적어두기를 좋아했는데, 그때에는 어디에든 적어 둘 줄만 알았지, 기록을 정리해서 다시 활용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다. 마흔의 나이를 앞에 두고야 차츰 기록의 방법을 알게 되고 활용도 할 줄 알게 되었다.

기록은 기록만 해서선 소용이 없다. 잘 적어두어야 하고, 잘 분류해서 정리해 두어야 하고 그렇게 정리된 기록은 잘 활용되어야 기록의 가치를 백분 살리는 일일 것이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일 듯 싶은데, 일기쓰기를 좋아해서 대학 때까지 일기를 썼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친한 친구가 있어도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는 못하고 나만이 볼 수 있는 일기에 마음을 다 담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일기를 쓰지 않으면 불안했다. 하지만 일기를 다시 보면 그만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도 많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대학 때까지 간직하고 있던 일기 십여권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매일 일기쓰기는 그만두고, 어쩌다 꼭 글로 말하고 싶을 때 드문드문 일기를 썼다.

대학 때인가 문득 느낀 일인데, 내가 일기를 많이 쓴 덕이구나 싶었던 때가 있다. 친구들과 토론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것에 큰 두려움이 없고 가끔 말잘한다 글로 잘 표현한다는 칭찬을 듣기도 하고 보니, 글쓰기를 따로 연습한 적이 없는 나로서는, 그게 바로

일기 덕이구나하고 생각했던 일이다.

지금 국어교사가 된 것에 이런 인연이 어겨져서일까. 국어 교사로 능력과 재주가 있는 것 같지 않은 내가, 그래도 아이들에게 기회 있으면, 일기쓰기를 권하는 것도 경험에서 느낀 바가 있기 때문이다.

요즘엔 새로운 일기를 쓰고 있다. 바로 육아일기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임신했을 때 쓰기 시작한 태교 일기에 이어 알콩달콩 살아가는 얘기를 담고 있다. 누구나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만,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에 대해 표현하는 말들은 그 시절이 지나면 아이도 잊고 감탄했던 부모도 잊고 마는 것 같다

늦게 결혼해 늦게 얻은 아이가 귀하고 예뻐서, 아이가 하는 몸짓, 말 한 마디를 그냥 흘려 보낼 수가 없었다. 임신했을 때의 느낌, 아이에게 혼잣말 하듯 들려줬던 속삭임, 나의 바람들을 적었다. 어린아이들은 뭐든 잘 있는다고 하지만 의외로 어른들도 잘 있는다. 메모해 두지 않으면 고지서 납부일도 잊고 외상값도 잊고 장 볼 품목도 잊고, 심지어 가족 생일도 잊는다. 어른의 추억은 꼭 기록해 두지 않았다고 아쉽지 않은데, 아이의 예쁜 몸짓, 재치있는 말 한마디는 적어두지 않으면 너무나 아깝다.

어느날 첫아이의 일기장을 두번째로 쓰게 되면서, 첫 번째 일기를 뒷장부터 뒤적이게 되었다. 그런데 점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하하호호 혼자 웃은 일이 있다. 그 순간 정말 육아일기 쓰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다.

기록에 관한 또다른 생각의 가치를 따라가 보자면 현재의 직업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교사 업무라는 게 매일 적지 않고는 해낼 수 없는 성질의 일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출결 상황부터, 상담내용을

정리하고, 수업을 위해서는 교과 내용을 메모하고 정리해야 한다. 참 기록과는 뿔레야 뿔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하는 일이 너무 당연해서, 기록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백일장의 기회로 그 의미를 새겨보니, 기록과 가까운 직업이 있고 덜 기록해도 되는 직업이 있어서, 기록의 활용성에 따라 직업이 분류되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게 보면 기록하는게 일인 사람들이 바로 국가 기록원의 근무자일 듯 싶다. 솔직히 국가기록원이란 곳이 있는지 몰랐다. 백일장 안내문을 받고 알게 되었다. 그 참에 기록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는데, 대강 둘러본 후에 기록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언젠가 어느 일간신문에서 대통령기념관이 기록의 가치면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현 대통령이 아직 임기도 마치지 않았는데 무슨 기념관이냐는 비판적 여론이 많을 때였는데, 그 기사를 읽고 나서는 대통령 임기 중에 기념관이 세워져 기록물이 충실히 보존되고 정리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기록이란 것을 국가적으로 볼 수 없었던 식견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점이였다. 우리의 학교 교육에서 기록의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쳤던 적이 없던 탓일 것이다. 기록은 매우 사스럽고 작고 개인적인 것인 줄만 알았는데, 기록이 매우 거시적이고 역사적이고 국가적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 제고의 기회였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를 고전 역사책으로만 보았는데, 국가 행정의 기록이란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된다. 역사가 발전하고 문명이 점점 고도화된다는 것은 지난날의 운영체제를 보완, 개선하면서 좋아진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중앙 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영에 수반된 기록물과 그 생산물에 대한 기록이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사적인 기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목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거시적 안목으로 기록을 다시 봐야겠다는 것을 이번 기록사랑 백일장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된다.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생활이 나라사랑입니다.

일반부 | 동상

박원규 한국기독교법률협회 인권팀장

기록!

기록은 사전적 의미로서, 남길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적는 일 또, 그 서류를 말한다.

기록문학의 뜻도 있어 보니, 사실의 기록적 요소가 대단히 강한 문학 작품, 보고문학, 다큐멘터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성격이 곧은 편인 나는 16년 전에 우연히 정부합동 민원실에 국민제안을 하게 되었다.

며칠 후에 정부합동민원실이 찍힌 정부기관의 접수 통지문이 도착하였다.

그 때에 받은 회신문의 반가움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일반 국민에게도 일일이 답장을 주는구나 하고.

이즈음은 국민제안이 문화가 될 정도로 활성화가 잘 되어 춘추전국 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현재의 참여정부는 국민들에게 더욱 권장하니, 힘이 나고 감사할 따름이다.

시작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겠으나 메모하는 기록의 시작이었다. 기록하는 생활습관이 나에게 많은 변화와 발전, 영광으로 이어졌다.

기록 메모하는 습관이 휴대하기 불편하면, A4용지를 반으로 3번 접으면 휴대하기가 딱! 좋다.

거창할지는 몰라도 국가발전을 위한 정부각부, 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16년간 파일 80매 책자로 26권 짜에 기록하며 관련자료와 함께 보관해 오고 있다.

한장 두장 국민제안과 건의, 기고문이 모이고 쌓여 26권이라는 실로 방대한 결과물이 되었다.

그간 수백 건이 넘게 정부기관에 제안, 건의, 기고 등을 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로 정부방침으로 채택 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도 십여 차례에 이르고,

수십여 차례 정부정책에 반영케 되었다.

국민을 위한 공익적 제안과 전국적인 정부정책의 시행이었으므로 개인의 자량이 아니라 귀감이 되는 사례가 될것 같아, 몇 가지 간략히 소개해 본다.

1995. 5. 19일 제 85차 행정쇄신위원회의 심의로 정부방침으로 확정되어 시행된 법무사 보수영수증양식에 과세관청 안내문 삽입에 관한 국민제안이 시행케 되었다.

내용은, 그 이전에는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대행 대리 하면서 등기와 관련된 등록세액을 산출하여 주거나 등기 위촉인을 대리하여 세금을 납부하여 주는 경우 등기 위촉인이 세금액수 등에 관한 의문이 있을 때 과세관청(시, 군, 구)에 문의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없어, 법무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당시의 내무부인, 현재의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즉시, 대한법무사협회에 협조 요청하여 시행케 되는 보람된 일이었다.

이를 계기로 더욱더 힘을 내서 생활 속의 제도개선 할 점에 대해 기록하고 메모하는 습관이 생활화 되었다.

피부적으로 불편, 부당한 일이 있으면 국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해 오고 있다.

두번째는 제2의 쓰레기 종량제인 전국의 경기장, 국립공원, 유원지, 해수욕장에 쓰레기 종량제가 국민 제안으로 채택되어 시행케 되었다.

공공지역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96. 7. 1 시행) 이제까지의 공공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여 자연보호와 보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케 되었다. 그간의 자연보호단체의 활동과 환경

산
만
부
만
부
만

보전에 관한 국민제안과 기고 등의 활동이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표창을 환경의 날에 수여 받기도 하였다. (97. 6. 5)

세번째 로서는 장기기증등록신청서 비치로 전국의 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 건의하여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등에서 적극 검토하여 시행케 되도록 하여 시행되었다. (1997. 9. 12) 이로써 고귀한 생명 나눔의 홍보와 사랑의 실천으로 끼여가는 생명이 미려하나마 보탬이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생명사랑! 생명나눔!의 활동으로 대한적십자사의 헌혈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적극 동참하여 현재 99회 (2007. 4. 4)에 이르며 장기기증등록운동본부에 장기기증등록도 이미, 97. 3. 4에 하고, 화장서약도 99. 6. 3에 마쳤다.

네번째로서는 메스컴에서 간간히 소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심장병환자가 1년에 183만 여명이 발생하고 상당수가 바로 병원에 이송되지 못하여 사망과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보도를 접하고, 소방방재청에 국민제안 하여 시행케 된 보람된 일이다.

심장마비 발생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이 평균 40여 분이 경과되어 사망이나 심각한 후유증에 직면하고 있어 이의 대책으로 가족 등이 민방위 대원이 많음에 착안하여, 소방방재청에 국민제안하여, 채택케 되어 2005년 부터 전국의 민방위 대원이 연중 2회 반복교육을 받게됨.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금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신도록 하여 향후 교과서 개정 시에 적극 반영 되도록함.

다섯번째 로서는 “나는 한국인”! 이라는 인간성함양과 준법정신생활화의 다짐의 글을 틈틈이 기록, 작성하여, 그 당시 정부 각부, 처의 게시판과 홍보물 등에 게시토록하여 청와대의 김영삼 대통령부부

(1995. 10. 13) 및 법무부, 경찰청, 국정홍보처 등 10여 곳으로부터 감사의 회신이 답지하기도 하였다.

선진국에 이른 현재 안타깝게도 인간성과 국민준법정신은 아직도 미진하여, 국민개도 차원에서 간략히 소개해 본다. “나는 한국인!” 나는 거창한 구호의 애국이 아닌, 생활속의 작은 애국을 생각하며 찾아, 이를 실천에 옮기며 아래와 같이 노력합니다.

법과 질서 지키기는 국민의 기본의무이며, 우리나라의 얼굴입니다.이에 나는 바른국민 건전한 시민의식의 생활화에 노력합니다.

새싹부터 준법정신을 생활화 하여 밝은미래 밝은 나라가 되도록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 애정과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국경일에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합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심을 버리고 맑고 밝은 생활에 힘씁니다. 저의 직업에 충실하며 보람과 애착을 갖습니다. 노약자, 장애인, 불우한 사람을 위해 관심을 가지며 자리를 양보합니다. 인습과 풍습에 얽매인 허례허식을 배격합니다. 불건전한 사행성 오락문화의 배격에 힘씁니다. 역사와 예절, 문화예술, 과학, 경제 등의 상식에 관심을 가집니다. 과도한 교육열은 자제합니다. 안전을 생활화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합니다. 근면하게 검소하고 정직한 생활고 저축에 힘씁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각종 물자를 절약하며 주의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천합니다. 자연보호와 자원의 재활용을 생활화합니다. 외국인에게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로 대합니다. 어르신을 공경하며 최대한의 예의를 다합니다. 등이다. 이렇게 10여년 넘게 기록하며 메모하는 습관은

기록사랑

백일장

산
만
만
만
만

멍하던 내가 총명하고(?) 사물을 그냥 흘려 보지 않고, 사물을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능력이 배양되어 정부각부, 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10여 곳으로부터 자문위원과 모니터위원에 위촉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간의 기록습관이 글쓰기로 이어져 충남장애인 신문사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교육부 장관상등 20 차례의 영광된 수상으로 이어졌다.

올해 초 1. 23일에는 대통령특별연설에 초청되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연설에 참석하는 영광도 있었으며, 2002. 5. 10일에는 정부 선정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선정 공적은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제안, 건의, 기고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온 우수사례로 선정케 되었다.

또한 기록생활이 뒤늦게 대학을 특차로 입학하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기여 하였다. 뒤늦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진리의 은혜에 힘입어 신학대학을 43세에 늦깎이로 가게 되었는데, 그간의 오랜 창의성 있는 정책제안활동인 기록생활의 공로와 시민사회에 공익적 활동이 인정되어 자기추천제로 1명을 특차로 뽑는데 합격하여 천안소재의 신학대학의 명문 나사렛 대학교 신학부를 입학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졸업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기독교법률협회 인권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학중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수범사례 전국 공모전”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받게되어 정부청사에서 이상주 부총리겸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수상(2002. 11. 1)의 영광도 있었으며 20 여 곳의 각종 언론매체에 소개 되기도 하여 대학 재학 중에 대학을 빛내기도 하였다. 수상의

요지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지식정보를 창의적으로 기록하며 메모하며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겨 활용하여, 국민제안, 건의 기고활동과 준법정신의 생활화를 실천하여 학벌보다는 개인의 능력개발이 개인의 발전이며 국가의 발전임을 실천적으로 능력과 적성과 특기를 살리며 살아온 삶을 담담히 소개하여 개인부문 최고상인 우수상을 수상케 되는 영광이 있기도 하였다.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메모하며 기록하는 습관으로 국민제안과 건의 기고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미숙하나마 도움이 되어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고져 한다. 기록은 개인과 국가의 역사이며 밝은 미래의 희망이다. 남의 기록이 아닌, 나의 기록을 나부터, 우리부터 모두가 지금부터 시작해 보자. 기록은 나의 발전이며 국가의 발전이다.

영원한 대한민국! 영원한 기록문화!



내 생활속에 베어 있는 기록 문화

일반부 | 동상

오기영 대전 / 서구 삼천동

내 기록의 시작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등학교의 어린 시절을 시골 농촌 마을 가난한 농가집에서 1남 5녀의 둘째 딸로 태어난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숙제를 하고 싶어도, 친구들과 실컷 뛰어놀고 싶어도, 그런 여유로운 자유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유로 인하여 고사리 손이라도 집안 살림에 보탬을 더해야 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책가방을 풀기도 전에 엄마에게 불러 나가 농사 일을 도와야 했고, 저녁이면 불을 아궁이에 지펴 밥을 지어야 했다. 저녁 설거지는 물론 이른 아침 소 여물을 쓰기 위해 졸리운 눈으로 새벽녘에 일어나기가 일쑤였고, 어느 편 내 특기인 새끼줄을 꼬아야 했다.

밭로 밭아가며 돌아가는 새끼 기계에 일정한 간격을 맞춰가며, 일정한 굵기로 끊기지 않게 해야 상품의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곧 우리 집안의 생계원으로 이어졌기에 내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하는 고된 일이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추운 새벽녘에 나 혼자 부모님과 함께 일어나, 엄마는 밥하고, 아버지는 가마니를 짜시는 동안 난 하루동안 쓰실 새끼줄을 그날 아침 학교 가기 전에 모두 꼬아 놓고 가야했기 때문에 졸음을 쫓으며 열심히 해야만 했다.

농사일이 뜬 날이면, 엄마는 우리를 부르시며 닭이나 돼지 영양식으로 개구리를 잡아오게 했고, 나물이 나오는 철이면 쭉이나 냉이는 뜯어 오게 하여 시장에 내다 파셨다.

여름이면 과수나무에 농약을 치셨는데, 아버지는 약을 뿌리고, 동생과 나는 서로 힘을 모아 밭로 구르면서 약 뿌리는 기계로 농약이 줄을 타고 저 멀리

내보내게 했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팔뚝에 알이 베어 저녁에는 숙제도 못하고 쓰러져 자기가 일쑤였다.

더운 여름,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일요일, 언니부터 나, 내 밑에 동생까지 고사리 손에 호미를 쥐어 주고, 밭에 나가 풀을 매어야 했고, 담배잎이 익어갈 때면 밭 고랑이에 따 놓은 담배잎을 날라 집안에까지 들여다 놓으면 검검한 밤이 되어 다시 내일을 맞이 해야 했다.

중1학년 까지 계속된 나의 어린 시절 기록은 내 머리속에, 내 마음속에 기록으로 생생하게 남아 일기로, 편지로 수필로 전해져 오게 되었다.

몇 년 전부터 백일장이 열리는 곳으로 두 딸을 데리고 다니며, 나 또한 내 삶의 기록들을 들추어내며 또 다른 내 기록을 만들어 가는 삶을 살고 있다. 비록 힘들고 고달픈 삶일지라도 난 살아 숨쉬는 동안, 이 일을 계속할 것이며, 새로운 기록 문화를 만들어 가는 삶을 살 것이다.

이웃이 어려워 할 때 조그마한 정성으로 힘을 더하여 주고, 가족이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부추해 주고,

내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글로써 역경을 이겨 나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새겨질 기록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록사랑

백일장

작은 기록의 소중함

일반부 | 동상

김선유 경남 / 마산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하게 지나치는 게 자신에 대한 기록이 아닐까 싶다. 사람은 모르지 아는 만큼 생각하고 아는 만큼 행동한다는 명제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항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성을 간과하면서 지나치고 있다.

결혼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육아일기 및 앨범 정리, 유치원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실상은 결심한대로 쉽지가 않았다. 거기에는 성실성과 책임감이 뒤따르지 않으면 쉽지않음을 새삼 깨우치게 되었고 미비하지만 나름대로의 파일을 만들어 가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씩 정리해오고 있다.

큰 아이의 경우 첫 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말 여행을 많이 다녔다. 주말 및 휴가기간에 틈나는 대로 다니면서 먼 훗날 기념할 목적으로 여행 사진을 남겼으며, 몸이 약해 그런지 여행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병원신세도 많이 지게 되었는데 병원에 다녔던 기록도 가게부로 인해 고스란히 남게 되었고, 유치원에서의 성장앨범, 중요한 순간-아이의 백일, 돌잔치, 걸음마 시작단계, 이유기의 모습등-의 사진이 지금에 와서는 큰 애의 성장기록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 이이를 키우면서 순간순간의 느낌을 그때 마다 짝막하게 몇 줄씩 남겨 놓곤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아이에게 보여 주거나 들려주면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부모에 대한 신뢰의 눈빛을 읽어 볼 수가 있다.

작은 아이의 경우에는 큰 아이의 기록들을 거울삼아 태교에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고, 특히 먹거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작은 기록들이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 덕분에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

아이에게 순간순간의 기록을 보여 주거나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아하면서 순한 양이 되곤 한다.

이러한 경우들을 통해 볼 때 작은 기록들이라도 없었다면 일일이 기억을 떠올려서 얘기를 하기도 어렵거니와 아이들에게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만으로 남을 것인데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어서 참 좋다.

작은 기록의 소중함이 아이들에게도 연결이 되어 자신의 일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쓰고 있다.

큰 아이의 경우 초등과정 중에서 일기도 숙제의 일부분에 속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느꼈던 감명 때문에 자율적으로 잘 적고 있다.

작은 아이의 경우 아직 유치원생이긴 하지만 누나와 마찬가지로 재미있어 하면서 철자가 틀리기도 하지만 그림일기를 열심히 쓰고 있다.

하루는 "엄마 나 아기에 응가 사진을 왜 찍어 놓았지요?"라고 물었다. 그래서 너의 건강한 배변 모습을 담고 싶어 사진을 남겨 놓았지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옛가락처럼 가늘고 긴 모습으로 늘어져 있는 똥 사진을 한동안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이처럼 작지만 소중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순간의 기록의 가치를 여실히 실감하면서 살고 있다.

다들 평소에 기록의 습관을 소중히 느끼면서도 잘 정리를 못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큰 욕심으로 시작하기 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는 것이 부담도 없고 훨씬 편하면서도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혹 매체를 통해 유적지의 유물 발굴이나, 대대로 집안에서 보관해 오던 문서에 역사적 기록이 바뀌는

산
만
만
만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처럼 한 기록에 의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듯이 작은 기록의 소중함을 항상 간직하면서 매사에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록사랑

백일장

나의 기록 시작

일반부 | 동상

이미자 대전 / 대덕구 증촌동

백일장

나는 2남1녀 세자녀를 둔 엄마이다. 첫째아이를 임신하면서부터 나름대로 굉장한 자부심과 함께 자녀교육시작에 대한 육아일기형태의 기록이 시작되었다. 쉽게는 출생년 월 일 시간을, 아기상태, 체중 신장 등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부터 이었고 예방접종일, 아파서 병원에 간일, 등. 상세하게 적고, 아팠을 경우 응급처치에 대한 결과까지 또한 어른들에게 들은 민간요법 응급처치 방법까지. 계절별로 유행한 질병이나 계절에 자주간 병명까지 그래서 그다음 해에 그 계절을 돌아보고 예방도하고 준비도 해보고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학창시절에도 잘쓰지 않았던 기록이었는데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시작한 기록습관은 자녀들에게 이어졌다. 첫째는 용돈기록장 쓰는것, 둘째는 하루생활 계획표 실천사항, 셋째는 엄마가 만들어준 생활준수사항표 점검하는 기록내용이었다. 학창시절에 들어간 아이들은 많은 곳을 현장체험하게하고 보고 느낀것들을 기록하게 했다. 지금은 백과사전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를 쉽게 알수있지만 80년대만 해도 지난기록 사항들이 많은 도움을 준때도 있었다.

아이마다 개인성장 과정 기록지를 분류해서 각자 주었다. 예를들면 큰아이는 초등몇년 몇일에 무슨 상장을 받았고 무슨 말질을 해서 선생님께 아니면 부모님께 야단 맞았고 하는 등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기억나게 해준것이다. 그때는 사진기가 없어서 형편 없는 그림솜씨로 간단한 삽화도 함께 표현해 놓은것도 있다. 이제 나에게 기록습관은 가계부로 정리로 전환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 수입지출이 불규칙적인 나에 경제생활이 연속되었다. 그때부터 가계부 기록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었다. 몇년을 그러했다. 문득 지나간

결과에 대한 증거를 알아야 할때가 있었다. 기록이 없으므로 큰낭패를 겪었다. 잠시 쉬었던 기록휴면상태의 엄청난 피해였다. 그때부터 다시 기록이 시작되었고 이제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크게는 세자녀에 관한 내용과 가계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내용까지도 적게되니 내가 무슨 여류작가가 된 느낌 일때도 있다. 지금 나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척 힘든 가정생활 경제생활을 하고 있지만 꼼꼼한 가계부 기록 습관으로 인하여 가족모두 가정 생활 적자줄이기에 협력하는데 힘을 모아주고 있다. 나의 기록, 나의 가족 기록 습관은, 자자손손, 내려주고 싶은 소중한 가보이고 싶다.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사랑 백일장」 수상작 표어·포스터부문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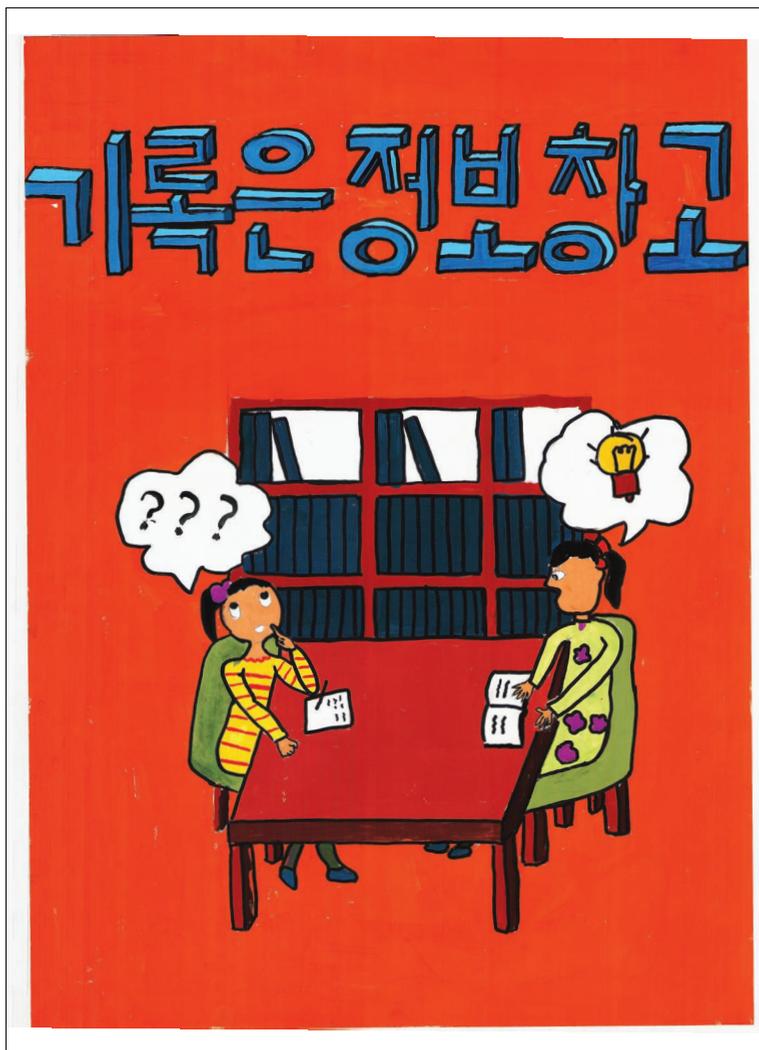
- 대상 | 김민선 • 금상 | 신달수
- 대전광역시장상 | 배현영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 서성민
- 은상 | 김소영 · 노현경
- 동상 | 송다현 · 오진희 · 김하정 · 윤시진 · 이수민 · 김영채 · 이영림 · 선유진 · 정종숙 · 황정민

기록사랑

백일장

대상(행정자치부 장관상)

김민선 대전 / 신계초등학교 4학년



금상(행정자치부 장관상)

신달수 법무부 / 청주보호관찰소 중주지소

기록은	상상은
정확하게	무한하게

포스터·표어부문

기록사랑

백일장

대전광역시장상

배현영 대전 / 대덕초등학교 2학년

대전광역시교육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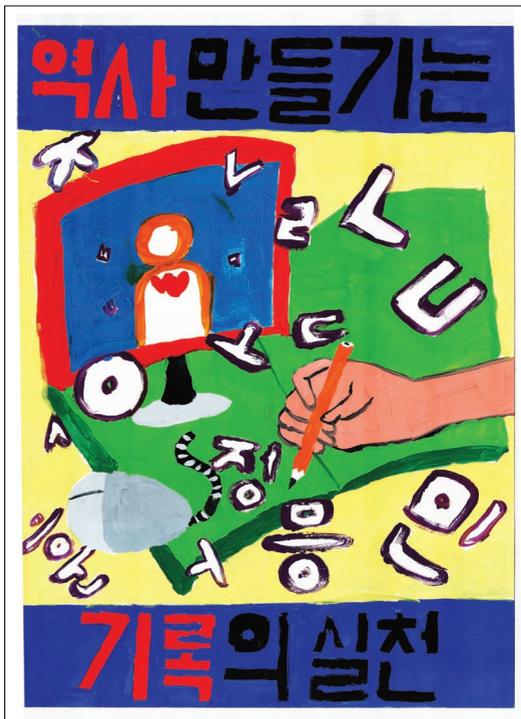
서성민 대전 / 자운초등학교3학년



매일매일
적은 습관
아름다운
기록문화

(은상)국가기록원장상

김소영 대전 / 둔전초등학교 6학년



(은상)국가기록원장상

노현경 가평 / 청심국제고등학교 2학년

기록문화
 귀한유산
 역사바퀴
 돌려주네

기록사랑

백일장

동상

송다현 대전 / 동대전중학교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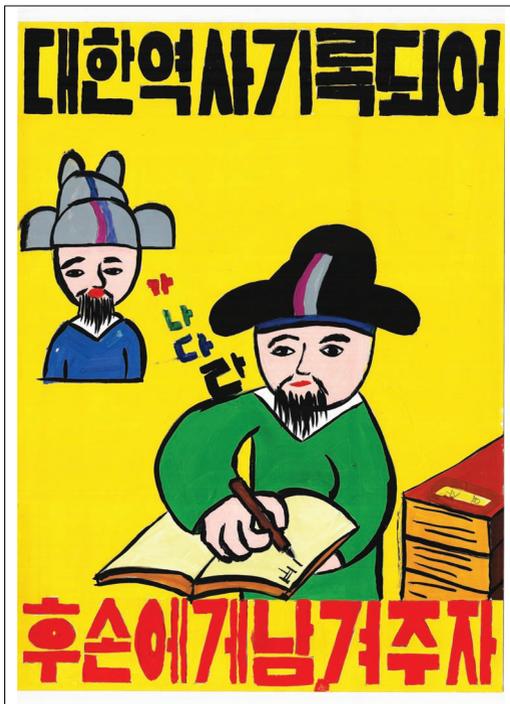
동상

오진희 대전 / 송촌고등학교 2학년



동상

김하정 대전 / 서대전초등학교 6학년



동상

윤시진 대전 / 한밭초등학교 5학년



기록사랑

백일장

동상

이수민 대전 / 정림초등학교 4학년



동상

김영채 대전 / 대화초등학교 6학년



동상

이영림 대전 / 서구 괴정동

역사 왜곡 막아낸다	기록 속에 담긴 역사
------------	-------------

동상

선유진 대전 / 송촌초등학교 5학년

후손에게겐 문화유산	보고 듣고 기록하면
------------	------------

기록사랑

백일장

동상

정종숙 충북 / 충주 용산동

기록하는 순간,
당신은 영원합니다

동상

황정민 시흥 / 은행중학교 1학년

기록하는 작은 정성
인류위한 큰 선물

기록사랑 백일장



「기록사랑 백일장」 수상작 만화부문

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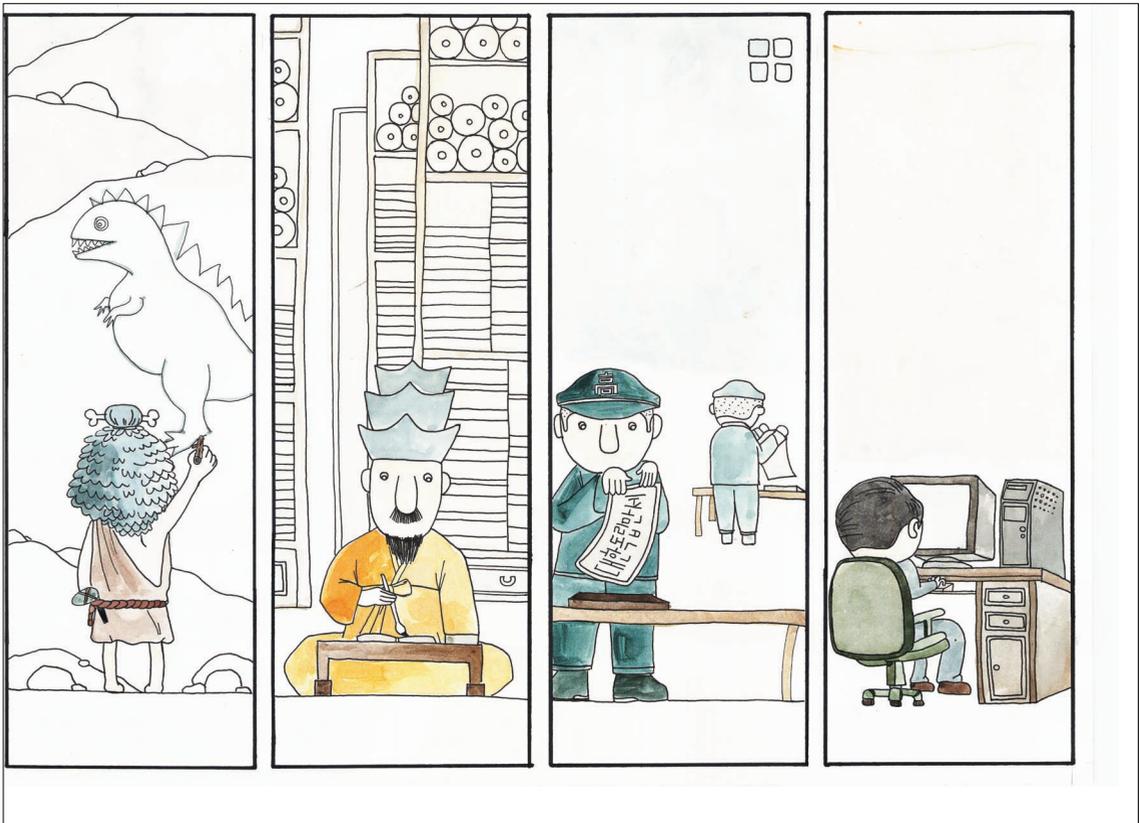
- 대상 | 정소이 • 금상 | 권소윤
- 대전광역시장상 | 백주현 • 대전광역시교육감상 | 이지훈
- 은상 | 김윤아 · 김대훈
- 동상 | 이나영 · 박세인 · 신보미 · 나선명 · 김재민 · 정혜련 · 김영서 · 박예원 · 최보윤 · 고지혁

기록사랑

백일장

대상(행정자치부 장관상)

정소이 대전 / 청란여자고등학교 3학년



금상(행정자치부 장관상)

권소윤 대전 / 동대전초등학교 2학년



만화부분

기록사랑

백일장

대전광역시장상

백주현 대전/대덕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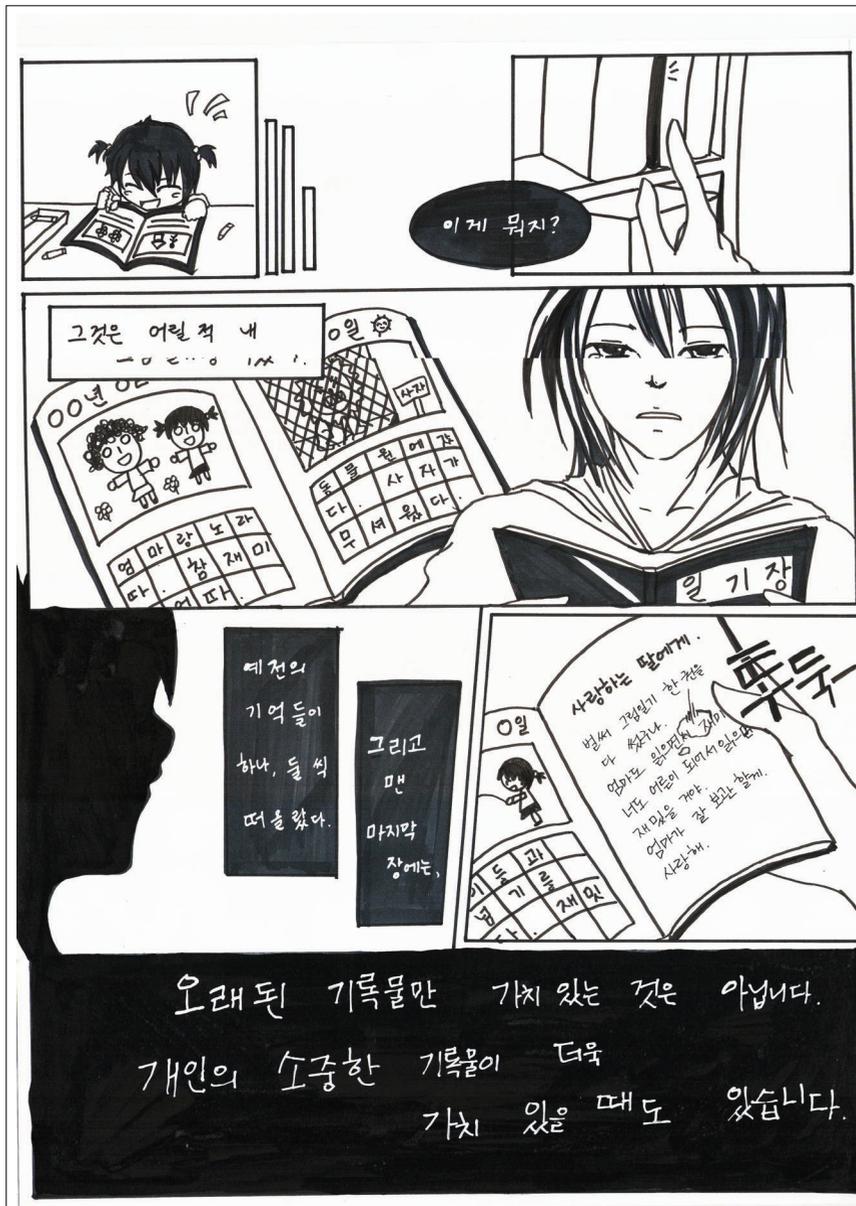


기록사랑

백일장

은상(국가기록원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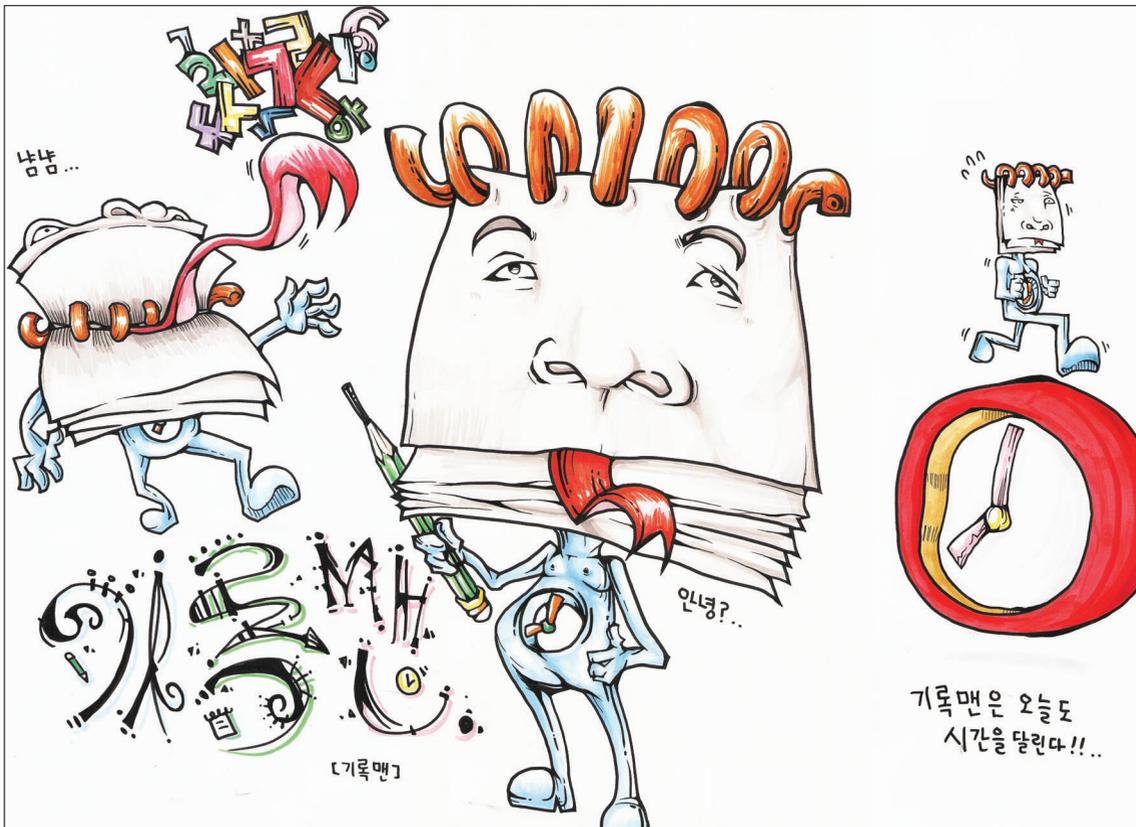
김윤아 서울 / 대진디자인고등학교 1년



문화 화 단

은상(국가기록원장상)

김대훈 대전 / 대전고등학교 3학년



동상

박세인 대전 / 대전고등학교 3학년



만화부분

동상

나선명 대전 / 청란여자고등학교 1학년



만화부분

기록사랑

백일장

동상

김재민 대전 / 배울초등학교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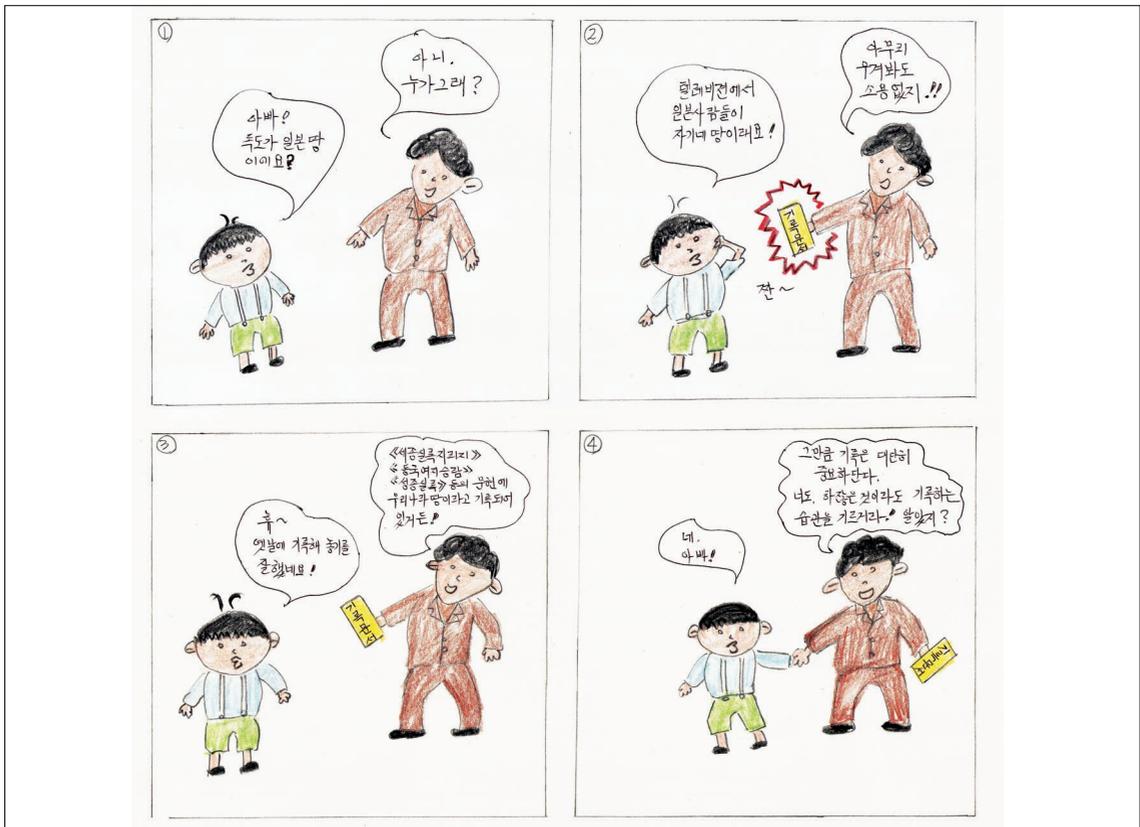
제1회 학과대

기록사랑

백일장

동상

김영서 대전 / 백운초등학교 6학년



동상

박예원 대전 / 서원초등학교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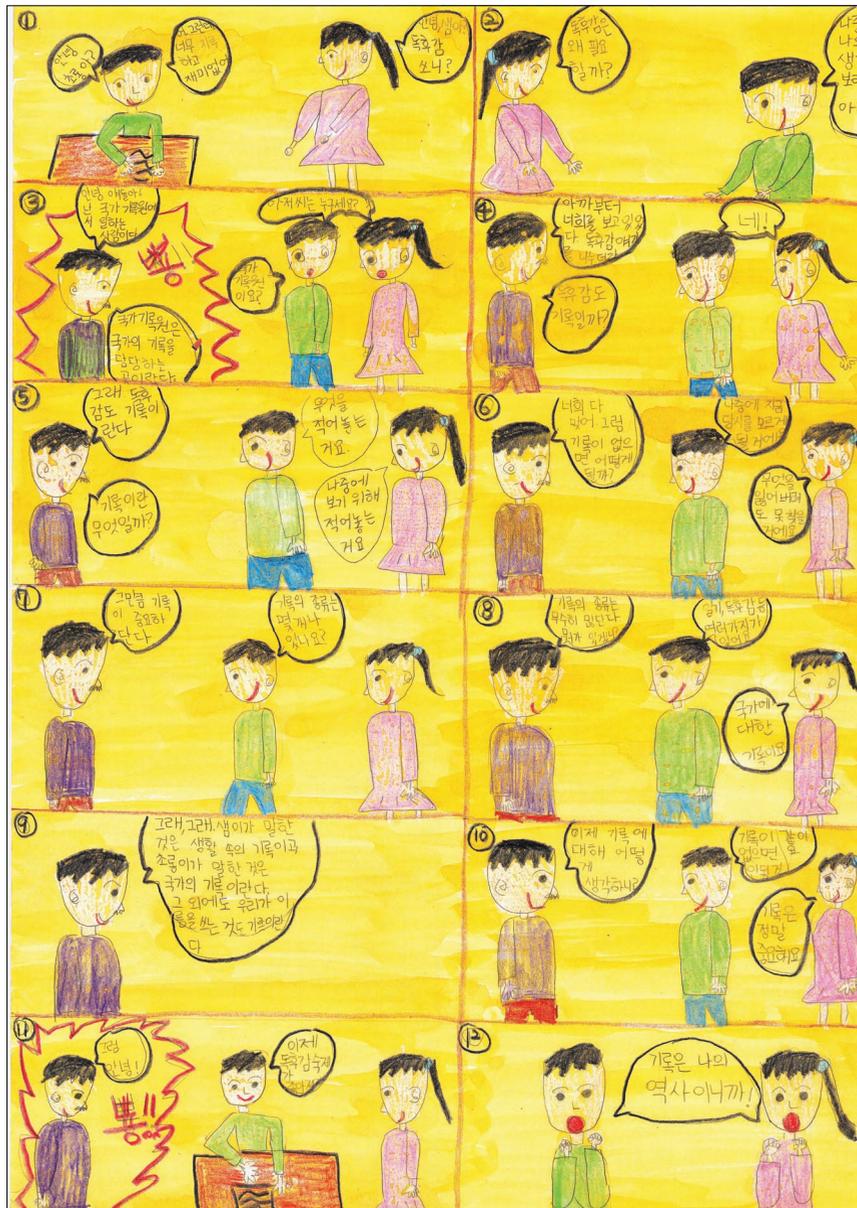
만화
기록원

기록사랑

백일장

동상

최보운 대전 / 한밭초등학교 1학년



동상

고지혁 대전 / 대덕초등학교 1학년



만화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제1회 기록사랑 백일장 수상작품집

발행일 : 2007.7

발행처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편집처 : 기록정보서비스부 홍보서비스팀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Tel : 042-481-6778 Fax : 042-487-6535

디자인·인쇄 : (주)두원 Tel : 042-472-5094

이 책자의 내용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全文을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www.archives.go.kr>